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결국…

“동부제철 대표이사서 물러나겠다” 전격 선언
채권단 요구 수용… 경영정상화 MOU 체결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동부제철의 자율협약 개시를 위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23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동부제철은 김준기 회장의 서명이 포함된 MOU 최종안을 전일 오후 늦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산은행은 동부제철이 보내온 MOU를 최종적으로 점검했으며 전일부로 MOU를 체결했다.

그동안 김 회장은 경영정상화 MOU 이후에도 경영참여를 채권단에 요구해 왔다. 반면, 채권단은 김 회장에서 동부제철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보장하지만 경영에서는 물러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따라서 김 회장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은 동부제철의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체결된 MOU에는 채권단이 마련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함께 경영달성 목표치 제시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 관리단 운영·역할 등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겼다. 구체적 방안은 △대주주 100대 1, 일반주주 4대 1의 차등 무상감자 △채권단 530억원 출자전환 △신규 자금 6000억원(L/C한도 설정 1억 달러 포함) 지원 △기존 담



보채권 연 3%, 무담보채권 연 1%로 금리인하 등이다. 아울러 김준기 회장 등 대주주 일가에 대한 조건부 우선매수청구권도 MOU에 명문화해 포함했다.

채권단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회생 정도에 따라 김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다만 김 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MOU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김 회장은 23일 오전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일을 통해 “저는 오늘 채권단과 동부제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동부제철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원료 자립의 숙원을 실현하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기로제철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동부제철의 꿈을 잠시 좌절했다”고 적어 그간의 소회를 담담하게 밝혔다. 이어 “여러분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동부제철의 비전인 ‘경쟁력 세계 제일의 제철회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글 마지막 부분에 “언제라도 여건이 허락되는 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동부제철 여러분을 지원하겠다는 결심은 변함없다”고 덧붙여 경영권 재확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김미정·최재혁 기자 mjk@

SK하이닉스, 3분기 연속 ‘1조클럽’ 등극

영업익 1조3010억, 전년대비 12% ↑… 매출 4조3120억
D램·낸드플래시 수익성 향상… “올 3000억 추가투자”

SK하이닉스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3분기 연속 분기 영업이익 1조원 돌파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하이닉스의 반도체 신화를 다시 한 번 써 내려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4조3120억원, 1조3010억원, 1조950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6%, 영업이익 12%, 당기순이익 14% 각각 늘어

난 수치다.

3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모든 사업 부문에서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제품 전반의 미세공정 비중 확대에 따른 원가절감 강화와 낸드플래시 수익성 향상으로 전 분기 대비 20% 상승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30%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D램은 20나노 중반급 공정기술 비중 확대와 PC 및 서버용 제품의 견조한 수요로 출하량이 7% 증가

했고, 평균 판매가격은 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낸드플래시의 경우 10나노급 공정기술 비중 확대와 솔루션 제품 위주의 공급 확대로 26%의 출하량 증가를 보였고, 평균 판매가격은 모바일용 수요 개선 등 수급 균형에 따른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2% 하락에 그쳤다.

SK하이닉스는 향후 20나노 중반급 공정기술을 서버와 모바일로 확대 적용해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버 시장에서 128GB 및 NVDIMM 등 다양한 모듈 제품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DDR4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20나노 초반급 공정 기술 개발도 연내 완료한다.

낸드플래시는 지난 분기 개발을 완료한 10나노급 TLC 제품을 기반으로 TLC 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급을 시작한 기업용 SSD 등의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수익성을 강화한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경영성과에서 발생한 재원을 근본적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투자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까지 약 3조9000억원의 시설 투자를 집행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이천 M14에도 설계 변경 및 환경안전 투자 등을 위해 올해 약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의 올해 투자액은 총 4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효진 기자 js26@

캐나다 국회의사당 무장괴한 난입 총격전



22일(현지시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 국회의사당에 무장괴한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 범인과 경비원 1명이 사망했다. 인근 국립 전쟁기념관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캐나다 해밀턴에서 한 소녀가 꽃을 놓으며 국회의사당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자를 추모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조직·고객·시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내정자의 무거운 어깨

KB금융 회장 후보에 윤종규 전 부사장(사진)이 선임됐다. 최초 내부출신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전일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윤 전 부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관련기사 2면

회추위는 심층면접과 평판조회 등을 참고하고 위원간 의견을 교환 후 최종 회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1차 투표에서는 윤 전 부사장 5표, 하행장 4표를 얻어 결선 투표를 한 결과, 6대3으로 윤 전 부사장이 최종 선정됐다.

김영진 회추위 위원장은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 개인 자질을 모두 고려해서(윤종규 전 부사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며 “면접에서 KB가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경영을 하겠다고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말했다.

윤 전 부사장이 차기 회장 후보에 오른 것은 내부 출신이 KB를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부사장은 4명의 후보 가운데 KB에 가장 오래 몸담은 인물이다.

윤 내정자는 2002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시절 김정태 전 행장이‘삼고초려’로 영입한 인사다. 국민은행 부행장으로서는 재무·전략·영업 등을 두루 경험했다.

윤 내정자는 자격검증이 마무리 되면 오는 29일 이사회를 거쳐 다음달 21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선임된다.

한편 윤 내정자는 무형의 처분은 받았지만 국민은행과 KB카드와 합병 당시 분식회계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10조 세수펄크… 재정사업 집행 멈췔다

관리대상사업 집행진도율 76%
당초 계획보다 2.7%P 떨어져
경기회복 움직임에 ‘찬물’

올 들어 9월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재정집행률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탓에 재정집행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반기 재정절벽을 피하고자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확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돈을 쓰지 못하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99조

4000억원 상당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9월말 기준 집행규모는 227조6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76.0%의 집행 진도율을 보였다. 이는 애초 3분기 계획인 78.7%보다 2.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이 기간 중앙부처의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재정집행률은 정부 목표의 75.7%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 중인 462개 단위사업 가운데 180여개 사업은 지난 9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률이 70%를 넘지 못했고 65개 사업은 지난 9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절반을 밑돌았다. 집행률이 30%대 미만에 머무른 단위사업도 31개나 됐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보다 재정집행률을 더 높이는 데 주력했다. 8월까지 재정집행률만 봐도 애초 목표

(69.2%)를 0.7%포인트 웃도는 69.9%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반기로 들어서자 상황은 달라졌다. 올해 1-8월 세수진도율(63.1%)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8%보다 4.7%포인트 나 떨어지면서 세수결산 규모가 작년(8조5000억원) 수준을 넘어 1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집행률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국세가 덜 걷힌 탓에 총세출을 애초 계획보다 25조4000억원이나 줄였고, 그 결과 총세출 계획 대비 실제 재정집행률은 91.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용액도 1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데이터 뉴스



서경배 회장, 주식부자 2위 굳히기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보유 상장주식 가치가 7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보유 주식가치는 각각 2450억원, 5610억원이 하공으로 낮아졌다. 이에 서 회장이 주식부자 2위로 순위를 굳히는 모양새다. 상장주식 가치 4위는 4조3736억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일 초보다 2794억원 늘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금융지주 사외이사 보수 5460만원

KB금융지주 사외이사가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가장 많은 92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사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는 5460만원으로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 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금융지주사와 은행 사외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평균 4920만원이다. 보수 중 기본급 평균이 4200만원, 수당 평균이 1480만원으로 파악됐다. 회사별로는 KB금융이 9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김민지 기자 kimmj@

뉴스이더 블루슈머 ▶10면

Trend Korea

▶19~24면

정기선 상무 ▶ 박기현 센터장 ▶26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첫 내부 회장 뽑았지만...‘무너진 조직 재건’ 향후 행보 험난

윤종규號 풀어야할 ‘3대 과제’는

KB금융 회장 후보에 윤종규 전 부사장이 선임됐다. 순수 ‘KB 혈통’은 아니지만 회장 후보 중 KB 근무기간이 가장 길고, 내부 직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첫 내부 출신 회장을 배출하면서 노조는 물론 금융당국도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윤종규 KB호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잇따른 금융사고와 내분사태로 땅에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시급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지배구조 탓에 금융당국에 발이 묶여 있는 LIG 손해보험 인수 승인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소매금융 강화 등을 통해 리딩뱅크를 탈환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윤 내정자가 회장에 오른 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현안은 LIG손보 인수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승인을 차기 회장 선출 이후로 미룬 상태다. 오는 27일까지 인수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KB금융은 매일 1억원의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윤 내정자는 수장에 오르자마자 금융당국 지적사항인 경영불안을 해소해 LIG손보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통과시켜야 한다.

KB금융의 고질병인 내부갈등 해소도 당면과제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현재 국민은행은 1채널(옛 국민은행)과 2채널(옛 주택은행) 간 편가르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최

① LIG 손보 인수 마무리

금융위, 회장 선출까지 승인 보류
28일부터 하루 1억씩 이자 ‘급한불’

② 조직안정·지배구조 개편

주택은행과 합병...편가르기 여전
CEO 바뀌면 줄서기 ‘경쟁력 저하’

③ 시장신뢰·리딩뱅크 위상 회복

개인정보 유출 등 직원 사기도 뚝
실적하락 불러 상반기 순익 하위권

고경영자(CEO)가 올 때마다 출신 채널에 따라 물갈이 인사를 경험했다. 채널 간 갈등에서 비롯된 줄서기 문화는 결국 KB금융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여기에 KB금융은 지난해부터 국민주택채권 횡령,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개인정보 유출, 내분사태 등을 겪으며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이 과정에서 2만8000명에 달하는 KB금융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

‘주인의식’이 실종된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실적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KB금융지주 본점에서 열리는 KB금융지주 회장후보 심층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로비로 들어오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추위원 9명 중 6명의 표를 얻은 윤 전 부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했다.

하락로 연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순이익은 5462억원에 그쳐 우리은행(5267억원)과 더불어 순이익이 주요 은행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지난해 기준 국민은행이 0.30%로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신한(0.59%), 하나(0.38%), 외환(0.31%), 기업(0.36%) 등 주요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국민은행은 4.21%로 신한(7.28%), 하나(5.94%), 기업(6.76%) 등 다른 은행에 못 미쳤다.

수장에 오를 윤 내정자는 성과와 능력에 근거한 인사보상체계를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고객신뢰를 회복하고 직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도 중요하다.

임영록 전 회장과 이견조 전 행장으로 인해 걸려온 금융당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KB금융은 2008년 9월 금융지주 체제가 출범한 이후 1대 황영기 회장부터 2대 어윤대 회장, 3대 임영록 회장까지 3명의 회장 모두가 제재조

치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LIG손보 인수와 관련해 금융위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과 원만한 관계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윤 후보는 “회추위의 결정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KB 가족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을 이뤘고 고객 신뢰를 되찾고 KB금융그룹의 경쟁력을 회복해 선두 금융그룹으로 재도약시켜 주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세계경기회복과 정책 모멘텀의 결합, 시장이 재평가 된다.

대신[Balance] 적립형 지수ELS랩

세계 경기회복과 성장기조의 정부정책으로 세계 증시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변화 속에서도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적립형 지수ELS랩으로 투자의 밸런스를 잡으세요.



고객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랩은 고객계좌별로 관리 운용되며 투자의 결과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합니다. *해당 랩에 가입하시기 전에 약관, 계약권유문서, 핵심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며, 가입시점에 따라 계약별 운용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랩 수수료:연 0.5%(분기별 후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제 제14-05466호(2014.08.19~2015.08.13)



尹 내정자는 누구

직원 신망 두터운 상고 출신 ‘재무·전략통’

은행 다니며 성균관대 야간 졸업
행시 2차 합격 후 ‘시위 전력’ 탈락
故 김정태 행장 탈락, 국민銀 인연

윤종규 KB금융 회장 내정자는 비상함과 온화함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1955년생인 윤 후보는 전남 나주 출생으로 광주상고를 졸업한 후 1973년 외환은행에 입행했다. 은행에 다니면서 성균관대 경영학과(야간)를 졸업했다. 제25회 행정고시에도 2차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학내 시위를 주도한 전력으로 인해 최종 임용에서 탈락했다. 공인회계사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동아건설 위크아웃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시절 고 김정태 전 국민은

행장의 삼고초려로 2002년 국민은행에 합류했다. 김 전 행장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그는 재무기획본부·전략담당 부행장, 개인금융그룹 부행장을 역임했다.

2004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 관련 회계처리 문제로 중징계(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KB를 떠났지만, 2010년 어윤대 전 회장 시절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 부사장으로 복귀해 3년간 일했다.

KB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윤 후보는 재무·전략·영업 등을 두루 경험해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어 전 회장 시절 은행장 선출을 위해 실시했던 직원 설문조사에서 최상위권에 뽑힐 정도로 높은 신뢰력을 갖췄다.

최초의 내부 출신 회장이란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주총을 통해 회장에 최종 선임될 경우 국민은행 노조의 반발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림 기자 hura@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회추위

외부인사 사퇴 압박...노조 입김 못막아

尹 내정자 10년전 분식회계로 금감원 징계 이력 자적 논란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에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이 내정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회장 선출 과정에서 발언권을 높인 노조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KB금융의 개혁에 한계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 국민카드 합병 과정에서 1조6664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받은 이력으로 차기 회장 자격 논란도 벌어지는 형국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내정자가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됨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둘러싸고 노조 개입설과 회장 자격 논란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KB금융 차기 회장 인선은 정치권 등 외부 입김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후보자 심층면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외부 출신으로 대변되는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과 내부 출신으로 윤 내정자와 나머지 후보 2명 간의 각축전으로 요약되면서 일찍이 논란이 제기됐던 ‘보이지 않는 손’ 작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막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나서면서 뒷말이 개운치 않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앞서 진행된 네 차례의

회추위를 앞두고 외부 출신 후보들에 대한 서신을 보내 후보직 사퇴를 종용했다. 또 외부 출신이 선임될 경우 출근 저지 등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압박도 가했다. 노조 입맛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배척하며 차기 회장 선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노조의 월권행위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조 입김이 휘둘리는 인사가 차기 회장에 내정되면서 KB금융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파벌싸움과 출대기 문화 근절에 명백한 한계점에 봉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리딩뱅크의 위상을 되찾고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 조직을 융합해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우선순위에 제의됐다는 얘기다.

한편 윤 내정자가 KB금융에 몸담은 동안 분식회계 등 적잖은 손실을 끼쳐 자격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윤 내정자는 지난 2004년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1조6664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금감원으로 부터 이듬해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3개월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아 연임하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은행을 떠난 바 있다.

안철우 기자 acw@

다시 각광받는 ‘산업의 쌀’…올 수출 600억 달러 무난할 듯

〈반도체〉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확실한 금맥으로 자리잡았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주력 수출 상품 중 하나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인 6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9월 현재 반도체 누적 수출량은 451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석유제품을 비롯해 전통적인 효자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 자동차 등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는 20여년간 우리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2011~12년 석유제품에 수출품목 1위 자리를 빼앗겼지만 지난해 571억46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최고의 자리를 재탈환했다. 특히 석유제품 등 다른 품목 대부분이 전년 대비 수출량이 감소한 반면 반도체는 13.3% 증가했다.

9월누적 451억 달러…작년보다 8.5% ↑

모바일 중심 글로벌 수요 증가 덕분

20여년간 한국號 파수꾼 역할 ‘톡톡’

1990년대 업체 난립으로 ‘치킨게임’ 혼란

1992년 삼성전자 64Mb D램 첫 개발 후

메모리반도체시장 1위 자리 굳건히 지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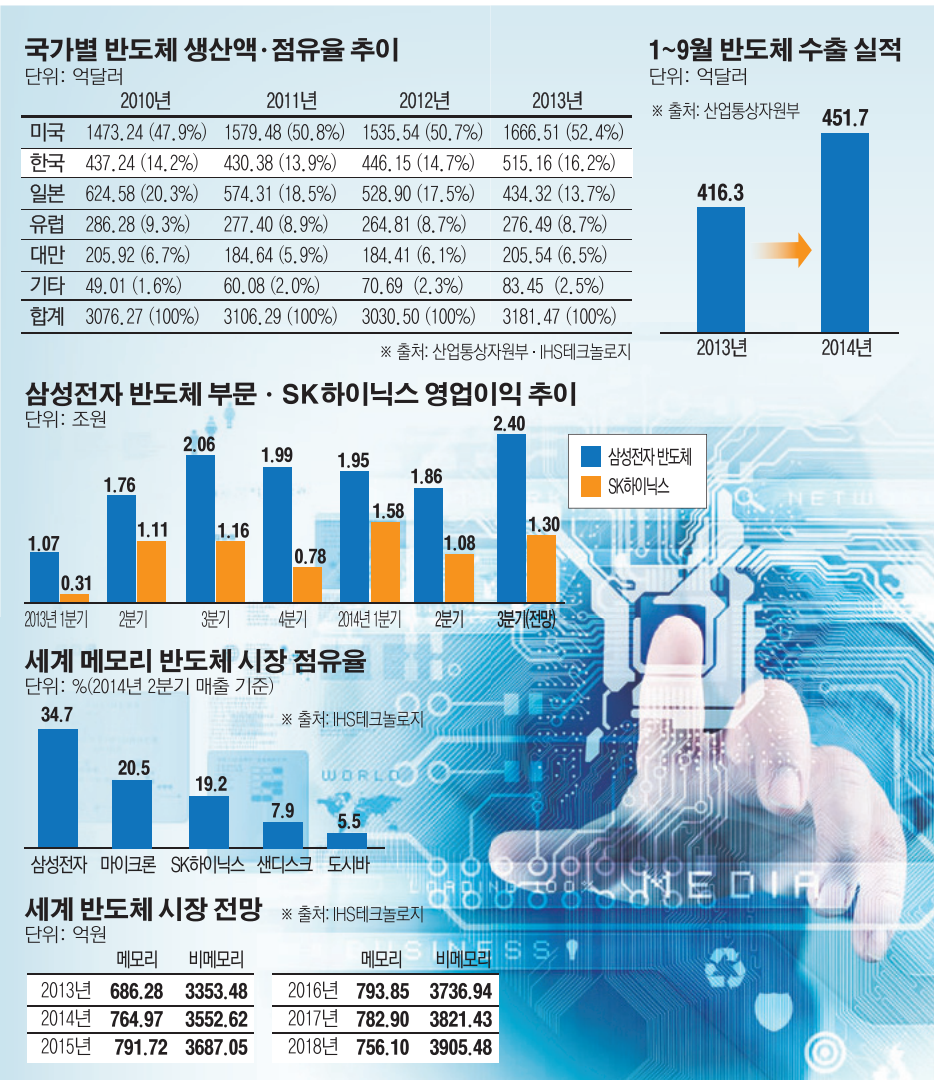
작년 세계반도체시장 日 제치고 2위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날개를 단 것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중 90%가 해외에 수출된다. 더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양대 축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술 초격차 실현이 한몫을 했다.

반도체 시장 성장기인 1990년대, 3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난립하는 등 치킨게임 양상을 띠며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199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4Mb D램을 개발하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급격히 늘어났고, 삼성전자는 1992년 이후 줄곧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도 2002년 이후 계속 세계 최강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테크놀로지(옛 아이스플라이)에 따르면 올 2분기 삼성전자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4.7%로 부동의 1위다. 뒤를 이어 마이크론(20.5%)과 SK하이닉스(19.2%)의 2, 3위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선전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다. 지난해 한국 반도체 생산액은 515억1600만 달러로, 세계 시장의 16.2%를 점유했다. 반도체 부문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은 1980년대 삼성전자가 처음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 약 30년 만이다.

이 같은 성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영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을 반도체가 만회하면서 전통적인 반도체 강호의 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 3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을 2조원 중반대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IM(IT·모바일)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넘어서는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올 들어 3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사상 최대인 1조301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강화 전략의 효과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들 기업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팹팩에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짓고, SK하이닉스도 2조1000원을 투입해 이전 공장을 증설한다.

장효진 기자 js62@

남은 과제는…시스템반도체 극복

삼성 3.9% 점유…1위 인텔 5분의 1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4배 넘어

국내업체, 뒤늦게 경쟁력 확보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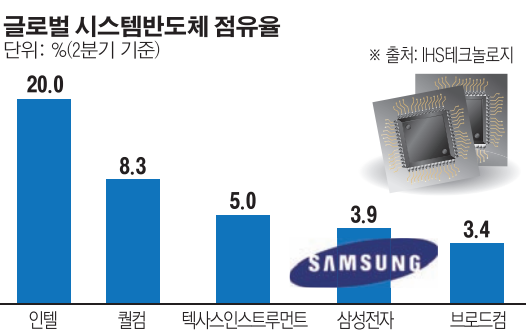
과제는 ‘시스템 반도체’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는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생산액 점유율은 16.2%로 일본(13.7%)을 제치고 사상 처음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은 52%로 압도적인 1위였지만 비메모리에 해당하는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6%에 못 미쳤다.

시장조사업체 IHS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올 2분기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3.9%(매출액 23억1400만 달러)로 4위에 그쳤다. 1분기 대비 매출액은 9.6% 감소했고, 시장점유율은 0.7%포인트 낮아졌다. 점유율 순위는 1분기와 마찬가지로 4위를 지켰으나 선두 업체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5위 브로드컴(3.4%)과의 격차는 줄었다. 시스템반도체 1위 인텔(20.2%)의 점유율과 비교할 때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메모리반도체는 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데 비해 시스템반도체는 정보처리 기능을 갖췄다. PC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자동차 등 셀 수 없이 많은 제품의 두뇌 기능을 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종류가 다양한 만큼 시장 규모도



메모리반도체보다 4배 이상 크다. 올 2분기 시스템반도체 시장 전체의 매출액은 593억6600만 달러로 7% 증가하는 등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의 수요 증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일례로 애플의 ‘아이폰5S’에는 AP칩, 통신용칩, DSP칩, CIS칩 등 시스템반도체가 18개 들어가는 반면, 메모리반도체는 3개에 불과하다.

늦게나마 삼성과 LG, SK하이닉스 등 국내업체는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7 옥타’를 공개하며 시스템반도체를 강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에서 대대적인 채용을 진행하며 전문인력 확보에 나섰다. LG전자는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업체인 실리콘웍스를 인수하며 시스템반도체의 기반을 닦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정제기에 접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메모리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벗어나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시스템반도체 사업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20나노·3D·모바일 D램 ‘초격차 기술경쟁’…해외업체에 월등

삼성·SK하이닉스 “따라올테면 따라와”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격차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세공정 도입 및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선점,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미세공정에서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 21일 세계 최초로 ‘20나노 8Gb DDR4 서버 D램’ 양산에 성공하면서 PC·모바일·서버용까지 20나노 D램 풀라인업을 구축했다. 지난 8월에는 ‘3차원 V낸드’ 이어 ‘3차원 D램’ 시대를 열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인, 셀을 수직으로 쌓은 3차원 V낸드를 지난해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경쟁사 간 기술 격차는 약 2년에 달한다. 최근에는 급성장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 대응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모바일 D램, 낸드플래시를 하나의 패키지에 묶은 ‘ePOP’ 웨어러블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

SK하이닉스도 25나노 D램 양산 비중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D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 업

2014년 2분기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단위: 달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매출액	14억8300만	9억8100만	7억3700만
점유율	45.4%	30.0%	22.6%

※ 출처: D램익스체인지

계 최초로 TSV 기술 기반 초고속 메모리 HBM과 128GB 서버용 모듈을 개발해 고객과 상품화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업계 최초로 차세대 ‘와이드 IO2 모바일 D램’을 개발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20나노급 4Gb DDR4를 기반으로 NVDIMM(비휘발성 메모리 모듈) 기준 최대 용량인 16GB 제품을 개발했다.

국내 업체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에서 미세공정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 인텔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세공정 개발이 한창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TSMC의 미세공정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 14나노 핀펫 공정 양산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gulyj@

**동충하초로 만든
면역 관련
식약처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
‘동충일기’**

● 동야제약 자체 개발 및 인체적용시험 완료
● 국내 최초 동충하초 면역 관련 개별인정형 허가 취득(동충하초 주정추출물 1.5g/일(식약처 제 2013-16호))
● 스트레스 등으로 약해질 수 있는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 100% 국내산 발아 현미 동충하초 원료 사용(친환경 재배)

● 고객센터실 080-920-2002

동야제약 건강기능식품

與 “해경 폐지·초동수사권 유지” 野 “외청에 존치시켜 기능 통합”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첫 회동
‘인사혁신처’ 신설도 의견 충돌

여야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첫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서지만 구조적·기능적 차원에서 모두 이견이 나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오전 오찬간담회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기능을 경찰에 넘기되, 초동수사권은 신설된 ‘국가안전처’에 남기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이들은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재난안전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지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 위에서의 초동수사 대응권은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둘 방침이다. 경찰청에 해상수사권을 모두 넘겨줄 경우 해상범죄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해경과 소방청 폐지를 반대하고 조직을 존치시켜 기능을 통합하는 안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정

치연합 백재현·유대은 의원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외청으로 해경과 소방청을 옮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재난관리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즉흥적·정법적으로 조직 자체를 공중분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해상경비와 전문 구조·구난 기능은 필히 그 독립성을 보장해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핵심 기능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일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운영석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공무원 사기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안전행정부의 외청이 경찰청인데 안행부장관의 말이 안 먹힌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 기능적 측면을 별도로 찾아야 하지 않나. 아직은 나온 안이 없으니 가까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야당은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윤리·복·연금 기능을 이관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야당은 대통령 직속 합의회 행정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글로벌 기업과 만남의 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의 장’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구글과 인텔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에너지·보건분야 韓美협력 기대”

朴대통령, 관심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에너지와 보건 분야는 미래 전망이 밝은 분야로 한국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한 중인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을 접견,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기업가정신, 에너

지 및 보건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장치,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 중”이라며 “보건 분야의 경우 한국에는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이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이 상호 협력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제3시장 진출 등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공무원연금 개혁 ‘의원입법’ 추진

정부 내달 11일까지 여론수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이하 국민포럼)을 개최기로 했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상황에서 국민포럼을 마치고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

이 부족지 않다. 입법예고(통상 40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밟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발의자로 나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9일 당·정·청 회동에서 “내가 공무원연금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실 제 법안 발의를 주도하면 정부입법보다 훨씬 빠르게 답론을 모을 수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공무원 사회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의중 기자 zerg@

최정환 부총리, 中 주도 국제금융기구 AIIB 가입 시사

인프라 건설 수혜? 자금출자 들러리?

가입시 ‘득과 실’은

정부 ‘유라시아’ 구상 도움
남북 가입 땀 北개발 주도

美 공식적 반대의사 표명
국제적 갈등 휘말릴 수도

한국이 중국 주도로 설립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할지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IB는 중국이 주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에 맞서는 성격이 있다. 미국 등은 한국의 참여에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서 우리 정부는 참여를 유보해 왔다. 고민을 거듭하던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이견이 좁혀진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최정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문제에 대해 “AIIB의 지배구조 문제와 세이프가드 등에 있어 국제금융기구로서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AIIB에 못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다. 실리적 측면에서 볼 때 AIIB는 우리 정부로서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 현재 가입의사를 밝힌 국가는 인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20여개국이다. 참여국가 대부분이 IIB 회원국 중 한국의 인프라



최정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2014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구조개혁과 수요진작을 통해 탈출해야 한다고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의 AIIB 가입에 따른 이익과 위험		
향후 아시아 인프라개발사업 주도 북한개발 참여, 통일비용 절감 협소한 국내 금융시장 한계 극복 달러입변도 가속통화 위험성 대비	이익	위험 - 미·중간 힘겨루기에 휘말릴 우려 - 들러리국가 전략 우려 - 중국에 과도한 권한 집중

건설 경쟁력이 압도적인 만큼 한국은 향후 이뤄지는 아시아 내의 인프라투자사업의 핵심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어 금융산업의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측면도 있다. 우리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도 맞아떨어진다. 아울러 남북한의 AIIB 가입이 실현되는 경우 우리가 향후 북한개발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일 비용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

반면 새로운 가능성만큼 위험부담도 크다. 우선 이 문제는 단순히 국제금융기구의 핵심 수혜자가 될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한국 AIIB 가입 문제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국제적 갈등 구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자칫 한국이 AIIB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다른 국제개발은행들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30%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AIIB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 과반수의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자칫 한국이 AIIB에 대규모의 자금을 출자하고도 중국의 ‘들러리’ 역할만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최 부총리의 발언으로 볼 때 우리 정부는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수용된다면 원칙적으로는 AIIB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이 막강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AIIB의 지배구조와 환경 문제, 적성국가 투자 문제 등에 관해 중국 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충현 기자 lamuziq@

53조 규모 내일 출범... 21개국 중 中·인도만 대국

중국이 주도하는 500억 달러(약 53조 원)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4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은행 창설에 참가하는 국가는 중국 외 20개국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인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국이어서 초라한 출발을 하게 됐다고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4일 아침 중국 포함 21개 회원국이 은행 설립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인도와 몽

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AIIB에 참여한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새 정권이 AIIB 참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IB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미국이 장악한 글로벌 금융 해

게모니에 도전하는 중국의 첫걸음이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축소됐다고 FT는 전했다.

당초 중국 정부가 AIIB 계획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한국과 호주, 인도네시아는 물론 일부 회원국들도 참가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이 외교관들을 동원해 설득에 나서면서 처음 관심을 보였던 이들 국가 모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AIIB 자본금 규모를 10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본금 1650억 달러의 3분의 2에 이른다.

AIIB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상인 ‘새 실크로드’의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베이징과 이라크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저축銀 가계대출 잔액 2년 만에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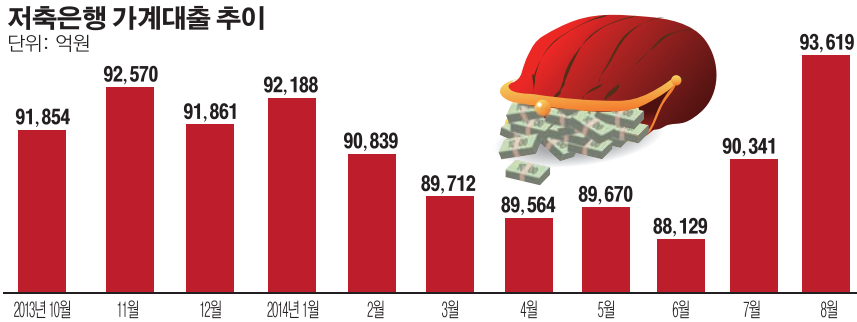
8월 한달 만에 3278억 늘어

대부업체 영업 시작도 한몫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주로 수십 %의 이자를 받는 신용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최근 저축은행 영업을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3619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6%(3278억원) 늘었다. 이는 예금취급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은행은 1.0%였고 신용협동조합(0.7%), 상호금융(0.4%), 새마을금고(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지난 7월 2.5% 증가한 이후 다른 예금취급기관을 따돌리며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8월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2년 8월(10조5289억원)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를 겪은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을 거처며 고금리의 가계 신용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또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업에 뛰어들면서 공격적 마케팅을 벌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는 공격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에이앤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라시엔캐시)는 예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해 7월 초순부터 OK저축은행과 OK2저축은행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앞서 대부업체 웰컴크레디타인에 인수된 예신저축은행은 지난 5월 초순부터 웰컴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꿔 영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 연 25~30%의 고금리가 적용된 대출의 비중은 각각 99.6%에 달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송전망 건설 갈등 막자”

중립감독기구 신설 추진

정부가 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계통 신뢰도 감독기구인 가칭 ‘전력계통 감독원’의 설립 계획을 세웠다.

현재 전력망 운영 계획을 짜고 새로운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는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다.

송전망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기술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녔는지 등을 중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견해로 판정해 줄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이 방안을 1년여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제화는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분식회계 못 밝히고 묵인... 실행까지

‘부실감사’ 회계법인 손해배상 몸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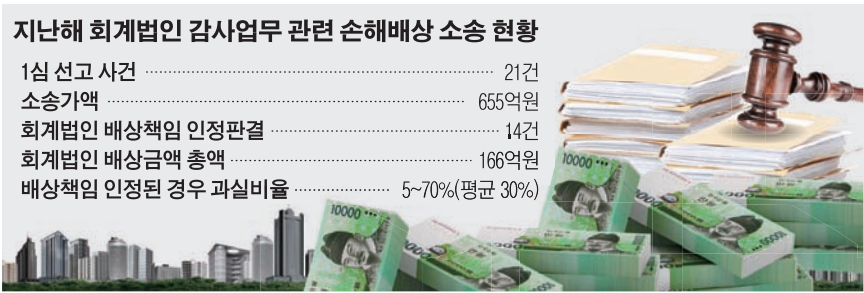
지난해 소송가액 655억... 배상금액은 166억 달해
감사업무 강화...“인원 늘리고 중간에 수시로 체크”

투자자들이 부실감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유명 회계법인은 지난해 수백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고, 부실감사에 관여했던 한 회계사는 형사고소를 당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이 최근 부실감사와 투자손해의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회계법인들은 리스크 전담팀을 강화하는 등 바짝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계법인, 투자자들 소송으로 ‘몸살’ =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은 21건으로, 총 655억원 규모였다. 법원 판결로 회계법인들이 피감회사 등과 연대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66억원이나 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포휴먼의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한 삼일회계법인이 이 회사 증시 퇴출 후 투자자 137명으로부터 당한 소송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서 임무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140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인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2명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최근 들어서는 상장폐지된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변호사들이 나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획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나타나



고 있다.

◇회계법인, ‘리스크 관리 강화’ 나서 = 이러한 추세로 인해 국내 유명 회계법인들은 감사업무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했던 삼일회계법인이 대표적이다. 한덕택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예전에는 감사보고서가 나가기 전에 사후적으로 감사절차를 검토했다면, 지금은 중간에 수시로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며 “감사업무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필요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여명 선이던 감사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인력을 30명 이상으로 확충했고, 기존에

없던 ‘심리위원회’도 신설했다. 3년 전에 새로 생긴 심리위원회는 전무급 인력 4명을 포함해 6명의 고참 파트너들이 소속돼 다른 업무를 맡지 않고 리스크 관리만을 전담한다.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감사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소송을 당한 적은 없지만, 최근 감사업무의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표준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 관련 부서의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jyg97@

벌써 나온 전기난로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며 쌀쌀한 가을날씨를 보이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전자상가 거리에 전기 난로 등이 진열돼 있다. 노진환 기자 mylifer@

현대중 결국 파업 가결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이들 노조가 20년 만에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노조는 최근 전체 조합원 1만790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자 1만313명(투표율 57.6%) 가운데 1만11명(전체 조합원 대비 55.9%·투표자 대비 97.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파업 찬반투표는 2001년 이후 13년 만이며 파업이 가결된 것도 20년 만이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중단했던 노사 교섭을 재개한다. 23일 실무협상, 24일 4차 본교섭에 들어간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급금 250%+추가 △호봉승급금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금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 등을 제시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가스관공사 임찰 담합

SK건설·두산중 임원 구속

2조원대 가스관공사와 관련해 대기업이 임찰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지방법청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임찰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해 관련 임직 5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SK건설 김모(54) 영업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영업상무는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SK,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국내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LNG 가스관 공사 29개 공구 수주액이 총 2조130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담합 임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발주한 29개 LNG 가스관공사 임찰에서 공사구간을 분할해 임찰하거나 임찰가격을 결정할 때 들러리를 서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각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2회에 걸쳐 모임을 갖고 공사 예정가격의 80~85%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임의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정상 임·낙찰가보다 약 3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곡물가격 내렸는데 라면·과자값 왜 올랐을까

담합 포착... 공정위 현장조사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업체들이 상품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면, 과자 제조·판매사들이 상품가격을 일정 수준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올해 1차 현장조사가 나섰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로 조사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은 라면, 과자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

한 원료 값이 싸졌는데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 대비 지난달 해외 곡물 가격은 옥수수 47.1%, 소맥 20.3%, 대두 19.4%, 원당 39.2% 하락했다. 실제로 수입값은 더 싸졌다. 같은 기간 환율이 달러당 1160원대에서 1020원대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공식품들이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2012년, 201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2%, 1.3%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각각 4.6%, 3.0% 올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재

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라면 등의 가공식품을 많이 구입한다”며 “정부는 저물가가 걱정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정작 서민은 저물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가 9년간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박상영 기자 sympark@

빌 게이츠 극찬한 매출1조 모뉴엘 법정관리 왜?

‘팩토리금융’ 무리하게 추진 대표와 창업자 불화도 원인

〈박홍석〉 〈원덕연 전 부사장〉

원 전부사장 인사 불만 퇴사
현금 아닌 매출채권 결제 부담
수출 부풀린 가공매출 의혹도



당시 원 부사장을 내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내부적으로 흠아들어갔던 모뉴엘은 박 대표의 한정적인 대금결제 방식 운영으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외부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모뉴엘은 지난해 1조586억원여치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현금을 수령했다. 팩토링 금융 방식이다. 지난해 연 매출이 1조140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매출의 전부를 현금거래 방식이 아닌 매출채권으로 결제하고 이를 금융권에게 수수료를 주고 현금으로 바꾼 셈이다. 2012년에는 연매출 8251억원의 91%에 이르는 매출채권을 팩토링 금융 방식으로 현금화했다.

팩토링 방식은 매출채권 등을 일정 수수료를 주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리에 대출을 받아 현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팩토링 방식은 제품 매입처가 해당 매입채무를 제때 결제하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판매업체에 바로 전이된다.

이번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도 매입처의 클레인으로 금융권으로 넘어간 매출채권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에도 문제가 전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뉴엘이 팩토링 방식으로 산정한 매출채권차분손실은 2012년 105억원, 2013년 132억원에 이른다. 한편, 모뉴엘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다. 모뉴엘이 기업, 산업, 농협은행 등 채권은행에 갚아야 할 차입금이 연체돼서다. 일각에서는 모뉴엘이 수출 규모를 부풀려 가공매출을 일으키다 무너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결국 박 대표가 지난 7월 조직개편

다. 팩토링 방식은 매출채권 등을 일정 수수료를 주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리에 대출을 받아 현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팩토링 방식은 제품 매입처가 해당 매입채무를 제때 결제하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판매업체에 바로 전이된다.

이번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도 매입처의 클레인으로 금융권으로 넘어간 매출채권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에도 문제가 전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뉴엘이 팩토링 방식으로 산정한 매출채권차분손실은 2012년 105억원, 2013년 132억원에 이른다. 한편, 모뉴엘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다. 모뉴엘이 기업, 산업, 농협은행 등 채권은행에 갚아야 할 차입금이 연체돼서다. 일각에서는 모뉴엘이 수출 규모를 부풀려 가공매출을 일으키다 무너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결국 박 대표가 지난 7월 조직개편

현유섭·김정주 기자 hyson0214@

가을철 고궁의 밤



시민들이 야간개장 첫날인 22일 서울 세종로 경복궁을 찾아 가을밤 고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다. 경복궁은 이날부터 11월 3일까지 '가을철 야간 특별개방'을 실시하며 관람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다.

신태현 기자 holijak@

롯데마트 신갈점 매장관리 직원 모집



롯데마트 신갈점에서 행복사원을 모집한다. 직무내용은 매장관리, 상품전열, 계산, 사무, 물류, 박스관리 등이다.

제출서류를 방문 혹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고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 제한은 없다. 인근 거주자를 채용시 우대한다. 근무예정지는 경기 용인시 신갈동에 위치한다. 주 5일 근무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모집요강	
모집직종	상품전열원
직무내용	상품전열, 매장관리, 계산 등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고졸이상
우대사항	인근거주자

시,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의 2교대이다. 휴무요일은 협의해 결정한다.

급여는 시급으로 지급되며,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중식 등이 제공된다. 유혜은 기자 euna@

‘빚더미’ 서울보증, 직원 복지 ‘평평’

공적자금 10조 투입... 상환액 7조 이상 남아

지난해 복리후생비 직원 1인당 337만5000원

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안해... 방만경영 심각

공적자금 10조2000억원이 투입돼 아직 7조7804억을 상환해야 하는 서울보증직원이 복리후생비를 평평 쓰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보증은 감사원으로 부터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차례 걸쳐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부위원회 소속)이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회계연도에 복리후생비로 42억46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는 직원 1인당(전체 직원 수 1258명) 337만5000원을 사용한 것이다. 강 의원은 “7조원이 넘는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부채를 감안할 때 복리후생

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인 복리후생 지원 내역을 보면 △등록금 수준에 관계없이 중·고등학교 등록금은 물론 대학교 등록금까지 전액 지원 △해외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연 500만원 한도로 학자금을 지원 △본인의 의료비 전액 지원은 물론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의료비도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배우자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보증은 연차 보상금에 대해서는 기존 일일수당에 8%를 더한 수준에서 현재 5.9%로 떨어 뜨렸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요건인 3.8%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서울보

증 측의 설명이다.

또 과도한 학자금 지원 지적과 관련 서울보증은 “이달 초 임단협을 실시했고 그 결과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보증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 측은 “직원들이 건강해야 회사를 잘 키워 나갈수 있다”며 “의료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보증은 2012년까지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으로 해 공적자금을 상환해 왔다. 올해 4월에는 2013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해 75% 배당을 결정했다.

강구귀 기자 kkk@

보험사, 국공채 위축에 골머리

내년 발행 물량 103조

올해 증가량의 절반수준

마땅한 자금 운용처 없어

내년 국공채 발행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전체 운용자산의 53%를 채권에 투자할 만큼 투자 비중이 높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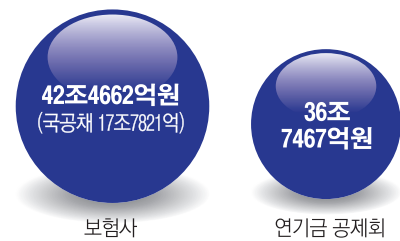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공채 발행 물량은 102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13년 10.9%, 2014년 10.3%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사는 채권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손이다. 자산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올해 1월 부터 10월 22일까지 채권시장에서 총 42조4662억원 어치 순매수 했다. 같은기간 연기금·공채회가 36조7467억원을 순매수 한것 보다 많다. 특히 보험사들이 순매수한 채권 가운데 국공채가 17조782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 회사채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보험사들이 인수할 만한 우량 크레딧물의 금리가 낮아질대로 낮아졌다. 때

보험사 채권 매수 현황



문에 보험사들은 수익률이 안정적인 장기 국공채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려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에 ‘적신회’가 커진 가운데 내년 국공채 발행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 더욱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채권담당 관계자는 “내년 국공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며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마땅한 자금 운용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지만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현재의 금리대가 저점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쪽 비중을 많이 가져가진 않을 생각으로 해외 쪽을 보고 있다”며 “해외투자파트 쪽과 논의를 해 수익률 부분에서 나온 쪽으로 투자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신협중앙회 전산센터를 견학하고 있는 태국 직장신협연합회 방문단.

태국직장신협연합회

한국서 IT금융배운다

신협중앙회는 찰럼폴 돌삼판 아시아인 협연합회장 겸 태국직장신협연합회장(이하 FSCT) 등 FSCT 임직원 9명이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신협중앙회와 서울사무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협을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단은 한국신협의 전산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연수단은 신협중앙회의 전산시스템과 전반적인 운영체계, 조합에 대한 서비스 등에 대해 총 10여시간에 걸쳐 교육을 받고, 조합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모형, 인력 운영과 개발 모형 등 실무 중심의 신협 전 산업무를 배우게 된다.

22일은 신협중앙회를 방문하고, 23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아 첨단 IT인프라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인 한국신협은 아시아신협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1987년부터 28년째 아시아신협국가를 대상으로 IT시스템과 한국신협의 발전 노하우 등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윤희 기자 ellee@

신한카드·서울대 연구원 “금융 빅데이터 발전 협력”



신한카드는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과 금융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서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왼쪽 세 번째), 차상근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카드

주택금융공, 전세대출 사기로 150억 날렸다

4년간 4만여건... ‘심사 소홀’

대위변제액도 3년간 3배 늘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시 90%를 보증해 주고 있지만 사기대출로 4년여간 15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 사기대출 협의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만6137건,

150억원에 달했다.

2010년 7589건(13억6천만원)이었던 사기대출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1만건을 넘어서며 해당 금액도 각각 54억원에 달했다. 올해 적발된 사기대출 협의 건수도 지난 7월까지 6895건에 이르는 등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공사가 은행에 대위 변제한 대출금액도 3년 동안 3배로 증가했다. 2011년 대위 변제액은 572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변제액이 1628억원에 달했다. 특히 우리는 2011-2013년 대위변제액은 1662억원

으로 전체 은행 대위변제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대출사기단에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90% 보증을 이유로 심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전 주택금융공사 사장대행은 “전세자금 대출 특성상 임대차 계약을 쓰기가 용이해 발생”한다며 “현장 실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6조3922억... 6만명 추심 시달려

대부분 1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채권 6조5000억원을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조사 결과, 캠코가 2012년 9월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1327만명에 대한 6조3922억원의 무담보 채권을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무자 대부분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이며, 이들 중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채무자 중 77.6%인 4만964명은 10년 이상의 채권추심에도 별다른 보유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로, 대부분이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금융 소외자였다.

이 의원은 “캠코로 부터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추심에 나서 해당 채무자들은 과도한 추심에 시달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며 “매각 당시 부여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의 조건은 대부업체가 이행하지 않아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업체들이 인수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신청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미정 기자 mjik@

‘14년 4/4분기 한·EFTA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공매 입찰공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4-59호 (2014. 5. 30))에 의거 2014년 한·EFTA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공매 추천품목에 대한 입찰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번호, 입찰품목 및 입찰수량

입찰품목	입찰번호	HS번호	입찰수량 (‘14 협정관세)	수입이행기간
기타치즈	AT0600-GRF-14(143)	0406-90-1000(체더치즈)	27.015톤 (6.5%)	‘14. 12. 31 * 수입신고수리기준
	AT0601-GRF-14(144)	0406-90-2000(가우더치즈)		
	AT0602-GRF-14(145)	0406-90-3000(카망베르치즈)		
	AT0603-EMF-14(146)	0406-90-4000(에멘탈치즈)		
	AT0604-GRF-14(147)	0406-90-9000(기타)		

※ 입찰은 각 입찰번호 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입찰품목 스위스산 기타치즈(0406.90.)는 (1)에멘탈(Emmentaler), (2) 스프린츠(Sprinz), (3) 그뤼에르(Gruyere) 또는 그뤼에르 달파쥐(Gruyere d'alpage), (4) 아펜젤러 전제(애플(Appenzeller full fat) 및 아펜젤러 1/4 지脂(Appenzeller 1/4 fat)에 한함

2. 입찰일정

가. 입찰설명회

- 입찰유 의서 및 유선상담으로 대체

나. 입찰등록 및 시험

- 등 록 : 2014. 10. 29(수) 11:00 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9층)

- 전자입찰 사이트(http://www.atbid.co.kr) 로그인 후 [나의입찰정보]에서 전자 입찰신청(파일업로드) 가능

* 2014년부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무가 서울경기지역본부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 신규 등록 및 변경 시에는 서울경기지역본부로 방문하시어 등록(변경) 후 본사로 수입권공매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바축팀 담당자 : 02-820-2319, 김종민 사원)

- 시 행 : 2014. 10. 30(목) 14:00~15:00 / www.atbid.co.kr

* 입찰은 지문인식을 통한 개인식별이 적용되므로 ‘지문인식 전자입찰 업체등록’ 절차를 숙지하시어 사전 지문등록 및 모의입찰(www.atbid.co.kr) 참여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 공개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59호(2014. 5. 30) 및 aT 물품구매일반입찰유 의서 제2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동일주소지, 동일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입찰에서 제외함

5. 입찰보증금 : 입찰 등록 전까지 응찰금액 5% 이상의 현금(또는 은행지급 보증서, 공매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6. 기 타

가. 원산지는 스위스에 한하며, 입찰은 각 입찰번호 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나. 입찰유 의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FTA공고에 게시된 입찰 유 의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 (차장 정일권 ☎ 061-931-0913, 사원 김지희 ☎ 061-931-09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aT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완료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더 큰 미래를 열겠습니다!





OUTDOOR CLASSIC

01 / Contra-Tex X2O PRO

최상의 방수기능과 최적의 투습성으로
악천후 환경에서의 우수성 발휘

02 / Contra Ridge P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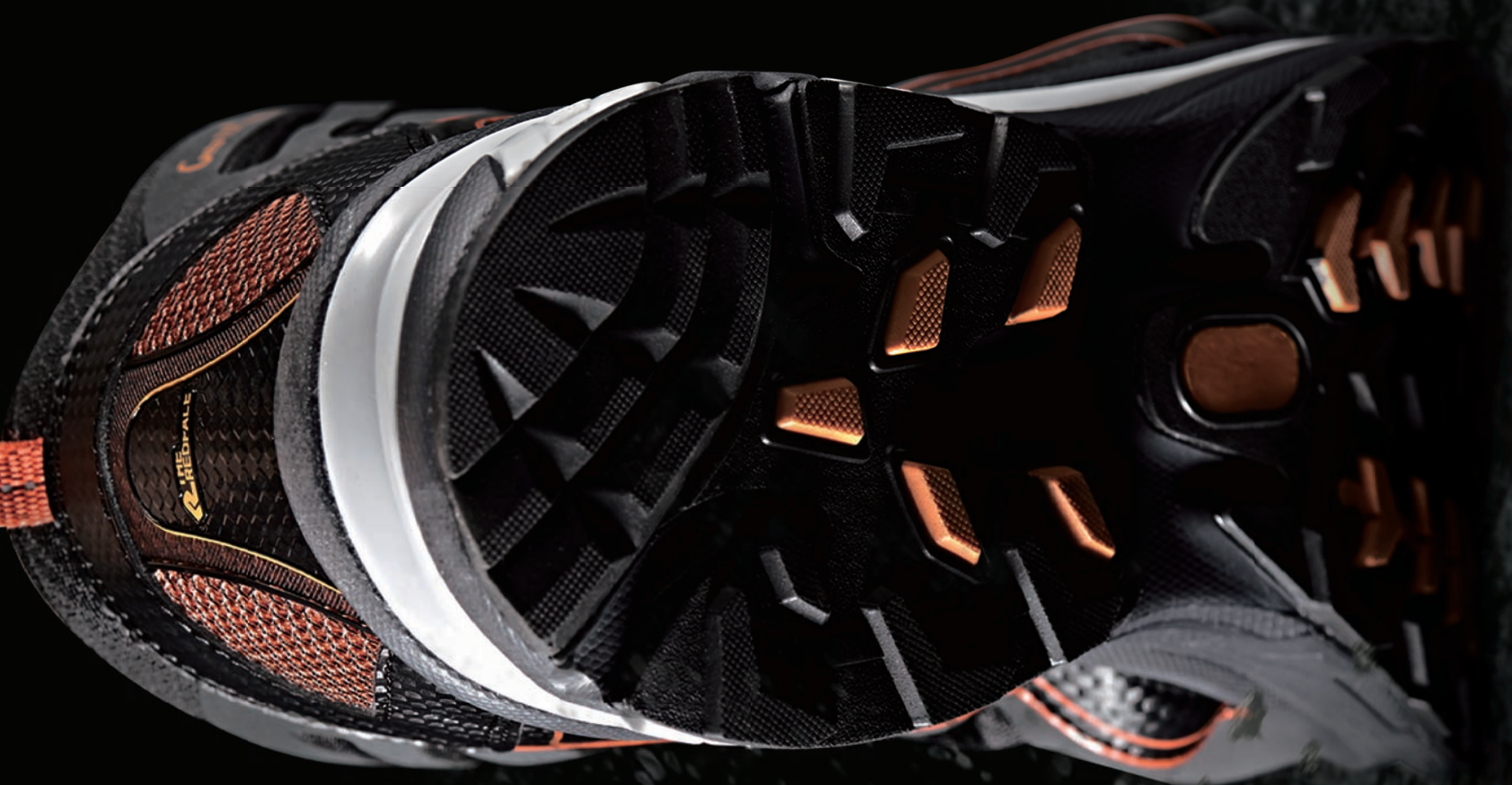
한국지형에 적합한 우수한 접지력과
내구성으로 산악환경에서의 안전성 보장

03 / ORTHOLITE

항균·항취 기능의 오쏘라이트 인soles 채택하여
최상의 쾌적성과 편안한 착용감 제공



콘트라 스톤 등산화 여: 브라운,퍼플(230~255mm) 남: 브라운,키키(255~290mm) -124,000원→ **69,000원**



현대차, GE와 ‘10년 합작’ 끝내나

다음달 이멜트 회장 방한… 정몽구 회장과 회동
GE 현대캐피탈·카드 지분, 현대차 인수 검토 중
추가투자 이끌어내 금융사업 비중 더 커질 수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제프리 이멜트 GE회장이 오는 11월 서울서 만난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미래형 자동차 개발 기념식’에 정 회장과 이멜트 GE 회장 등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정 회장과 이멜트 회장은 이날 행사 후 별도의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정 회장이 이멜트 회장과 만나는 것은 지난 2004년 10월 이후 4년 5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투자와 관련된 내용

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멜트 회장과 정 회장의 회동에서는 GE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지분 처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E는 2004년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지분 43%를 인수하며 10년간의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

GE는 최근 금융사업 부문을 정리하면서 현대캐피탈 지분 43%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가치가 1조원이 넘는 만큼 현대차그룹이 인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

현대차는 23일 공시에서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회장이 GE로부터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금융부분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자동차와 제철이라는 2개 축이 자동차와 제철, 금

융이라는 3개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와 GE가 함께 할부금융사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4년 GE와 함께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 할부금융사를 설립키로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멜트 회장과 정 회장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멜트 회장은 2002년과 2004년 한국을 방문해 정 회장을 만났다. 2009년에는 정 회장이 미국 뉴욕에서 이멜트 회장을 만나 경영 현안을 협의했다. GE는 금융사업 외에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터빈과 설계 기술을 제공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SK그룹 사장단 ‘위기극복’ 세미나

SK그룹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최태원 SK그룹 회장 부재로 겪고 있는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안을 논의한다.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 용인 SK 아카데미연수원에서 ‘2014년 정례 CEO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주관하고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한다. SK그룹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그룹 최고경영진이 모여 경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최고경영진 30여명은 앞서 지난 6월 말에도 1박 2일간 합숙하며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최 회장의 경영 공백 속에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그룹 핵심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대책, 2015년도 경영 목표 등 경영 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부재 1년 반 만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전 계열사들의 실적이 부진한 상태다. 그룹 주력사인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50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SK텔레콤은 시장 기대치에 못지란 영업이익을 내면서 성장정체 상태다.

SK하이닉스 역시 1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며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적 호조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적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加 특허괴물 ‘와이랜’ LG전자에 또 소송

LG전자가 캐나다 특허괴물인 와이랜에 또 피소당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와이랜은 2012년 10월 LG전자 TV 일부 모델이 비디오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와이랜이 LG전자 TV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와이랜은 2010년 성인체질 등 특정 콘텐츠 접근을 차단해주는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까지 모두 LG전자가 승소했다. 다만 LG전자는 이 소송을 계기로 와이랜과 다년간 특허사용권 계약을 맺었다.

와이랜의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계약을 맺지 않은 제품군에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LG전자는 와이랜이 문제삼은 TV 모델은 이미 특허사용권 계약을 맺은 무선 제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정몽준 장남’ 정기선씨, 현대重 기획·재무 맡는다

부장서 상무로 두단계 승진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준(63)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장남 정기선(31·사진) 현대중공업 부장서 경영 전면에 나섰다. 향후 현대중공업이 오너 경영체제로 전환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정 상무의 프로필 사진을 교체했다. 정 상무 이전 프로필 사진은 20대에 찍은 것으로 앳된 학생태가 난다. 그러나 이번에 교체한 프로필 사진은 20대 때보다 더 중후한 이미지다. 특히 상의는 현대중공업 로고가 박힌 자켓을 입고 있어 회사 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분위기를



내고 있다.

정 상무는 지난주 실시된 현대중공업 정기 임원인사에서 부장서 상무보를 거치지 않고 상무로 두단계 승진했다. 정 상무는 기획실 소속으로 기획과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원 축소와 기능 통합 등의 재정비 끝에 새로 꾸려진 현대중공업 기획실은 기획팀, 재무팀, 인사팀, 커뮤니케이션팀, 윤리

경영팀, 준법경영팀, 자산운영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 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획 및 조정 역할을 맡게 됐다.

정 상무는 현대중공업 경영 보폭은 갈수록 커질 것이란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장 회사를 전면에서 경영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는 대표이사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 전 의원도 과거 30세 때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 오른 바 있다. 정 상무는 현재 선주·발주처와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수주산업의 점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삼성 커브드 UHD TV, 영국서 ‘최고의 TV’ 선정



삼성 커브드 UHD TV와 풀HD TV가 영국에서 ‘최고의 TV’로 선정되며 유럽 TV 시장 1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삼성전자는 ‘커브드 UHD TV(모델명 UE55HU8500)’가 영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소비자 연맹체 ‘위치’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단독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위치가 UHD TV를 포함한 평가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개 제조사의 676개 모델 중 1위로 뽑힌 ‘HU8500’은 ‘베스트바이’ 제품으로 함께 선정됐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단지… ‘LG사이언스파크’ 첫삽

연간 고용창출 9만명

생산유발 효과 24조원

LG는 23일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연구단지 ‘LG사이언스파크’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융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구분부 LG 회장을 비롯한

LG 경영진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여㎡(약 5만3000평) 부지에, 연면적 111만여㎡(약 33만7000평) 규모로 연구시설 18개 동이 들어선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LG윙플러스, LG CNS 등 10개 계열사의 선행연구 조직이 입주할 예정이다.

2017년 1단계 공사 준공 이후 계열사 입주가 시작되며, 2020년 연구단지가 완공되

면 전자·화학·통신과 에너지·바이오분야의 연구인력 2만5000여명이 일하게 된다. LG 측은 연간 고용창출 약 9만명, 생산유발 약 24조원의 경제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서 구분부 회장은 “LG사이언스파크는 전자, 화학, 통신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등 다방면의 두뇌들이 모여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최대 융복합 연구단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아이폰6 특수에…

LG디스플레이 ‘방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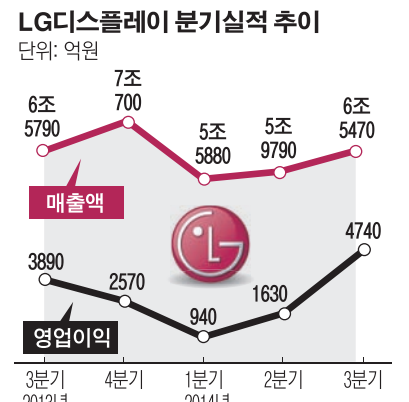
3분기 영업이익 4741억… 7분기 만에 최대치

LG디스플레이가 2012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조5469억원, 4741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분기(1631억원) 대비 191% 급증했고, 전년 동기(3892억원)와 비교해서도 22% 증가하며 10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9%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541억원을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실적 증가 요인으로 3분기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등 중소형 디스플레이 몰량 확대와 대면적 트렌드에 따른 대형 TV 패널 출하 비중 확대를 꼽았다. 여기에 계절적 수요 증가 및 대형패널 중심의 견조한 판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전체 매출에서는 올 3분기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가 전체의 19%를 차지했으며 태블릿PC용은 12%를 기록했다. 이들 제품의 패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9% 증가했다. 비교적 가격이 높은 중소형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실적호조를 보



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애플이 최근 기존보다 더 큰 화면을 장착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로 인기를 끌면서 애플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LG디스플레이의 3분기 판매량(면적 기준)은 디스플레이 대형화 트렌드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3% 증가한 965만㎡를 기록했고, 1㎡당 평균 판가는 단위 면적당 판가가 높은 모바일·태블릿용 디스플레이 출하 확대로 7% 상승한 658달러로 나타났다.

권태성 기자 tskwon@

갤럭시S5 부진에…

삼성디스플레이 ‘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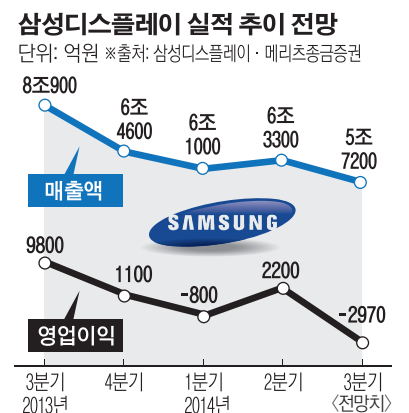
3분기 1000억~2000억 영업적자 예상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진에 올 3분기 실적 불안감에 휩싸였다. 전체 매출의 3분의 2정도를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S5’를 중심으로 한 삼성 스마트폰 사업이 최근 부진을 보이자 실적이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올 3분기 1000억~2000억원 수준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분기 22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실적 악화의 주요인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중소형 OLED 패널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삼성 스마트폰의 판매 감소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실적 하락으로 직결된다.

이 가운데 내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에 LG디스플레이의 OLED가 단독으로 공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반기 수익 전망도 밝지 않다. 여기



에 TV에 적용되는 대형 OLED와 LCD 패널의 공급 부진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어규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갤럭시 스마트폰 부진으로) 지난 2분기 AMOLED 패널 출하량이 급감했고 현재까지 가동률이 (전년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4분기까지 저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gutiy@

SKT “가입비 면제” KT “2년 약정 폐지”

이통업계 ‘요금 개편’ 바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업계가 가입비 면제, 2년 약정 폐지 등 요금구조 개편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23일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996년 도입된 가입비는 가입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SK텔레콤은 1만1880원(VAT포함)의 가입비를 11월부터 전면 폐지, 약 920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갤럭시 노트4 지원금을 기존 11만1000원에서 2배에 가까운 최대 22만원으로 상향했다. 인기 모델인 갤럭시S5광대역 LTE-A, G3 Cat.6 등 5종의 최신 단말 최대 지원금도 약 5만~8만원 가량 올랐다. 갤럭시S4 LTE-A 16G, LG G3A, G3 beat 등 3개 기종의 출고가

도 약 5만5000~7만원 인하했다.

SK텔레콤은 또 신규가입·기기변경 이후 180일간 동일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변경에 따른 할인만큼을 면제해주는 ‘프리미엄패스서비스’도 선보였다.

KT는 고객의 부담 요인이었던 2년 약정 굴레를 없애기로 했다. 12월부터 요금할인에 대한 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한 ‘순액요금제서비스’를 실시한다. 순액요금제는 일정기간 사용 약정을 할 경우 매달 요금 할인을 받던 금액을 기본료에서 빼주는 것으로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KT는 또 다음달부터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요금제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도 선보인다. 이 요금제는 데이터 기본 데이터 2GB를 모두 소진할 경우 무료로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아침밥 전쟁...“1조 시장 잡아라”

맥도날드 ‘맥모닝’ 아성에 버거킹 ‘킹모닝’·롯데리아 ‘착한 아침’ 도전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도 가세
아침메뉴 개발 차별화 경쟁 ‘후끈’

1조원대 아침식사 시장을 두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맥도날드 ‘맥모닝’이 아침식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기존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물론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편의점까지 아침을 겨냥한 신메뉴를 출시하며 시장 경쟁에 가세했다. 1인 가구는 물론 새벽 출근 직장인이 급증하면서 아침식사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TNS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아침식사 시장은 최근 5년간 11% 성장했다. 2009년 70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현재 1조원에 달한다.

최근 롯데리아는 머핀 4종과 라이스 2종 및 디저트 1종으로 구성된 아침메뉴 ‘착한아침’을 출시하고, 아침밥 전쟁에 뛰어들었다. 앞서 버거킹코리아는 지난 7월 기존의 크로아상 제품 대신 머핀 제품으로 아침메뉴를 리뉴얼하면서 ‘킹모닝’을 출시해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다.

착한아침과 킹모닝은 한국맥도날드의 아침메뉴 ‘맥모닝’의 아성을 넘는 것이 목표다. 맥도날드가 지난 2006년 업계 최초 선보인 맥모닝은 당시에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아침메뉴다. 맥도날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치킨을 즐겨 먹는 한국 소비자를 겨냥해 ‘치킨 치즈 머핀’, ‘베이컨 토마토 머핀’을 출시하는 등 아침메뉴를 강화하고 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호주,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는 아침메뉴가 전체 매출의 25%에 이른다”며 “아직 국내에서는 맥모닝 매출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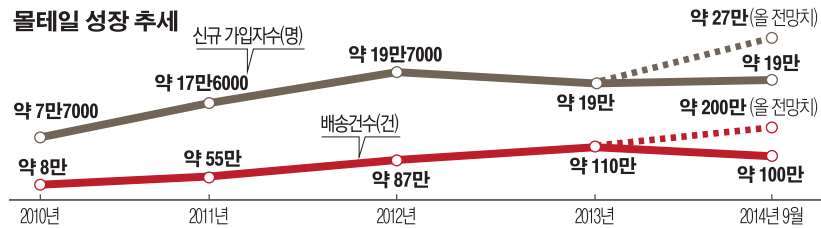
베이커리전문점들의 시장 가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0월 ‘모닝콤보’ 메뉴를 선보이면서 아침식사 시장에 뛰어든 던킨도너츠는 이 시간대 매출이 3~4% 수준에서 11%까지 늘었다. 지난 8월 파리바게뜨는 ‘햇&그릴 샌드

위치’ 10종을 내놓으면서 아침 식사 시장에 뛰어들었다. 파리바게뜨 측은 “관련 시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아침메뉴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뚜레쥬르도 지난 15일 토스트나 핫샌드위치에 커피를 추가한 ‘모닝세트’ 7종을 출시하며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베이커리전문점들은 곡물빵, 쌀빵, 올리브빵 등 다양한 빵과 재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한끼를 콘셉트로 내세우며 패스트푸드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예전엔 간편식으로 아침을 간단히 해결했다면 점점 건강하고 맛도 뛰어난 아침식사를 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 메뉴의 차별화를 꾀했다”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해외직구 시대’ 배송대행 각축전

외국업체 ‘몰테일’ 을 매출 400억 전방...국내업체도 서비스 강화

해외 직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국내의 ‘배대지(배송대행지)’ 서비스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23일 해외 배대지 업체 ‘몰테일’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회원수는 86만 명으로, 올해 약 9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몰테일 관계자는 “2010년 매출 20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260억원에 이른다”며 “최근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올해 매출 4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대지 서비스 후발주자인 국내 물류업체도 해외 직구족을 공략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진 배대지 업체 이하넥스는 ‘The 빠른 서비스’를 통해 배송 기간의 단축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한진은 지난 9월 미국 오리건주 북서부에 위치한 포틀랜드에 7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개설하면서 이하넥스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게 됐다.

한진 관계자는 “2010년 말 개설한 이하넥스는 평균 15~20% 수준으로 물량이 늘었으나 올해 배송물량은 전년 대비 28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외 직구족의 급격한 증가, 포틀랜드 물류센터 개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배대지 ‘아이딜리버’를 개설, 해외 직구족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에 가입자 500명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아이딜리버는 현재 1만명 이상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의 해외직구 물량을 소화하며, 미국 델라웨어에 물류센터를 세우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밖에 C대한통운은 직접 서비스에 나서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 몰테일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직구 물품에 대한 국내 배송업무를 대리하는 등 업체 간 협력을 통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김혜진·임현상 기자 sinembargo@

바쁜 아침, 라면처럼 간편하게 끓여먹는 국밥...

대상 청정원 ‘밥이라서 좋다’ 인기

‘상하이식 짬뽕밥’·‘사골미역 국밥’ 내놔

대상 청정원이 최근 출시한 아침메뉴 ‘밥이라서 좋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신제품 ‘밥이라서 좋다’는 튀기지 않은 국산 쌀을 사용해 라면처럼 간편하게 끓여먹는 국밥 제품. 일관한 ‘상하이식 짬뽕밥(사진)’과 구수한 ‘사골미역국밥’ 2종이 있다. ‘밥이라서 좋다’는 라면과 즉석밥의 장점을 하나로 모은 제품이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깊고 진한 국물에, 밀가루 면 대신 든든하고 소화가 잘 되는 쌀밥이 들어있다. 보다 건강하고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일반적 라면과 다르게 쌀을 기름에 튀기지 않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냉장, 냉동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야외활동 시 더욱 편리하다.

간편식이지만 맛과 식감을 있어서는 집에서 정성스레 만든 국밥에 뒤지지 않는다. 먼저 잘 지은 고슬고슬한 밥맛을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 ‘NCT(Newly Cooked Tasty)’ 공법이 적용됐다. 밥을 지은 후 바람으로 빠르게 건조시킨 후 고온에서 로스팅하는 가공법으로, 100% 국내산 쌀을 엄선해 만들었다. 여기에 제대로 진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분말소프 대신 액상



소스가 쓰였다.

‘상하이식 짬뽕밥’은 다양한 해물과 청양고추로 맛을 내 한국인이 좋아하는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특징이다. 특히 짭은 화식으로 지친 남성들의 해장용 아침식사로서 인기가 많다. ‘사골미역국밥’은 골라겐과 무기질이 풍부한 사골국물을 기본 육수로, 영양이 풍부한 미역을 더했다. 담백하고 순한 국물이 특징으로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부담이 없다. 청정원 국밥밥 담당 오민우 과장은 “라면 국물에 즉석밥을 넣어 먹는 것에 착안, 시원한 국물과 든든한 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바쁜 아침시간이나 야외활동 시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신 개념 간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에 기자 isa@

레드페이스 등산화로 안전한 산행을

‘콘트라 닉스 릿지 미드’ 등 3종 출시

전국 각지의 산은 단풍이 무르익으며 등산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오랜만의 나들이에 즐거운 기분을 만끽하려면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는 신상품 출시와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화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등산화를 선택할 때에는 등산 목적과 이에 따른 등산화의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보통 장거리 산행, 겨울 등산 등에는 하이킹 등산화가 편리하며 압박등산, 산악탈라기 등에는 로우컷이 활동하기에 좋다. 미드컷의 경우, 중거리 산행이나 일상용으로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등산화 구매 시에는 평소 신는 신발 사이즈보다 5~10mm 정도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랜 등산으로 발이 부어도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접지력이 우수한 아웃솔을 가진 등산화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시즌 레드페이스의 ‘콘트라 닉스 릿지 미드’ 등산화는 단거리·중거리 산행, 릿지 등산과 트레킹에 적합한 남녀 공용 세미 미드컷 등산화다. 소가죽을 사용, 착용감이 부드러우며 브라운, 머스타드, 퍼플 색상으로 출시됐다. 가격은 19만8000원이다.



위에서부터 ‘콘트라 닉스 릿지 미드 등산화’, ‘콘트라 엑스 라이트 미드 등산화’, ‘콘트라 아론 등산화’.

산행은 물론 일상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등산화를 찾고 있다면 레드페이스의 ‘콘트라 엑스 라이트 미드 등산화’가 제격이다. 무봉제 기법으로 무게를 380g대까지 줄인 것이 특징이다. 블랙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15만8000원이다.

레드페이스의 ‘콘트라 아론 등산화’는 암벽을 거닐 때 미세한 요철 사이로 공기를 빼고 들어가는 등 마찰력을 높여 미끄러움 방지 기능을 높였다. 와인, 차콜, 퍼플의 3가지 색상으로 16만5000원에 판매된다.

이용준 레드페이스 상품개발팀 차장은 “등산화는 산을 오르내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이자, 험한 지형에서 안전한 산행을 도와주는 중요한 장비”라며 “사람마다 좋아하는 산과 등산 방식이 다르듯 등산화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형태와 소재를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나에게 딱 맞는 수트처럼 영양제도 스마트한 비맥스로

Green Cross-Care Stay healthy and happy with GREEN CROSS CARE

녹십자

업무피로, 비맥스로 스마트하게

SMART 비타민제

비맥스정

업무피로를 이기는 스마트한 방법, B-maxTab.

피로 해소를 위한	건강을 위한
비타민 B	UDCA와 메티오닌
남성 건강에 좋은 미네랄	활성형 비타민
마그네슘과 아연	벤포티아민

SMART 비타민제 B-max는 결핍될 수 있는 비타민B와 C의 섭취량을 보충해 주고, 건강을 위한 UDCA와 메티오닌을 함유하고 있어 당신의 삶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광고심의필 : 1152-0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노래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롯데, 시니어 강좌 20% 늘려
‘노래교실’ ‘여행’ 가장 인기
디큐브, 은퇴프로그램 신설
‘인생 2모작 블로그 소통’ 주목

은퇴 이후 여가 시간이 많아진 요즘 시니어들은 지성과 감성쌓기에 여념이 없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교육 강좌를 듣고 문화 생활을 즐기면서 ‘엘리트 시니어’로 거듭나고 있는 것. 엘리트 시니어들이 향하는 곳은 단연 백화점 문화센터다. 백화점 문화센터들은 시니어층만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떠오른 엘리트 시니어를 공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강좌 및 프로그램을 전년보다 20% 늘렸다. 작년 15% 정도 차지했던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시니어 대상 강좌는 올해 정기 강좌 400개 중 25%, 200개의 단기 특강 중 40% 수준으로 비중이 커졌다.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노래교실’이다. 강좌당 참여 시니어 고객이 100명이 넘으며, 여러 강좌 중 가장 먼저 마감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도 많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매주 화요일 ‘장준 파워 노래교실’과 매주 수요일 ‘문인숙의 명품 노래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잠실점에서는 목요일마다 ‘정숙의 힐링 노래교실’, 부산본점에서는 매주 화요일 ‘한병장 노래교실’ 등의 노래 강좌가 시니어들을 맞고 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진 강좌는 ‘나 자신을 위한 여행’ 강좌다. 여가 시간이 많은 시니어들은 여행 등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정여울’ 작가의 ‘내가 사랑한 유럽 TOP’ 책자를 바탕으로 하는 특강을 본

문화센터, 우리가 접수한다



점, 잠실점, 부산본점 등 약 10개점에서 진행했다. 24일에는 건대점, 전주점에서 해당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마케팅2팀 김중환 팀장은 “시니어들이 문화센터 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매년 문화센터 고객 중 시니어들의 비율이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며 “40~50대인 젊은 시니어들까지 포함하면 한 강좌에 시니어층이 50%를 차지할 만큼 많다”고 말했다.

신도립 디큐브백화점 문화센터 역시 50대 이상 시니어 회원이 늘고 있다. 디큐브백화점 문화센터 담당 구남준 실장은 “시니어 고객을 중심으로 호응이 높은 일부 취미 강좌의 경우, 올 들어 매 학기마다 조기 마감될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며 “같은 강좌를 학기마다 꾸준히 재수강하는 시니어 회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국무용 강좌의 경우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 회원들이다. ‘건강을 위한 우리춤 제2’, ‘7080 올드팝, 추억과 낭만의 팝송교실’ 등 인생에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올 봄과 여름, 가을 강좌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디큐브백화점은 다가오는 겨울학기 문화센터에 취미 강좌는 물론,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신설했다. 문화식물을 이용한 실내정원 가꾸기(4회, 4만원), 한문서예 5체(3개월, 9만원) 등의 취미 강좌도 주목받고 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한 일일강좌도 이색적이다. 11월 29일에는 ‘인생 2모작 시대, 블로그로 소통하는 법’을 주제로 소셜마케팅 전문가들이 일일강좌를 진행한다.

AK플라자 문화아카데미도 50~60대 장년층 고객 대상의 강좌에 젊은 트렌드를 입히고 있다. 난타, 드럼, 요가 등 활동적인 강좌를 대폭 늘렸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니어들이 증가함에 따라 SK텔레콤과 함께 ‘스마트폰 100배 즐기기’ 강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선애 기자 isa@

젊은 피부? 팩 붙이고 비비크림으로 마무리

50~60대 지난달 뷰티제품 구매 35% 늘어... 색조보다 스킨케어 인기

액티브 시니어들은 자신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과 외모 가꾸기에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5060세대는 과거 같은 나이에 비해 사회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꽃보다 할배’와 같은 방송,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중장년층의 활약이 주목받으면서 외모 가꾸기에 대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기 수월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액티브 시니어가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많이 찾는 뷰티 제품은 무엇일까. 옥션은 최근 한 달간 50~60세 고객들의 뷰티 제품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옥션 패션팀 이영혜 CM은 “이들이 선호하는 뷰티 제품의 특성은 고기능성, 쉽고 편리한 사용법, 피부문제를 개선해 동안피부로 되돌려주는 제품(H.E.R.)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50~60대가 많이 구입한 제품을 살펴보면 색조화장보다 피부관리를 위한 스킨케어 제품과 피부 표현을 위한 파운데이션, 비비크림의 판매량이 높았다. 판매 순위는 △1위 마스크시트팩 △2위 폼클렌징 △3위 남성기초세트 △4위 클렌징 비누 △5위 기초 제품(모든 피부용) △6위 선크림 △7위 립밤·립케어 △8위 파운데이션 △9위 립스틱 △10위 비비크림이었다.



수려한 ‘정유 2종’



설화수 ‘여민 마스크’

마스크시트팩 중 판매량이 높은 제품은 ‘셀더마 멀티퍼펙션 100 하이드로겔 마스크(2900원)’가 차지했다. 이 제품은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성분이 함유돼 120시간 동안 피부에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자연에서 가져온 100가지 식물성 성분도 함유해 피부장벽을 강화하고 민감한 피부에도

순하게 작용한다. 특히 안색 개선, 일시적 피부 온도 감소, 피부탄력 개선 등 피부 고민 해소는 물론, 사용이 간편해 인기가 뜨겁다는 게 옥션 측의 설명이다.

‘설화수 여민 마스크(6만1000원)’는 2주간의 발효 과정을 거친 쥬레 열매 열실, 옥죽, 홍삼 사포닌 등의 성분이 풍부한 피부로 가꿔준다. 특히 고밀착 발포 마스크가 영양 성분을 얼굴에 고르게 전달해 탄력과 보습력을 부여한다.

꽃중년을 꿈꾸는 남성들도 외모관리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남성 기초세트는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최근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은 수려한 ‘남성 정유 2종(2만7800원)’이다.

이혜영 CM은 시니어들을 위한 피부관리법으로 충분한 수분관리와 자외선 차단,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분 부족은 피부장벽을 손상시키고 과도한 피지 분비를 유발해 결국 피부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또, 자외선은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인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를 형성해 기미, 검버섯, 잡티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을철은 등산, 자전거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평소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선애 기자 isa@

“식이섬유 많은 키위 드시고 대장암 예방하세요”

제스프리 ‘골드리본 캠페인’

65개 병원서 키위 무료제공

소화와 장 건강에 좋은 식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프리미엄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가 후원한 대한대장항문학회 ‘골드리본 캠페인’이 화제다.

제스프리가 9월 ‘대장암의 달’을 맞아 전국 65개 병원에서 진행한 ‘골드리본 캠페인’은 대장암을 예방하고 국민 대장 건강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다. 제스프리는 이러한 건강강화를 통해 대장암을 비롯한 대장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한 장을 위한 식습관을 소개하는데 동참했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좋은 과일인 키위와 장 건강에 대



한 알찬 정보가 담긴 소책자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제스프리 측에 따르면 특히 40대에서 60대까지 여성 시니어들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제스프리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으로부터 신선 과일류로는 최초로 ‘장 건강 과일’로 공식 인증받은 바 있다. 그린키위에 풍부하게 포함된 식이섬유

는 위장에서 음식이 너무 빨리 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소장에서는 영양소 흡수를 도와준다.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 팽창함으로써 배변을 용이하게 돕는다. 키위에만 들어 있는 천연 효소인 ‘액티니딘(actinidin)’은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 전반에 도움을 준다.

제스프리는 시니어층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장암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제스프리 한국지사 오진우 상무는 “대장항문학회 대장질환 건강강좌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키위가 갖고 있는 장 건강상의 이점을 알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장 건강에 좋은 키위의 영양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 대장 건강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 매출 15% 신약 R&D투자 • 글로벌 개량신약 국내 최초 개발 • 신약 후보 12건 글로벌 임상 시험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Global · R&D 선도
Hanmi 한미약품



찬바람 불면 적신호 예방법 알면 청신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아 침저녁 심한 일교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복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 다. 이에 제약사들은 환절기 건강 예방을 위해 감기약을 비롯, 면역력 증진 을 위한 건강기능 식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또 갱년기를 맞고 있는 중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치료제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제약 / 동충일기

癌세포 잡는 NK·면역세포 활성화·증식

동아제약은 최근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자사 가 개발·생산한 건강기능 식품인 '동충일기(冬蟲日記)'가 시장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이라는 의미의 동충하초는 예부터 중국에서 아주 귀한 약재로 알려졌을 신비의 버섯이다. 동충하초는 전 세계 적으로도 그 효능이 주목을 받아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면역력에 대한 뛰어난 효과가 TV를 통해 방영되면서 신드롬 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충하초는 까다로운 생육 조건으로 인공 재배에 어려움이 많아 수확량이 극히 적고 가 격이 비싸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곤충에서 키우는 동충하초 대신 현미에서 키워낸 '현미 동충하초'가 개발되면서 주목을 모았다. 현미 동충하초는 현미를 가공 해 배지를 만든 후 동충하초균을 접종해 만든 것으로, 동충하초의 성장 도중 생성되는 천연항 생 물질이면서 면역증강 물질인 코디세핀의 함 량이 높아 면역증강 기능이 뛰어나다. 동아제약은 현미 동충하초의 면역증진 효능 을 밝혀내기 위해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4주간 인체적용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NK세포(Natural Killer Cell)' 등 각종 인체 면



역세포의 활성이 11% 증가하고, 면역세포의 증 식도 27%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자연살해 세포라고 알려진 NK세포는 선천면역을 담당 하는 중요한 세포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현미 동충 하초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건강기능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 이를 건강기능식품으 로 제품화한 것이 바로 동아제약의 동충일기다. 동충일기는 기존 동충하초 제품들이 액기스, 생초 또는 건조, 분말 형태인 것과 달리, 알약형 태로 출시돼 먹거나 휴대하기 간편하고 남녀노 소 연령 구분없이 누구나 복용할 수 있다. 강인호 기자 kangih@

종근당 / 시미도나

홍조·우울증 등 갱년기 증상 개선 도움

종근당이 월경전증후군 치료제 '프리페민'에 이어 생약성분의 갱년기 증상 치료제 '시미도나'로 여성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3일 종근당에 따르면 시미도나는 스위스 생 약전문회사 '젤러(Zeller)'에서 생산한 일반의약품으로 여성의 갱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홍조·발한·수면장애·신경과민·우울증 등 갱년기 증 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제품의 주성분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 는 식물인 '서양승마' 추출물로 서양승마의 뿌 리제제는 유럽에서 50년 넘게 갱년기 증상 치료 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성분이다. 시미도나는 유럽 임상을 통해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유럽의약품허가당국 (EMA)'과 '천연물의약품위원회(HMPC)'로부터 인정받았다. 스위스에서는 갱년기와 폐경기 증상 치료제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폐경은 노화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지만, 일부 여성들에게는 폐경 이행기와 폐경 후에 동반되는 증상들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 폐경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맥경화증·심근경색증·골 다공증과 같은 만성 질환들은 중년 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강인호 기자 kangih@



종근당 관계자는 “갱년기에 수반되는 여러 증상들이 중년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저해하고 가족들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며 “하루 한알로 복용이 간편한 시미도나를 통해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 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근당은 국내 제약시장이 원외처방 정 체와 수익성 부진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신제 품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다국적 제약사들과 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신규 매출을 지속적 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해외사와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강화, 완제의약품의 적극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매출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LG생명과학 / 리튬

하루 한번이면... 혈행개선·활력충전 OK

LG생명과학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리튬 (re:tune)'을 출시, 환절기에도 활력을 보충하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리튬은 △오메가 트리플 액티브 △멀티비타민·미네랄 △트리플 뷰티 등 3가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리튬 오메가 트리플 액티브'는 혈행 개선과 활력 충전을 동시에 돕는 제품이다. 하루 1캡슐로 오메가3와 비타민 7종, 미네랄 4종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다. 이 제품에 함유된 오메가3는 국제 오메가3 원료 인증기관(IFOS)에서 최고 등급(5-Star)을 받은 정정 해안 노르웨이 EPAX의 정제 어유를 사용했다. 특히 중금속 축적 위험이 낮은 먹이 사슬 하위의 단일 어종만을 사용해 고순도, 고 함량의 깨끗한 원료를 사용한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혈행 개선과 혈중 중성지방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EPA와 DHA가 507mg 함유돼 있다. LG생명과학은 99% 유기농 천연원료를 사용한 멀티비타민 '리튬 멀티비타민·미네랄'도 출시했다. 이 제품은 99% 유기농 채소, 과일에서 추출한 영양소만을 담은 유기농 원료 비타민이다. 또 유기농 구아바, 유기농 홀리바질, 유기농 레



몬에서 추출한 비타민B군과 유기농 인디안구 스베리에서 추출한 비타민C, 유기농 겨자씨에서 추출한 셀레늄 등 비타민 7종과 미네랄 1종을 1일 섭취 기준 대비 100% 이상 고함량으로 담았다. 모든 원료는 미국 농무성(USDA) 산하 유기농 인증기관인 오리건틸스(Oregon Tilth)의 인증을 받았다. 건강한 배변활동을 돕고 피부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리튬 트리플 뷰티' 역시 LG생명과학이 자신있게 권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건강한 배변을 통해 피부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3종 기능성 제품이다. 트리플 뷰티에는 장 속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락투로스(Lactulose)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박성태 기자 psj@

JW중외제약 / 화콜

해열진통부터 코감기·목감기까지 한번에

JW중외제약은 최근 종합감기약 대표 브랜드인 '화콜'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콜은 지난 1990년 출시돼 20여년간 감기약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JW중외제약의 대표 일반의약품이다. 아침·저녁 일교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복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감기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에는 유독 기침이나 가래 등으로 고생하는 감기환자들이 많다. 누구나 1년에 한두 번쯤 앓게 되는 흔한 질환 중 하나인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코점막·목·인후) 감염 증상으로 신체의 면역 기능이 저하돼 있을 때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면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증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JW중외제약이 최근 리뉴얼 출시한 신제품 '화콜 멀티 연질캡슐'은 기존 화콜 골드를 업그레이드한 종합감기약으로 해열진통은 물론 코 감기·목감기 증상까지 종합적으로 개선시킨 제품이다. 특히 주간용과 야간용으로 구분, 낮에는 졸음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했고, 밤에는 편안한 숙면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Neosol' 특허 공법을 사용해 액상형 연질캡슐의 흡수 속도와 용출률을 높였



고, 주요 성분이 빠르게 인체에 흡수돼 감기 증상을 해결해 준다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종합감기약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화콜 멀티 연질캡슐은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종합감기약”이라며 “전국 주요 약국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장입 초기부터 치료제 중심으로 성장하며 병원시장을 선도해왔다. 강력한 오리지널 파이프라인·세계 5대 수액제 브랜드·차세대 항생제 '이미페넴' 퍼스트제네릭 세계 최초 개발 등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 의약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 강인호 기자 kangih@

한미약품 / 맥시부펜시럽

어린이 전용 해열제도 임상으로 안전하게

최근 환절기를 맞아 갑작스럽게 고열을 앓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 특히 4세 미만의 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해 해열제도 아무거나 먹일 수 없어 부모들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다. 한미약품은 4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전성을 확보한 전용 해열제 '맥시부펜시럽'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맥시부펜시럽은 열을 낮추는 성분인 이부프로펜(Ibuprofen) 가운데 실제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만을 따로 추출해 개발한 맥시부프로펜(Dexibuprofen) 성분 해열시럽제이다. 즉, 효과가 있는 성분만 응축해 개발한 제품인 만큼 적은 양으로도 빠르게 열을 내릴 수 있고, 위장장애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맥시부펜시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4세 미만의 어린이 25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안전성을 입증 받아 유소아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 아울러 포도향이 나는 천연색소를 첨가해 약 먹기를 꺼리는 유소아들도 쉽게 복용할 수 있게 됐다. 한미약품은 자녀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려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열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맥시부펜시럽 겹포장에 부



착해 둔 것이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열이 나는 이유 △열이 날 때 처치요령 △이럴 때는 병원으로 △맥시부펜 시럽 소개 등의 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한미약품 측은 어린 자녀가 갑자기 아프면 크게 당황하는 부모를 안심시키고, 어린이 고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 적절한 대처를 돕기 위해 이 같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부모라면 아이의 갑작스런 고열로 당황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라며 “스마트폰만으로 약물에 대한 정보는 물론 열 발생 이유,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유소아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psj@

양재동 파이시티·파이랜드 결국 파산

서울시 ‘유통단지 개발’ 지원 나서

파산절차 끝나면 인허가 신속처리
시행사 현금자산 채권자 분배 진행
부채엔 못미쳐... 채무변제 불가피
소액투자자 피해 예상 후폭풍 예고

파산을 맞은 파이시티 프로젝트가 새롭게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파산 절차 후 적극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간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파이시티 프로젝트 시행사들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물류창고 부지 개발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적극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시행사 파산 이후 유통단지 개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과다했던 상업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인허가 절차 등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파산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사진은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가 들어서기로 돼 있던 옛 화물터미널 용지 전경. 뉴스시스

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프로젝트는 인수자로 나섰던 곳의 자금조달 실패로 시행사의 인수합병(M&A)이 잇따라 무산되는 등 사업 진행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 시행사들이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이 분양 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파산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파이시티의 부채총액은 자산총액을 현저

히 초과했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고,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아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파산절차는 폐지된다. 이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개발업체에서는 우리은행 등 대주단이 신략된 사업부지의 가치를 제고한 뒤 원매자를 탐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진 기자 tjipjo@

경남기업, 베트남 빌딩도 매각 추진

수완에너지 이어 랜드마크72 빌딩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경남기업이 최근 발전 자회사인 수완에너지 매각에 이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도 매각에 나선다.
23일 금융투자자에게 따르면 채권단은 오는 29일까지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매각주간사 선정 안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받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내 호텔 준공을 위한 14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안전도 처리할 예정이다.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은 백화점과 영화관, 아파트, 오피스, 레지던스 등을 갖춘 350m의 초고층 건물로, 지난해 말 기준 감정평가액이 1조원에 달한다.
경남기업은 이 빌딩의 사업을 추진하며 재무구조가 악화돼 두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
앞서 경남기업은 발전 자회사인 수완에너지의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 2월 경남기업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맺었는데 이에 따라 수완에너지의 보유 지분과 채권을 일괄 매각하게 된 것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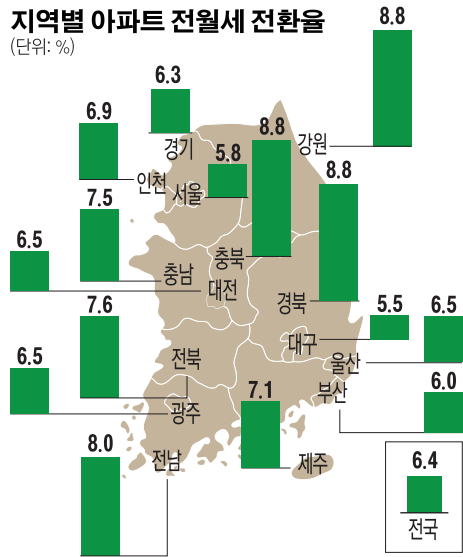
경남기업은 현재 수완에너지의 주식 70%(210억원)와 65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공들여 진행한 사업이 매각된다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하지만 최근 수완에너지 매각과 함께 랜드마크72빌딩을 원하는 가격에 매각하게 될 경우 워크아웃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6%

지방·소형아파트일수록 높아
속초 10% 최고...승파의 두배

전국 아파트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평균 6.4%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반대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요 지역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을 최초로 산정한 결과 우선 전국 아파트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6.4%로 나타났다. 하지만 낮은 금리 탓에 2011년 1월 8.4%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6.0%, 지방은 6.9%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가장 낮은 5.5%, 서울 5.8%, 강원, 충북, 경북은 가장 높은 8.8%로 상대격차는 3.3%포인트에 달했다.
분석대상 252개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 통계수치로 공개가 가능한 132개 주요 지역을 보면 서울 승파가 가장 낮은 4.9%, 성남 분당 5.2%, 서울 강북, 광진, 대구 달서 5.3% 순으로 나타났다. 공개 지역 가운데 강원 속초는 가장 높은 10.0%로 서울 승파보다 5.1%포인트 높았다.
특히 서울시의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5.8%로 집계됐고 권역별로 강남권역 5.6%, 강북권역 5.9%로 강남이 강북보다 0.3%포인트 낮았으며 구별로는 송파구가 가장 낮은 4.9%, 중랑구는 가장 높은 6.5%를 기록했다.



규모별로 소형아파트 6.8%, 중소형 5.8%로 소형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지방의 소형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7.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은 월세가 소액인 경우 월세 부담이 체감돼 수요가 많은 반면 높은 월세는 수요가 적어 전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에 새로 전월세확정일자 실거래 정보를 활용, 개선된 전월세전환율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전환율 정보를 임대계약 시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자료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9월 전·월세 거래 작년보다 15%↑

10만8000건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상승세 지속... 전달보단 3.5% 줄어

9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0% 증가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10만8000건으로 작년 9월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달 거래량(11만2000건)과 견줘서는 3.5% 감소했다.
1~9월 누계 기준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난 110만4000건이 거래됐다. 최근 3년 평균 동기 대비로는 9.7%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월세물량 동반 증가,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자 신청 증가로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어난 7만2853건이 거래됐고 지방에선 20.1% 증가한 3만5512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한 5만286건, 아파트 외 주택은 12.2% 늘어난 5만8079건으로 집계됐다.
임차 유형별로 보면 전세는 16.4% 증가했으며 월세는 12.9% 증가했다. 전체 전·월세 중 월세의 비중은 39.2%로 작년 9월보다 0.7%포인트 떨어져 월세 증가 추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 전세 실거래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강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송파 잠실 리센츠 84.99㎡(22층)는 8월 6억3000만원에서 9월 6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서울 강남 대치 은마아파트 76.79㎡(7층)는 8월과 9월 각각 3억2000만원, 3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주택 거래량과 실거래가에 대한 상세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www.onnara.go.kr),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

복합문화공간

공연 · 연주회 · 전시 · 런칭쇼 · 세미나 · 웨딩

총면적 12,000 제곱미터의 파티오나인은 50석부터 1,000석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미나에서 패션쇼, 박람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Performance
Concert
Exhibition
Launch show
Convention
Seminar and
Wedding

PATIO9

Banquet & Convention
파티오나인

연주회 및 공연 두타 패션쇼 삼성전자 신제품 전시 불가리 향수 런칭쇼 세미나 및 포럼

국내 최상급의 복합문화공간 “파티오나인”

예약 : T. 02-517-7080-1, 02-517-7070 / www.patio9.com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24 파티오나인

이번엔 테러 공포... 뉴욕증시 출렁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쇼핑몰 동시다발적
“IS 공습 참여국 보복성”... 주요 3대지수 약세

미국 뉴욕 주식시장이 22일(현지시간) 테러 공포에 출렁였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동시다발적 총격 사건이 발생한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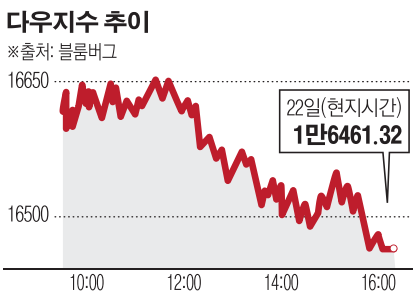
캐나다 정부가 전일 자국내 테러위험 등급을 중간으로 상향한 뒤,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번 사건이 테러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이날 한 남성이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공공건물이 있는 ‘팔러먼트 힐(Parliament Hill)’에 침입해 국립전쟁기념관 앞에서 경비병에게 총을 발사했다.

이 괴한이 의사당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최소 30여 발의 총성이 들렸고, 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캐나다 CBC방송은 보도했다. 괴한의 총격으로 경비병 1명이 숨지고 방호원 등 다른 2명이 부상했다.

괴한의 침입 당시, 의사당 안에는 스티븐 하퍼 총리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무사히 빠져나왔다.

경찰은 ‘팔러먼트 힐’과 국립전쟁기념관 외에도 쇼핑몰인 ‘리도 센터’ 인근에서도 총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사



살된 범인 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총격 사건은 이틀 전 한 테러 용의자가 퀘벡에서 승용차로 캐나다 군인 2명을 치어 한 명이 사망한 지 이틀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캐나다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퀘벡 자동차 사건을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타와 총격 사건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캐나다 정부도 워싱턴DC의 자국 대사관을 폐쇄했다. 양국은 항공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미국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와 연방수사국(FBI)은 경계 태세를 발동했다. 양국이 총격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캐나다 경찰이 이슬람국가(IS)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한 캐나다 의사당 총기 난사범 마이클 제하프-비보. CBC방송 캡처

이유는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반군인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과의 연관 가능성 때문이다. 캐나다는 CF-18 전투기 6대와 C-150 폴라리스 공중급유기 1대, CP-140 오로라 정찰기 2대를 투입하는 등 미국 주도의 IS 공습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IS는 그동안 공습 참여국에 보복 테러를 가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현재 IS에 가담한 미국인은 130명, 캐나다인은 70명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총격 사건으로 다우존스산업평

균지수가 0.92% 하락하는 등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사건이 실제로 테러 공격으로 판명되면 글로벌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JJ 시나나 TD아메리트레이드 투자전략가는 “오타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투자자들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lsmim@

中샤오미, 해외 시장으로 눈돌린다

중국 스마트폰시장 1위로 등극한 샤오미가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샤오미의 인도 사무소를 총괄하고 있는 마누 자인의 말을 인용해 “샤오미가 인도에서 휴대폰 제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샤오미는 그동안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며 삼성전자, 애플 등 기존 스마트폰 강자를 따돌렸다. 이에 안방시장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날로 입지가 확대되고 있는 인도에는 생산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자인 총괄은 인도 세무당국과 갈등을 빚다 끝내 공장 문을 닫은 노키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범법자문 담당자도 채용했다고 밝혔다.

샤오미가 지난달 초 인도에 출시한 10만 원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레드미(Redmi) 1S’는 판매 돌입 4.2초 만에 초도 물량 4만 대가 모두 팔렸다. 앞서 7월에 선보인 ‘미(Mi)4’도 3.7초 만에 초도물량 1만

대가 모두 팔리기도 했다. 샤오미는 이미 인도 진출 녀 달만에 스마트폰 50만대 이상을 팔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샤오미는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팔을 뻗고 있다. 샤오미는 연초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출시해 동남아 시장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당시 ‘미3’가 싱가포르 데뷔 2분 만에 모두 팔려 샤오미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동남아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독일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동남아 7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

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의 올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164억 달러(17조 3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24% 성장한 수치다.

특히 GFK는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동남아 시장에 유통되는 휴대폰 단말기 가운데 중국업체들의 스마트폰은 345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다. 글로벌 업체들의 가격은 대당 평균 253달러지만 중국 제품은 159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희 기자 jhsseo@

中서 애플해킹 문제 국 CEO 직접 푼다

마카이 부총리 만나 논의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중국에서 불거진 아이클라우드(iCloud) 해킹 문제를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쿡 CEO가 이번 주 마카이 중국 부총리를 만나 해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매체 신화통신 보도 내용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당초 쿡 CEO는 중국 시장 내 애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을 계획했다. 중국 청와대학교 경제관리학원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판매직 직원 400명과 함께 베이징 왕푸징 애플스토어 매장에서 회의도 준비했다. 특히 이번 쿡 CEO가 중국에서 주재하는 첫 회의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해킹 문제가 불거지자 쿡 CEO의 방중 목적이 아이클라우드 문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로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의 출시로 중국 내에서 시장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 해킹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검열기구인 그레이트파이어(GreatFire.org)는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은 “고객의 사생활과 정보 보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내가 우크라이의 다스베이더”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캐릭터인 '다스베이더'(가운데)로 분장한 우크라이나 인터넷당(UIP) 후보가 22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에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을 만난 후 총선 유세 차량을 타고 정소를 이동하고 있다. 본명이 빅토르 세브첸코인 이 후보자는 지난 4월 '다스베이더'라는 가명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다 출마가 무산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는 26일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키예프/로이터연합뉴스

J&J “에볼라 백신 내년 대량생산”

미국의 거대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J&J)은 오는 2015년 5월까지 25만명 분의 에볼라 백신을 생산할 계획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J가 개발 중인 백신은 자회사인 네덜란드의 안센과 덴마크 생명공학업체 바바리안노르딕의 약품을 합친 것이다.

폴 스토클스 J&J 최고과학책임자(CSO)는 내년 1월부터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내년 안에 100만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알렉스 고르스키 J&J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에볼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에 2억달러 이상 투입 5월까지 25만명 분량 계획

우리의 백신 전문성과 생산 능력 그리고 인적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J&J는 에볼라 백신 개발에 2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고 있다. 또 바바리안과 백신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lsmim@

해외로 가는 中 고속철도 올해 수주액 17조원 돌파

중국 고속철도업이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고속철주를 하면서 올 들어 지금까지 중국 철도기업이 떠낸 해외 수주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7조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현지시간) 중국청년보가 보도했다. 중국 고속철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2004년부터 시작됐으나 지난 7월 25일 터키의 ‘앙카라-이스탄불 고속철도’ 건설을 중국이 주도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을 협상 중이다. 중국은 글로벌 철도 네트워크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태국이 고속철도 사업을 재개하면서 수주를 노리고 있다. 또 태국과 중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 철도시장에도 진입했다. 중국 철도차량 제작업체 ‘중국난차’가 제조한 고속열차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했고 몽골과의 철도 사업도 체결했다.

한편 중국 철도차량업체 베이저우

터키·러·인도·몽골 등... 글로벌 네트워크 점유율 50%
최근 美캘리포니아 680억달러 규모 사업수주 가능성

앙카라-이스탄불 고속철도 건설에 구간별로 여러 국가가 참여했는데 중국은 33개의 교량과 39개의 터널 건설을 책임졌다. 또 지난 13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카잔의 총 770km 구간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100억 달러 프로젝트에 중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년간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기술력을 확보했고 자금도 풍부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중국 철도업체들은 낮은 원가와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무기로 글로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은 20~30개 국가와 고속철도 계약

한공사와 미국 내 협력업체 썬그룹(Sun Group USA)은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 사업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고속철 사업은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두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사업이다. 총 길이는 1287km이고 투자액은 68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사업이다. 중국은 사업계획이 공개된 후 중국 관리가 직접 현장 시찰을 하는 등 북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자금력이 뛰어나고 정부의 지지를 받는 중국 업체가 캘리포니아주 고속철 사업을 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혜민 기자 haemin2558@

글로벌 리포트

EU 새 집행위, 내달 1일 출범

유럽의회가 22일(현지시간) 장 클로드 융커를 수장으로 하는 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이에 웅커 EU 집행위원회(EC) 위원장 내정자와 28명의 집행위원은 다음달 1일부터 5년간 EU를 이끌게 됐다.

유럽의회는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423표, 반대 209표, 기권 67표로 차기 EC를 승인했다. 룩셈부르크 국무총리를 역임한 웅커는 지난 7월 유럽의회에서 차기 EC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대표적인 유럽 통합파로 EU의 권한 확대를 주장해와 영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EU의 장관적인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 내정자가 EU 회원국 정부와 협의해 지명하며 각국당 한 명씩 총 28명으로 구성된다. EC는 EU의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회원국 예산을 감독하며 각 회원국들이 EU의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감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각국 예산을 감시하는 경제담당 집행위원회에 피에르 모스코비시 전 프랑스 재무장관이,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회에 조너선 힐 전 영국 상원의장이 뽑혔다.

독일 출신의 귄터 외팅어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디지털 경제 담당으로 이동하고 외팅어 후임으로 스페인의 미겔 아리아스 카네타가 올랐다.

페덱스 “연말 배송규모 사상최대”

미국의 거대 물류업체 페덱스는 올해 연말 쇼핑시즌 배송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덱스는 오는 12월 15일 배송 물량이 2260만건을 기록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이 맞다면, 페덱스의 올해 연 배송 최고치는 금융위기 사태 이후 7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페덱스는 지난

2007년 12월 17일에는 1150만건의 배송을 기록했다.

또 오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한 달여에 걸쳐 전체 배송 규모는 2억9000만건을 넘을 것으로 페덱스는 내다봤다.

미국의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28일이다.

페덱스는 12억 달러 규모의 올해 전체 자본지출의 90%를 연말 배송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덱스는 연말 쇼핑시즌에 임시직 인력을 5만명 고용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1만명 늘어난 것이다.

경쟁업체인 UPS는 아직 연말 예상 배송 물량을 밝히지 않았지만, 임시직은 9만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쇼핑시즌에 고용한 임시직은 5만5000명이었다.

애플페이, 시작부터 이중결제 오류

애플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애플페이’가 시작부터 오류 발생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애플페이가 지난 2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거래 대금의 두 배가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본 고객들의 공통점은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BOA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애플페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면 똑같은 물건에 대해 2배씩 결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OA 측은 1000건의 거래가 이런 영향을 받았으며 중복으로 결제된 거래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BOA 대변인은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 “오류를 바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백개의 금융기관들이 기존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자 애플페이와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마켓워치는 덧붙였다.

기고

지도 거꾸로 보면 미래 보인다

1996년 해양수산부가 출범할 당시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제작·배포해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 반크가 공식 트위터에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를 게재해 대한민국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갇혀 있는 왜소한 나라가 아니라, 태평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더 큰 가능성의 나라’임을 천명한 바 있다.

바다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서식 환경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다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마치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역설적이게도 지구 전체적으로 보자면 인류가 땅에 산다는 것은 사실 예외적 현상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대부분이 바다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을 육지에서 해결해 왔다. 앞으로도 이와 같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다는 것은 점점 더 자명해지고 있다. 생태계, 환경, 에너지, 물, 식량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고, 바다에서 그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인류가 맞이할 것은 어두운 미래뿐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육상 자원과 육상 생태계만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단을 온전히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해양을 잘 이용한 나라들이 인류문명을 이끌어 왔다. 해양을 이용하는 역량이 한 국가나 민족의 명운을 좌우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바다를 이용하는 목적과 방법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20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바다는 주로 운송의 통로나 수산업의 무대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레크리에이션, 에너지 및 광물 개발, 조사 및 관측, 공간 이용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해양과 관련된 활동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적은 편이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이라나 보코바는 지난 2월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블루 이코노미’를 향한 새로운 골드러시’란 글에서 해양산업의 비중이 세계 전체 경제의 5%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분명한 것은 해양과 관련된 활동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1세기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하다. 해양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반드시 살려나가는 것이다. 당장은 그 비중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해양을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집에 있는 지도를 거꾸로 돌려 보라. 대륙의 끝단에 조그맣게 걸려 있던 한반도가 전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바다를 꿈꾸고 이해하는 국가에 번영의 길이 있다. 지금껏 바다를 미래의 자산, 단순히 가능성으로서만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올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만들어 가는 데 국가와 사회, 개인이 모두 힘을 합칠 때다.



문 해 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배국남의
직격탄



문화체육관광장 겸 문화부장

“몇 등급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출간된 남정욱의 ‘결혼’이란 책을 읽다가 ‘결혼의 자격’편에 소개된 재산, 학벌, 외모, 직업 등으로 구분한 결혼정보회사 남성 회원 등급표에 눈이 머문다. 미혼인 문화부 기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래 등급일 것 같은데요”다. 그 대답에 “맨 밑은 아닌데”라며 자조 섞인 웃음으로 대응했지만 잠 쉼을 한다.

이 책에 소개된 결혼정보회사 등급을 한 번 보자. 재산 항목에선 100억원(부모 재산 포함) 이상이 100점으로 1등급이고, 3억원 이하는 55점으로 10등급이다.

학벌 부분에선 서울대, 카이스트, 미국 명문대가 80점으로 1등급이고 2년제 대학은 53점으로 10등급이다. 키와 몸무게는 185cm·75kg이 60점으로 1등급, 167cm·57kg은 10등급이다. 이 등급표상 1등급 신랑감은 서울대를 나오고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신장 185cm, 몸무게 75kg이어야 한다.

처음 등급표를 보고 이런 것이 있나 하고 당혹스럽고 놀랐다. 이내 놀란 감정은 사람이 등급화된 상품이라는 비판으로 변했다. 삶과 결혼에서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라는 묵언의 항변도 해 본다. 하지만 2014년의 대한민국

당신은 몇 등급의 신랑·신부입니까

현실, 그리고 오늘의 결혼풍속도를 보면 등급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학벌, 재산, 직업, 외모에 의한 사람들의 서열화는 더욱 정교하고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에 나와 “180cm 이하의 남자는 루저”라고 말하는 여대생, 부유층 남성을 만나는데 자신의 월급을 전부 투자하며 “명품 옷을 입고 나이트클럽에 가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남는 장사”라고 말하는 20대 직장인 여성, “사랑해도 번듯한 차와 집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여성은 어쩌면 결혼정보회사 등급표의 또 다른 우리의 얼굴인지 모른다.

결혼정보회사 등급표는 재산, 외모, 학벌 등 외형적 조건의 교환시장으로 전락한 결혼에 대한 2014년 대한민국 현실의 엄연한 자화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남정욱의 지적처럼 이제 결혼 당사자들이 자신을 상품으로 내걸고 가격을 매기면서 서로 상대방의 상품과 품질 및 가격과 비교 흥정을 벌이며 재화나 지위를 목적으로 한 정략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결혼 당사자가 정략혼의 희생자였다면 현대의 정략혼은 결혼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

재산, 학력, 직업 그리고 외모로 굳건하게 형성된 등급화가 냉정하게 작동하고 물화된 조건의 등식이 성립해야 커플로 맺어지는 것이 오늘의 결혼시장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김혜수와 유해진의 열애가 보도될 당시 외형적 조건의 부조화라는 전제를 깔고 잘못된 만남으로 매도했고 결별을 할 때에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조건등급화에 체화된 많은 사람들이 김혜수와 유해진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물화된 조건지상주의에 입각한 커플의 원칙을 위반한 비정상적 커플로 인식한 것이다.

톱스타 이효리와 인지도가 낮은 가수 이상순의 결혼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도 물화된 등급의 시선이 작용했다. 이효리와 이상순을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고 단정적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 역시 외형적 조건의 교환으로 결혼 상대를 구하는 정략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등급에 따른 짝짓기가 움직일 수 없는 법칙처럼 작동하는 현실 때문인지 사람들이 정신없이 빠지는 곳이 있다. 결혼과 만남에 있어 외형적 등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예 무시하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TV 드라마다. 가정부 딸과 사랑을 하는 재벌 2세(상속자들), 가난한 스타트우먼과 재벌 2세의 결혼(시크릿 가든) 등 수많은 드라마에선 등급을 초월한 사랑을 한다. 가난한 여성과 재벌 2세와의 결혼의 판타지는 솔한 드라마에서 흔하게 펼쳐지는데 이런 드라마를 보며 잠시나마 등급으로 짝짓는 차가운 현실을 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마저도 그 속내를 살펴보면 등급 지상주의가 작동된다. 10등급의 가난한 여성은 1등급 재벌 2세를 선택할 수 없고, 1등급 재벌 2세만이 10등급의 여성을 커플로 맞이할 수 있는 법칙이 재벌 2세 드라마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현실이나 드라마에서 등급의 정략혼이 고착화되고 있다. 당시는 현재 몇 등급의 신랑, 신부인가.



대기업이 후원한 ‘러버덕’, 그래도 귀엽잖아

○…동네마다 태권도 띠의 체계와 등급심사비가 달라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태권도장에서는 띠 종류만 10개가 넘어서 “등급심사비를 챙겨 먹기 위한 태권도장의 상술”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네티즌은 “라벨업의 희열을 이용한 코 문은 돈 먹기”, “태권도 띠로 조만간 256 색상표 완성할 듯”, “띠가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매번 내는 등급심사비가 문제다”, “태권도장 등급심사비 옆 동네는 1만5000원인데 우리 동네 태권도장은 4만원이다”, “승단심사비면 몰라도 등급심사비로 몇 만원은 너무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띠 지루하고 단기적 목표가 있으니 열심히 하게 된다” 등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석촌호수에 뜬 노란색 고무 오리 ‘러버덕’이 상업성 논란에 휩싸였다. ‘러버덕’ 작가는 “논란은 알고 있지만 러버덕은 전시 때마다 새로운 후원자가 필요하다”며 “제2롯데월드 개장 덕에 더 많은 사람이 러버덕을 볼 수 있게 돼서 좋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은 “관찰야요. 마냥 귀여워요”, “제2롯데월드 개장이

고 뭐고 가족들 모두 잠시나마 웃을 수 있어 좋았음”, “막상 가보니 사람들 입가에 순수한 미소가 보기 좋았다”,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닌데 뭐”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선 “롯데가 14억원이나 후원했다며?” 등 대기업에 대한 비판도 눈에 띄었다. 러버덕은 전시 때마다 작가에 의해 새롭게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총 기자 kec@



이투데이 온라인 집게

- ① “아침 거르면 체중감량 효과에 혈압도 호전” 연구 화제
- ② 금 시세 바닥… 돌반지·골드바 팔 팔린다
- ③ 박홍석 모뉴엘 대표, 무리한 팩트검 경영 화 불렀나
- ④ 가을철 무질서행위 특별단속… 대부분 국립공원 실시
- ⑤ J&J, 에볼라 백신 대량 생산 계획 밝혀… 주가 상승

오늘의 **배국남** www.baekn.com

4년만에 가요계 돌아온 바비킴

배국남닷컴은 22일 가수 바비킴을 만났다. 그는 정규 4집 앨범 ‘거울’ 쇼케이스를 갖고 약 4년 만에 가요계로 컴백했다. 바비킴은 “많이 떨리고 설렌다. 신인 가수로 다시 데뷔하는 기분”이라며 “어떻게 나의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바비킴은 이번 앨범 전체 프로듀싱을 직접 맡으며 뮤지션으로서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뽐냈다. 그는 “타이틀곡은 발라드지만 제 성격대로 만들었다”며 “표현하고 싶은 장르를 담기 위해 많은 곡을 썼고 버리기도 했다. 그중 12곡을 담았다”고 전했다. 또 바비킴은 타이틀곡 ‘사과’에 대해 “사과는 제가 작곡, 편곡한 노래다. 무척 쓸쓸한 밤에 만든 곡이다. 가사를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 술친구이자 절친인 이적에게 부탁했다”며 “사랑하는 연인에게 권태를 느껴서 함부로 대하다가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리석음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날 바비킴은 그간 겪었던 슬럼프에 대해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약 4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3년 전 추락사고가 났고, 입원해 있는 동안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또 지난해 이맘때쯤 절친이 하늘로 떠났다.

김민정 기자 mj_kim@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www.rynkorea.com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워킹 & 라이프 스타일 **RYN**

(주)RYN코리아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기업정신으로 기능성 워킹화에서부터 스포츠 패션까지 세계최고의 제품만을 고집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WORLD BEST NO.1

- 해외 20여개 국가로 수출
- 대통령 표창 수상
-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 수상
- 대한체육회 /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사 선정
-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미국 FDA 1등급 의료기 등록(국내 신발업계 최초)
-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국내 기능성 신발 최초)
- 이탈리아 AC STUDIO와 디자인 협약

최윤열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는데 무슨 경제민주화 타령이 나고 땃하시겠지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한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한다고 믿기에 몇 차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 심화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업과 가계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 양극화 문제를 푸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겠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강해지는 것이 대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대기업 스스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단가 인하 압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신제품을 개발하면 대기업은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해 중소기업 성장에 저해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독일의 경우 제품 제조 대기업들이 오히려 중소 납품회사들 R&D(연구개발) 비용을 부담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를 만들었으므로 오늘 독일의 강한 경제를 구축하였다는 내용을 우리 대기업도 참고했으면 합니다.

경제민주화 타령을 더 해야겠습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기회평등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에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조건이 같다면 계열사 제품을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기업이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큰 역할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기업이 되기까지 국민과 정부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장재원이 없을 때 국민들은 저금리를 감수하고 예금하여 정책자금 형태로 대기업의 성장 재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최근 대기업 임직원의 부당한 노력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노력으로 결코 오늘이 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를 잊고 오늘의 경쟁력이 마치 그들만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인 양 대기업 CEO들의 과도한 연봉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른 나라 대기업보다 더 사회적 책임 의식을 크게 느껴야 합니다.

오늘날의 대기업이 될 때까지 순환출자가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주주는 극히 소수의 자본으로 순환출자 형태를 빌려 대기업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순환출자 정책이 단기간 내에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정책이 불균형 성장에 기여한 것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그 양극화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가 순환출자라면 점진적으로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순환출자를 그대로 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

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고착화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대기업군 형성이 어려워지고 기득권만 보호받는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순환출자 해소에 15조원의 돈이 필요한데 이를 투자해 고용을 창출해야지 왜 자본 문제 해소에 큰돈을 투자하느냐고 반대 여론이 있었지요.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자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성이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많은 규제 그리고 전후적 노사관계로 인건비가 상승해 투자하지 않는 것이지 자금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순환출자제한을 규제라 아니라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 정비라 생각해주시지요. 기존의 순환출자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지배구조의 후진성에서 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줄일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요즘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규모만 고려하여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풍나물 등을 특화하여 중견기업이 된 회사, 레미콘 사업에서 출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더라도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현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IT(정보통신) 관련 업종의 경우 규모를 키워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한다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개별 기업, 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스마트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객석

국회와 피감기관 ‘비밀의 조건’



유동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실 비서관

국경감사 막바지다. 각 의원실은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다. 하지만 체력보다 힘든 게 제대로 된 자료받기다. 피감기관이 제대로 된 자료를 주면 의원실은 이를 분석해 적절한 정책질의가 가능하게 가공할 수 있다. 의원실에서 가장 맥 빠질 때가 공들여 자료요구를 해도 ‘비밀유지’ 관련 각종 근거사유가 달려 한 쪽짜리 답변서가 올 때다. 대부분은 국회법에 안 맞는 엉터리 사유다.

주로 권력기관이 그렇다.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이 자료제출에 인색하다. 더 큰 문제는 점점 타 기관들이 이들을 흉내낸다는 것. (한국인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자면 사실상 침해가 아니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요구가 아니면 검찰 자료도

모두 제출되어야 하고, 특정 개별과제정보만 아니면 국세청 자료도 모두 나와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출 거부 광기도 늘고 있다. 각종 개인정보 운운, 비밀유지조항,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 무슨 무슨 비밀에 해당한다는 핑계가 그리 많은지, 국회 자료요구권은 헌법, 국회법, 국감법, 증감법 등을 근거로 하고 이를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처벌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피감 공무원들은 국감시즌만 버티고 넘어가려 한다. 이쯤 되면 국회가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강한 방법을 쓸 때가 됐다.

각 국회의원들은 한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린다. 기관 자료 ‘비밀의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 구성원들도 ‘공무원이고, 국감 협조는 대국민 서비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기자의 눈

어렵고 복잡한 마일리지카드



박엘리
금융시장부/ellee@

“아무리 써도 마일리지가 잘 모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마일리지카드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듣는 불만이다. 소비자들은 카드를 쓴 만큼 마일리지가 쌓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1000원의 결제 건당 1마일 혹은 1500원당 1마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예를 들면 현대카드나 외환카드 경우 결제 건별로 1500원으로 나눈 다음 1500원당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1500원 이하 금액은 통으로 절사(버림)한다. KB국민카드의 경우 결제 건별로 1500원으로 나눈 뒤 적립해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주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신한카드나 삼성카드의 경우엔 월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어떤 방식이 더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해주는 KB국민카드의 마일리지카드로 1만원씩 세 번에 나눠 결제했을 때 총 21마일리지가 적립되지만 3만원의 결제 총액으로 적립해주는 신한카드의 마일리지카드로는 20마일리지가 쌓인다. 반면 9600원을 세 번에 나눠 결제했을 때는 신한카드의 결제 총액 방식이 더 유리하다. 카드사들은 상황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지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카드사들은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고객이 사용한 금액만큼 ‘서비스’를 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공공재’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이미 고객들은 단순 ‘부가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권리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제각각이고 지나치게 복잡한 마일리지카드 적립 기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의 가리사니

바보야, 문제는 신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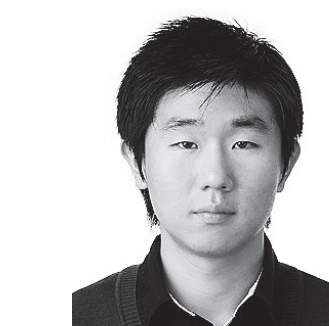
‘카카오톡’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 논란 파문이 진정되기는커녕, 국내 모든 IT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톡에 이어 네이버 ‘밴드’는 물론, 통신 3사의 내비게이션 ‘티맵’, ‘올레네비’, ‘유플러스네비’까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국내 IT 산업을 믿었던 이용자들은 실망감을 안고, 하나둘 외산 서비스로 옮겨갔다. 누가 잘나가던 국내 IT 산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일까?

논란의 한 가운데 선 다음카카오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검정 영장 거부’라는 무리한 대처를 내놔지만, 이미 돌아선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마음을 잡기엔 늦은 감이 있다. 카카오톡을 떠나 ‘사이버 망명’을 한 사람만도 벌써 수백만명에 이른다. 반면 독일산 메신저 텔레그램은 애플과 구글 마켓 등에서 1위 자리를 지키며 국내 이용자만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탈국내 IT 기업’ 현상은 2008년의 대자뵈를 보는 듯하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사태’가 벌어지고, 촛불 집회를 하던 방송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검찰에 압수수색 되면서, 이용자들은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를 떠나 구글로 ‘동지’를 옮겼다. 하지만 인터넷 패킷만으로도 내용을 감청할 수 있고, 지메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이 등장했다. 지금도 일부 전문가들은 텔레그램도 크게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텔레그램 가입자는 늘고만 있다.

왜 이용자들은 국내 서비스를 믿지 못하고 떠날까? 문제는 ‘신뢰’다. 국내 이용자들은 정부에 대한 믿음도, 국내 IT 업계에 대한 믿음도 잃은 지 오래다. 2000년대 초 잘 나가던 ‘싸이월드’와 ‘네이트온’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들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곤욕을 치렀지만, 이렇다 할 보상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지금은 옛 명성을 잃은 채 추락했다.



구글은 2010년부터 연간 2회에 걸쳐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한다. 전 세계 정부기관의 정보 요청 건수를 알리기 위해서다. 보고서 발간은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을 믿어달라는 최소한의 신뢰 행위다.

구글 등은 국내 기업처럼 사법당국의 말만 듣고 이용자들의 정보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 실제 우리 정부는 구글에 올 상반기에만 416건의 정보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이 중 29%의 정보만을 제공했다. 우리 기업이 90%대 정보를 제공한 것과는 달랐다. 그만큼 자신들의 기준과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사법당국의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다.

지금 카카오톡발 ‘사이버 검열’ 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통신과 메신저,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과 압수수색 등은 사실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수년전부터 이뤄지고 있던 ‘흔한’ 일이다.

그런데도 지금 카카오톡으로 논란이 또 다시 시작된다는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신뢰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미래산업부 기자 119@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만일 마더 테레사께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을 것인가” —정호승



가난을 고발하려 인도로 떠난 사진가, 마더의 사랑에 물들다

마더 테레사,
넘치는 사랑

시인 정호승과 그 아버지의 손길로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녀의 깊고 큰 사랑!
인도 콜카타, 마더 테레사의 곁에서 보낸 사진작가의 7년



오기 모리히로 찍고 쓰다
정호승 정호승 옮기고 다들다
양장본 127쪽 | 14,500원

조광호(신부, 작가) ‘신이 어디 계시며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분과,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참사랑과 행복과 기쁨, 보람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분에게 나는 이 책을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이해인(수녀, 시인) 생생한 사랑의 기록인 이 책 속의 사진과 글을 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기도이고 묵상이며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이웃사랑의 지침서입니다.

김혜자(배우)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희생이라는 실천을 통해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가르치신 넘치는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삼성 대표 CEO '내 인생의 바이블'은...

‘삼성인 책 나눔 바자회’ 사업장 1만7000권 모아
전동수 삼성SDS 사장 ‘익숙한 것과의 결별’ 등
계열사 대표 31명의 추천서 일반시민과 공유도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매일 2시간만이라도 미쳐라.”

“본인의 생각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라.”

“분명의 격차는 인종적 우월성이 아닌 환경·총가·병균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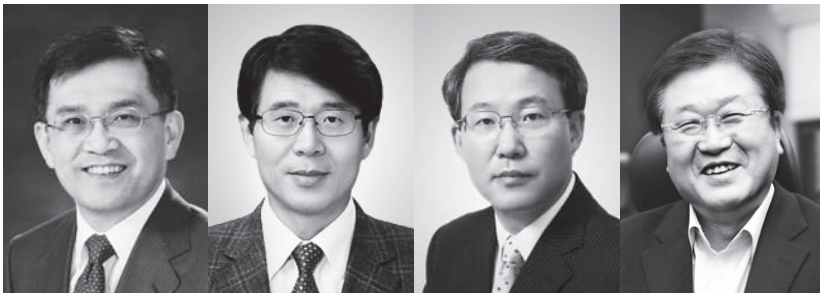
삼성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의 오늘을 만든 글귀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전동수 삼성SDS 사장,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상진 삼성SDI 에너지솔루션부문 사장 등 총 31명의 삼성 계열사 CEO가 본인들의 인생을 바꾼 책 속의 지혜를 일반시민들과 공유한다.

24일 삼성 서초사옥 달라이트 광장에서는 ‘삼성인 책 나눔 바자회, 북(BOOK)

적이다가 열린다. 이번 바자회는 전 삼성인이 책을 매개체로 인사이드를 공유하는 자리로, CEO 추천책 경매 및 창의와 도전에 대한 특별 강연이 열린다. 지난 1일부터 2주간 전국 삼성 사업장에서 진행된 책 기증 행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 총 1만7000권이 모아졌다.

특히 삼성 CEO들은 자신들의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 도서 709권을 기증했다. 이 가운데 23명의 CEO는 ‘후배 삼성인에게 추천하는 내 인생을 바꾼 책’을 꼽아 자필 추천사를 적어 기증했다.

전동수 삼성SDS 사장은 당시 신선하고 현실적인 충격을 안겼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추천했다. 지난 2001년 삼성전



왼쪽부터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전동수 삼성SDS 사장, 박상진 삼성SDI 사장.

자 근무 시절 이 책을 읽었다는 전 사장은 “직장인으로서 앞이 불투명했던 시절에 일종의 인생지침서이자 조직관리자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바이블 같은 책”이라며 “특히 ‘과거에 얽매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라.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매일 2시간만이라도 미쳐라’라는 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스마트한 생각들’을 추천하며 새로운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추천사에

서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익숙한 습관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착각과 오류로 인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반복한다”면서 “이 책은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주변의 현상이나 상황을 다시 보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밝혔다.

박상진 삼성SDI 에너지솔루션부문 사장은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포용력과 이해심을 길러줄 수 있는 책으로 ‘충, 근, 쇠’를 추천했다. 김지영 기자 gulyj@

미스터리 공룡 실체, 한국 과학자가 풀었다

이용남 지질박물관장 ‘데이노케이루스’ 모습 복원... 연구 결과 네이처지 실려

50년간 공룡 학계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데이노케이루스의 전체 모습을 국내 고생물학자가 밝혀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은 최근 이용남 지질박물관장이 공룡 ‘데이노케이루스’ 머리 피쿠스의 전체 모습을 복원해 실체를 규명한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 이날로 실렸다.

데이노케이루스는 1965년 폴란드팀이 몽골 고비사막에서 앞발 화석을 찾으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추가 정보가 발굴되지 않아 ‘미스터리 공룡’으로 남아있었다.

2m에 이르는 앞발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져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거대 육식공룡일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었다. ‘데이노케이루스’라는 학명도 ‘무서운 발톱’이라는 뜻에서 지어졌다.

이 관장 연구팀은 화성시가 지원한 ‘한국-몽골 국제공룡탐사’ 프로젝트를 통해 2006년과 2009년 몽골 남부 고비사막에서 데이노케이루스 몸통뼈 표본을 발굴했다. 당시 표본 중 머리뼈와 발뼈는 도굴된 상태였다. 하지만 연구팀은 유럽의 한 개인



이용남 관장 연구팀이 2009년 몽골에서 데이노케이루스 몸통뼈 표본을 발굴하고 있는 모습과 무서운 발톱 ‘데이노케이루스’ 복원도.

이 도굴된 뼈들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몽골에 반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지난 5월 1일 데이노케이루스의 머리뼈와 발뼈가 몽골로 반환됨에 따라 데이노케이루스의 완전한 복원도를 구현해낼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전체 길이 11m, 몸무게 6.4t으로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크기에 단봉 나뉠처럼 등이 높고 솟은 독특한

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김새는 ‘타조공룡류’에 속하지만, 속도가 빠르고 날렵한 다른 타조공룡들과 달리 큰 발로 천천히 걷는 특징을 보였다.

이 관장은 “공룡 학계의 커다란 숙제를 해결하게 돼 고생물학자로서 매우 영광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침체된 우리나라 고생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김희연 LG디스플레이 상무
‘2014 베스트 IRO’ 수상

LG디스플레이는 한국IR협회가 주최하는 ‘2014 한국 IR 대상’에서 베스트 IRO 수상자로 LG디스플레이 IR 담당인 김희연(사진) 상무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베스트 IRO상은 상장기업의 IR 담당자 중 한해 동안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김 상무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IR 활동으로 기업과 주주, 투자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IRO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의 IRO로 선정됐다.

한국IR협회는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 중 기관투자자 평가단의 평가와 한국 IR 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베스트 IRO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세계가 일본된다’ 책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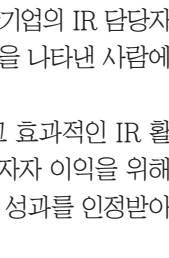
“세계인은 인류 최초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세계를 살게 됐다.”

홍성국(사진)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부사장)이 22일 ‘세계가 일본된다’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며 던진 경고의 메시지다. 홍 센터장은 “일본과 한국의 처지나 대응 방식이 비슷해서 ‘침묵’이 밀려온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홍 부사장의 행보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홍 부사장이 대우증권 선임 사장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는 강한 비판을 담고 있어 수상 자리를 고사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홍 센터장은 “지금 세계가 25년 전의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전환형 복합불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합불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종합적인 침체를 뜻한다. 또 ‘성장률·물가·투자·금리가 낮아지는 이른바 ‘인4저 효과로 낮은 세계가 펼쳐지고 있지만 과거형 대책이 남발하고 있고 기득권과 이데올로기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센터장은 국가와 국민이 ‘새로운 행복’으로 나아가길 방향을 조정할 독일과 북유럽 국가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욕망과 소유의 축소를 추구하는 쪽으로 행복 방향성을 바꾸는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정준 기자 jcha@



‘닉슨 하야’ 워터게이트 특종 이끈 벤 브래들리 전 WP 편집인 타계

42년 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보도를 이끈 벤 브래들리(사진) 전 워싱턴 포스트(WP) 편집인이 타계했다. CNN 등 외신은 브래들리가 93세 나이로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미국 중앙수사국(CIA) 요원들이 동원돼 불법 감청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도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닉슨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사임하는 대통령이 됐다. 당시 이 내용을 보도한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는 풀리처상을 받았다.

브래들리 전 편집인은 1950년대 기자생활을 시작했으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시절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브래들리 전 편집인은 1965년 워싱턴포스트의 편집부장이 됐다가 3년 후에는 편집국장으로 승진했다.

WP는 브래들리 편집국장의 지휘 하에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보도 외에,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진 정치공작을 담고 있는 국방부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승리하기도 했다. 그는 1991년에 WP를 떠났다.

한편, 브래들리 전 편집인은 지난해에



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민간에 수여되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WP는 “우리 신문의 전설적인 편집인으로 뉴스룸을 26년간 이끌었으며 WP를 세계 선도신문 중 하나로 끌어올린 브래들리가 숨을 거뒀다”고 추모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브래들리에게 저널리즘은 단순한 직업 이상이었으며 우리 민주주의에 필요한 좋은 요소였다”며 “진정한 ‘신문맨’으로 그는 WP를 미국에서 가장 좋은 신문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애도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김재철 동원 회장, 키리바시 대통령과 오찬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22일 동원그룹 본사에서 여수국제해양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아노테 통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김 회장과 아노테 통 대통령은 키리바시와 동원그룹 간 민간 외교와 관련해 논의했다.

아노테 통 대통령은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조업권과 입어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산전문가 양성을 위해 자국 인재를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에 파견하는 등 해양수산을 통한 국가 발전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1990년대 수산부 차관과 장관 역임 당시, 대한민국 참치 원양 선량선단이 기존 주 조업지였던 서부 태평양에서 키리바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태평양으로 신 어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참치 원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2012년에는 국제 환경보호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양국의 해양수산 부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오른쪽)과 아노테 통 키리바시 대통령. 사진제공 동원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아 부경대학교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부경대는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명예총장으로 있는 학교다.

한편, 키리바시공화국은 남태평양 내 3000개 섬으로 이루어진 인구 10만명의 작은 나라로, 광활한 수역의 EEZ와 참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선애 기자 isa@

신한베트남은행, 베트남 흥옌성 틴겨우 희망센터 지원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 흥옌성에 위치한 틴겨우(TIEN CAU) 희망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협약식에는 신동민 신한베트남은행 하노이 본부장과 후엔 쯡 찻(Nguyen Trung Chat) 틴겨우 희망센터장 및 지역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베트남은행은 3년 동안 약 5만 달라(한화 약 5400만원)를 지원, 양육시설 3개동의 개보수와 학습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immj@

고은 시인, 伊 ‘노르슈드 국제문학상’ 선정

고은(사진) 시인이 이탈리아 재단이 제정한 ‘노르슈드 국제문학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출판사 창작과비평이 23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노르슈드 국제문학상은 전 세계 남과 북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페스카라브루조 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문학 외에 과학 분야에서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요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창작과비평은 “고은 시인의 수상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면서 “이탈리아의 저명한 시인 엘리오 페요라가 고은 시인의 세계적인 중요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 위재민
- ◆한국해양대 △학상처 학생복지과장 윤형복 △산학협력단 운영지원부장 유병수 △교무처 학사과장 김재성 △총장 비서실장 이재팔
- ◆국민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정태 △편집국 △통합뉴스룸 담당 부국장 겸 고충처리인 정재호 △편집국그래픽·사진·교열 담당 부국장 겸 종합편집1부장 오병선 △정치·국제·기획 담당 부국장 김의구 △경제·사회·문화체육 담당 부국장 신종수 △정치부장 김영석 △산업부장 오종석 △사회부장 태원준 △사회2부장 노석철 △국제부장 전석운 △문화체육부장 한민수 △온라인뉴스부 선임기자 김태희 이명희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손영욱
- ◆브릿지경제신문 △편집국 산업/IT부장 김중길

부음

- ▲정상기(전 국민은행 지점장)·상철(차영업)·모친상, 장명갑(태영상선 기관장)·김억재(전 부산은행 지점장)·강동형(서울 유림 국가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욕망과 소유의 축소를 추구하는 쪽으로 행복 방향성을 바꾸는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정준 기자 jcha@

- = 22일 오전 4시, 광복 중앙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031-666-3400
- ▲남기부(자영업)·기창(삼미통상)씨 부친상, 송정호(연합뉴스 정보사업국 부국장)·한상욱(롯데건설 차장)씨 장인상 = 23일 오전 12시 15분,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해당화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31-217-7200
- ▲김준모(LG CNS 책임연구원)·정우(네이버 차장)씨 모친상, 우수연(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과장)·김은옥(웹스프레드 부장)씨 시모상 = 23일 오전 3시 58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25일 오전 6시. 02-3010-2000

스타.스타를 말한다 서태지가 말하는 서태지



“문화 대통령 서태지 이젠 물려주고 싶죠”

‘아빠는 이랬던 사람이야’
내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
동화책 콘셉트로 앨범 제작

변절자 평가? 오히려 기뻐
어린 세대와 가까워진 기분

안녕하세요. 가수 서태지입니다. 정규 9집 앨범 ‘콰이어트 나이트(Quiet Night)’로 약 5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18일 컴백 공연도 했는데, 긴장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공연은 항상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민간인으로 살다가 5년 만에 공연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무대 위에서 팬들의 환호성을 듣고 긴장이 약간 풀렸고,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번에는 전국투어도 하면서 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 중이에요.

이번 앨범은 어른과 아이가 함께 들을 수 있는 한 권의 동화책이라는 콘셉트로 만들었어요. 1년에 걸친 앨범 및 곡 구성, 2년 반의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완성됐죠. 가장 큰 변화는 내 딸을 생각하면서 앨범 작업을 했다는 것이예요.

타이틀곡 ‘크리스탈로윈’은 ‘올면 안돼’라는 캐럴에서 시작된 곡이죠. ‘올면 안돼.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안 줄거야’라는 가사는 재밌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달래 주는 것도 권력의 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만든 곡이예요.

선공개곡인 ‘소격동’도 마찬가지죠. 이 노래를 내 딸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죠. 나의 어렸을 때 이야기와 아버지가 됐을 때 느끼는 감

정을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수록곡 ‘90s ICON’도 ‘네 아빠가 1990년대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단다’를 말해주고 싶었죠.

특히 마지막 트랙에 ‘성탄절의 기억’이라는 태교 음악을 넣었어요. 아내 이은성씨가 임신했을 때 뱃속 아기에 많이 들려줬죠. 음반 재킷 사진에도 소녀가 나오는데, 제 딸이 6~7세 됐을 무렵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9집을 내 아이가 같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화 같은 테마로 만들었죠. 이번 앨범의 뮤즈는 ‘백록이(태명)’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 앞선 앨범들보다 조금 대중적이라는 이유로 음악적 변절자 혹은 신비주의를 탈피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정이 생기고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생긴 여유와 행복한 느낌들이 음악에 전달됐을 뿐이에요. 오히려 대중적인 음악이라는 말을 듣게 돼서 기뻐요. 신드롬까진 아니지만 저를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도 ‘서태지는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아줘서 기분 좋아요.

아이유 덕을 참 많이 봤어요. 얹고 다지고 싶은 정도니까요. ‘소격동’을 만들고 보니 예쁜 노래였고, 떠오르는 가수가 아이유씨였어요. 그의 음색은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억이 ‘소격동’으로 이어졌죠. ‘크로스팔로윈’ 같은 경우 음원순위가 저조하죠. 음악을 성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다양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확장시절에도 성적으로 등급 나누는 것을 싫어했어요(웃음).

서태지의 시대는 1990년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를 ‘한물간 별 볼 일 없는 가수’라고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제 문화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내려놓고 싶어요. 자랑스럽지만 족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독재자 같은 느낌이라 누군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선배로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편안하게 음악하고 싶어요. 아직도 저는 음악으로 팬들과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글/김민정·사진/최유진 기자 mj_kim@

한국영화 3년 연속 ‘1억 관객’ 보인다

1760만 관객(이하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을 동원한 영화 ‘명량’의 성공은 한국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굳건하게 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억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알린 영화계는 상반기 865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수상한 그녀’와 344만명의 ‘끝까지 간다’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대박을 터뜨리지 못했지만 하반기 ‘해적: 바다로 간 산적’(866만), ‘군도: 민란의 시대’(477만), ‘타짜-신의 손’(401만) 등의 흥행으로 숨고르기에 성공했다.

현재 한국영화 총 관객 수는 8987만명. 역대 최다인 1억2728만명을 동원한 지난해는 물론 1억 1461만명의 2년 전 같은 시기 관객 수에 비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상반기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객 점유율 60%에 육박했던 한국영화는 상반기 43.1%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상대적으로 외국영화(100% 할리우드 제작)는 56.9%를 기록하며 블록버스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영화 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1년 이후 3년 만으로 3년 연속 1억 관객 돌파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의 한수’(356만명)로 촉발된 여름 성수기 한국영화의 부활은 어렵게 보였던 1억 관객 돌파의 불씨를 다시 살렸고, 반전의 결과를 예상케 했다.

현재 15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비롯해 사회 비판 장르 영화의 명맥을 이은 영화 ‘제보자’ 역시 160만 관객으로 쌍둥이 흥행 중이다. ‘솔로유

상반기 외화에 점유율 밀렸지만
하반기 ‘신의 한수’ ‘해적’ 등 선전
작년 못 미치지만 9000만명 육박
‘나의 독재자’ ‘국제시장’ 등 기대

비디오’와 ‘마담 뽽뽽’의 뒷심이 아쉬운 수준이지만 23일 19급 영화관을 다룬 ‘레드카펫’과 조진웅, 김성균의 내공이 담긴 ‘우리는 형제입니다’가 동반 출격하며 힘을 불어넣는다.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석 매진을 기록한 ‘다이빙벨’ 역시 10월 개봉을 확정지었고, 김일성 대역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나의 독재자’,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패션왕’, 황정민 주연의 ‘국제시장’, 이만호, 김래원 주연의 ‘강남 1970’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김상호 영화평론가는 “우리 영화 시장은 2011년부터 관객 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10년 만에 관객 수 기준 3배, 매출액 기준 5배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점유율 50%도 회복한 상황이다. 올해 1억 관객이 들지 않아도 언제든지 기록을 달성한 기반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제보자



우리는 형제입니다

10월까지 한국영화 흥행 TOP10

1위 명량 1760만

2위 해적(비디오 간 신작)	866만	7위 신의 한수	356만
3위 수상한 그녀	865만	8위 끝까지 간다	344만
4위 군도(민란의 시대)	477만	9위 표적	284만
5위 타짜(신의 손)	401만	10위 남자가 사랑할 때	197만
6위 여린	384만		

랭킹 엔터테인먼트

영화는 신민아, 조정석 주연의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주간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2위는 액션 판타지 영화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이 차지했다. TV는 KBS 2TV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가 차강재(윤박)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아이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시청률 28.8% (닐슨코리아 제공, 이하 동일)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KBS 1TV 일일드라마 ‘고양이는 있다’는 23%의 시청률로 2위를 기록했다. 음악은 악동뮤지션이 부른 ‘시간과 낙엽’이 1위에 등극했고 아이유의 ‘소격동’은 10위에 안착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TV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가족끼리 왜 이래	28.8%	KBS 2TV
2	고양이는 있다	23%	KBS 1TV
3	빠꾸기 동지	20.7%	KBS 2TV
4	마마	17.6%	MBC
5	KBS 9사뉴스	17.5%	KBS 1TV
6	개그콘서트	16.2%	KBS 2TV
7	청담동 스캔들	14.9%	SBS
8	모두 다 김치	14.5%	MBC
9	장미빛 연인들	14%	MBC
10	해피선데이	13.9%	KBS 2TV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관객	누적관객
1	나의 사랑 나의 신부	65만 4380명	144만 1892명
2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	42만 4452명	97만 9867명
3	제보자	29만 6863명	155만 5712명
4	메이즈 러너	16만 7647명	269만 7661명
5	노벨버 맨	15만 9301명	15만 9488명
6	애나벨	13만 2183명	88만 2504명
7	솔로유 비디오	11만 6816명	114만 304명
8	컬러풀 웨딩즈	10만 2342명	10만 6030명
9	비긴 어게인	5만 5134명	338만 8720명
10	타짜-신의 손	4만 1293명	401만 1799명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시간과 낙엽	악동뮤지션	5
2	손대지마	에일리	1
3	그게 나야	김동률	-2
4	틀	소유, 권순일, 박용인	-2
5	화장 지워	개코	진인
6	신혼을 못가	포스트맨	-2
7	로스트 스타즈	애덤 리바인	-2
8	홀	로이킴	1
9	당신만이	곽진언, 김필, 임도현	-1
10	소격동	아이유	-3

당신의 두뇌를 깨운다!
상식을 뒤집는 지상최대의 매직쇼

최현우 매직콘서트 더브레인

THE BRAIN

조기에매 전석 30% 할인 (10월24일 까지 예매시)

2014.11.08 OPEN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주최·주관: K-MAGIC PLAY 주관: CluPS service 문의 1577-3363 예매 인터넷 예스24 육신 티켓링크



[2013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작품상'

[2014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대상'
특별상 / 인기상 / 공로상 / 남-녀 신인연기상 등
연극부분 '전부분' 석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노치미

“이땅의 모든 아들딸들이 다 보는 그날까지...”

울다가, 웃다가

어느새 감동체험
스며든

100분 드라마!



문화일보홀

2014. 10.23(목)~12.31(수)

출연 김민정 박기선 김계선 지미리 문지원 장혜진 이정화 김영조 안재완 민두홍 이설희 김현아 이미선 이보람 김영아

작/연출 김용을 예술감독 신동일 기술감독 최재훈 프로듀서 정연식

제작 극단 GLOBE 극장 공연문의 02-764-4600 R석 : 50,000원 | S석 : 40,000원 | A석 : 30,000원



소비자 트렌드 변화, 구매욕구도 변화 시킨다

모든 사업분야에서 트렌드는 생명이자. 기업과 브랜드는 항상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새로워야 하며 신속하게 변화해야 한다. 트렌드의 중요성은 비단 패션, 헤어 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트렌드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사회 모든 분야에서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가 됐다.

2014 소비트렌드 '다크호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 2014'를 통해 올해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로 '다크호스(DARK HORSES)'를 선정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소비키워드는 △삼겹살, △직접 체험을 즐기는 몸이 답이다(Answer is in your body) △트렌드시장이 더 세분화 초치치, 틈새를 찾아라(Read between the ultra-niches) △이른아이 40대(Kiddie 40s) △융합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하이브리드 패치워크(Hybrid patchworks) △소비자가 모여드는 공간인 판을 펼쳐라(Organize your platform)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해석을 재해석하라(Reboot everything) △우연인 듯 탄탄한 시나리오로 어필하는 예정된 우연(Surprise me, guys) △관음시대, 스포 브러더스의 역습(Eyes on you, Eyes on me) △대놓고 직구로 말해요(Say it straight) 등이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스웨그 신드롬'을 꼽았다. 래퍼 지드레곤의 '크레이프'이란 노래에도 나오는 스웨그는 '빠가다'라는 뜻의 힙합 용어다. 정형화되지 않은 자기 교유의 멋과 느낌을 표현하는 현상이다. 쿨(Cool)과 달리 가벼움과 허세의 의미가 강하다. 사회에 지나치리만큼 경박한 말과 행동이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정치·경제의 아주 중요한 뉴스가 연예인 가십 기사와 동등하게 취급받는다. 패션에서도 패치워크 패션 열풍이다. 신제품도 '에어쿠션' 등 공기처럼 가볍다는 에어 시리즈가 많이 나오지 않는가. 퍼스널 네트워킹의 발달로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스웨그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도 변화시킨다.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자기만족과 생의 혁신을 즐기 위한 스웨그 현상이 세대 간 벽을 넘어 점차 퍼지고 있다. 스웨그 신드롬 속 소비자들은 직관적이고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일드 양키' 주목해라

트렌드의 특징은 돌고 돈다는 점이다. 나라에서 나라로 전파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트렌드는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토리세데 가운데서도 '마일드 양키'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마일드 양키'는 내면은 '양키'(날라리) 같지만 겉모습은 착실해 보이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신분 상승 욕구가 거의 없고 도쿄에서 출세하기보다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가족·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 이 '마일드 양키'가 일본 경제의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일드 양키'라는 용어는 일본의 대형 광고 회사 하쿠호도의 싱크탱크 '청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청년 연구자 하라다 요헤이가 지난 1월 '양키 경제 소비의 주역·신 보수층의 정체'라는 책을 펴내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마일드 양키'는 △주로 저학력·저소득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으며 주로 도쿄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에서 거주 △상승 욕구가 거의 없고 가족이나 친구를 중시하는 보수적 생활 패턴 △장거리 여행을 싫어하고 미니밴으로 집 근처를 여행하거나 동네 쇼핑몰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라다 소장은 일본 20대의 15~30%가량이 '마일드 양키'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책을 통해 주장한다.

'마일드 양키'가 소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소비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도 소비자로서의 '마일드 양키'의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혼다는 2013년 발매한 경차 모델에 화려함을 추구하는 '마일드 양키'를 의식해 차 앞부분에 도금 부품을 달았는데, 일반형의 판매량을 웃돌고 있다.

모바일 쇼핑이 대세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와 함께 소비패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패턴은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다.

통계청과 신용카드 업계의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거래액은 3조 1천 930억원이다.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0조 5천 830억원이었으니 모바일 거래액은 비중이 30%에 달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4.4% 증가했지만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2.3배가 늘었다.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출근하면서 장보는 사람들을 '출장족', 퇴근하면서 장보는 사람들을 '퇴장족'이라 부른다. 또한 소파에 기대 모바일로 쇼핑하는 사람들은 '민백족',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살펴본 후 모바일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모루밍족' 등이다.

모바일 쇼핑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은 무엇일까. 티켓몬스터의 상반기 모바일 매출을 분석해본 결과 전국 단위에서 인기를 끈 제품은 대형마트 상품권, 견과류, 떡볶이, 물티슈 등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매출액 9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천 부산 대구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위 매출 상품들을 살펴보면 약간씩 다른 특색이 나타났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은 매출 1~2위가 마트 상품권, 견과류 등이었고 대전, 광주, 울산은 동물원 입장권과 공연티켓이 상위권이었다. 특히 대전의 경우는 미용실 쿠폰이 상위권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정구 기자 bupdoni@

신용완 칼럼

기업 경영과 트렌드

얼마 전 모 연구소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공통적 활동은 7대 트렌드로 나누어 설명했다.

우선 '전략' 부분의 트렌드는 '쇄신'과 '모색'이다. 첫 번째 트렌드인 쇄신은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여 핵심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고 불리는 경쟁력 강화 방법이다. 두 번째 트렌드인 모색은 이중산업에서 신사업과 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헬스 케어와 신 에너지시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전략' 트렌드는 '재배치'와 '신시장'에 대한 역량 강화다. 세 번째 트렌드인 재배치는 중국이나 인도 등 기존의 글로벌 생산 거점의 여건이 변하면서, 선진국으로 생산 및 연구거점을 확대해나가는 상황과 관련된다. 대표적인 예가 하이얼인데 그들은 일본에 연구개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네 번째 트렌드인 신시장에 대한 역량 강화는 말 그대로 새롭게 등장한 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경영 방향을 재구성하며 공격적 진출을 펼치는 것이다.

마지막인 '경영 전략' 트렌드는 '연합'과 '융합'과 '저가'로 나뉜다. 다섯 번째 트렌드인 연합은 이중과 동종의 구분이 없이 새로운 협력구도를 형성해나가는 방식을 가리킨다. 나이가-애플, 아디다스-구글과 같은 협력 구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트렌드인 융합은 기술, 제품, 경영기간 등을 융합하여 창조적인 기업을 구축하려는 노력이다. 가령 GE와 IBM은 기존 사업에 빅데이터 분석을 연계하여 신사업을 도모함으로써, 단순한 1+1의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창조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트렌드인 저가는 저렴하면서 매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세계 시장의 흐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 역시 글로벌 경쟁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도전에 임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인터넷-PC의 환경이 이제 모바일 스마트 환경으로 바뀌면서 더 빠르고 역동적인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그에 맞는 서비스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다. 그러니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같은 분야의 기업 대 기업의 협력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의 기업과도 손을 잡아야 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조해내야 한다. 연구 기관과의 협력은 특히나 기술을 매매하거나 라이선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기업 또는 특히 괴물들의 특허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만 한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만물 인터넷 분야의 헬스 케어 산업의 서비스 결합화 부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에 스마트폰 등의 정보 기기를 결합하여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등 의료 서비스 산업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와 발맞추어 모바일 헬스 산업 역시 주목해야 할 분야 중 하나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것이 곧 살아남는 방법이다.

/경영칼럼니스트

“고요하면서 세련된 美... 세계 패션디자인 업계 주목”

패션 디자이너 이정선

패션만큼 트렌드에 민감하고 앞서 가는 분야는 없다. 봄에 겨울 의류를 겨울에 봄 의류가 출시될 만큼 변화의 속도도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아쉽게도 패션은 유럽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패션 선진국인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이정선 디자이너이다.

이정선 디자이너는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런던에서 열린 ‘런던패션위크’에 참가하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런던패션위크’에는 이정선 디자이너 외에도 최유돈, 허환, 표지영 디자이너가 공식 일정에 참여해 역대 대회 중 한국 디자이너가 가장 많이 참가했다.

당시 행사 기사를 소개했던 이브루 스탠더드지는 이정선 디자이너에 대해 “그의 컬렉션은 세련되고 고요한 멋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하지 않은 미학과 절제된 우아함을 섞고 있다”며 그를 상업성과 혁신성 간의 조화와 균형으로 정평이 나있는 런던패션위크의 아이콘으로 평가했다.

패션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트렌드 선도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정선 디자이너. 여기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세계적 디자이너 이정선의 패션 성공이야기를 들어 본다.

“시골 처녀서 유명 디자이너로

디자이너 이정선. 그는 현재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다. 한국 이름은 이정선. 영문이름은 Jackie JS Lee다. 작은 시골인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아주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96년 충남대학교 의류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당시 IMF 여파로 디자이너로의 취업이 매우 어려웠다. 우회로로 선택한 것이 패턴커터(모델리스트)로 첫 직장을 잡고 4년의 시간이 흐를 즈음, 권태기가 찾아왔다. 전환점이 필요했다. 그러다 우연히 참가하게 된 모델리스트 컨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부상으로 해외 패션학교 탐방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중 런던의 Central Saint Martins를 방문하고 바로 매력을 느껴 속전속결로 유학을 결심했다. 2005년 Central Saint Martins의 단기코스인 ‘Innovative Pattern Cutting’코스를 밟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 어학연수를 1년 받은 후, 패턴단기코스를 공부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르바이트 삼아 패턴커터로 일한 회사에서 워크퍼밋을 제안 받았다. 취업비자를 받아 1년 정도 지냈을 무렵 문득 디자이너로서의 꿈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Central Saint Martins 여성복 석사과정에 지원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졸업 후 ‘JJS LEE’라는 브랜드를 런

칭하고 현재 런던패션위크에서 꾸준히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J.JS LEE

2010년 3월에 런칭한 J. JS LEE(Jackie JS LEE의 약자) 대표점, 디자이너겸, 매니저겸, 모든 잡일을 담당하고 있다. J. JS LEE는 매우 소규모의 디자이너 하우스다. 운이 좋게도, 졸업과 동시에 런던의 해롯 백화점의 비즈니스 서포터와 계약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다. 스튜디오 매니저 한사람, 샘플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시는 봉제 선생님과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전부다. 이정선 대표는 “회사라고 부르기도 창피한 규모이지요. 하지만 저희는 매우 훌륭한 인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턴이라고 단순한 작업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추 달고, 똑딱이 달고, 손바느질에 가보원단 자르는 정도로 그들의 수준을 판단한 후, 바로 맞춤교육에 들어갑니다. 패턴을 잘하는 친구에게는 원단을 자르게 하거나 디자인 작업에 참여시키고 디자인이 좋은 친구에게는 패턴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죠. 인턴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 배우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게 되거든요. 리서치에서부터 디자인, 패턴, 원단커팅, 제작, 도식화, 패션쇼까지, 모든 부분에 투입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첫 컬렉션은 한 단군데의 매장뿐이었지만 두번째는 3군데, 현재는 12군데 정도다.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중국, 홍콩, 타이랜드, 타이완, 이태리,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두바이, 우크라이나 등등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매해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영국패션협회와 한국문화원의 지원덕이다.

2010년 J. JS LEE가 British fashion council에서 선정한 뉴제너레이션에 선정되어 런던패션위크에 바로 입성을 할 수가 있었다. 뉴제너레이션에 선정이 되면 비즈니스 멘토링, 약간의 현금과 장소비가 지원 되고, 선정만으로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리게 됐다. 이때표는 “정말 운 좋게 7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뉴제너레이션 다음 단계인 패션 포워드라는 지원을 받아 두번의 컬렉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션 포워드는 신인디자이너들을 글로벌하게 키우기 위해 더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지원됩니다. 총 9년을 지원 받아 총 9년의 런던패션위크를 끝낸 상태입니다. 현재 기록상 최장 지원 디자이너랍니다”라고 말했다.

“눈물·콧물 속~ 땀 성공전야

이정선씨는 런던에서 패턴커터로 일을 하고 있을 즈음 “런던은 나이도 몸매도 경력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과감히 Central Saint Martins 석사과정을 지원하게 됐다. 워낙에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테스트 한다는 생각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탈락 합격 여부를 했고 그러자 나이, 연봉 등으로 고민이 됐지만 결국 석사공부를 시작했다. “인생에 한 번쯤은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정말 눈물 콧물 속 땀 석사과정이었다. 그녀는 “늘 꿈은 작게(?) 가지고 그림 성취하고 다음 도전을 하고, 이런 걸 즐기는 스타일이라 석사과정에서도 그녀의 꿈은 매우 작았다.

그녀는 “석사과정은 졸업도 어렵습니다. 또 총 60명 정도 되는 학생 중 20명 정도만이 런던패션위크 중에 올리는 패션쇼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쇼에 올라가는 건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쇼에 올라가는 학생 리스트에 제 이름이 있었고, 상을 받을 수도 있는 최종 파이널 리스트에 오른 제 이름을 확인했을 땐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성취감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양인에게 상을 준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롯 어워드 가 발표되고 제가 그 당시자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 일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취업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British Fashion Council에서는 뉴제너레이션에 지원을 해보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해롯에서는 제 전 컬렉션을 구매해 가면서 회사를 등록하고 가격을 매기는 등 비즈니스적인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영국패션협회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자연스럽게 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오래 활동하고, 제가 없더라도 살아있는 J. JS LEE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브랜드를 알리서 명품으로 만들고 싶은 것. 그리고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꼭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만드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성공했다는 것이겠지요.”라며 비전을 밝혔다.

이정선 대표는 “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할 정도로 훌륭한 디자이너는 아닙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큰 이슈를 만드는 디자이너도 아니고, 홍보를 잘하는 디자이너도 아니고, 돈을 잘 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옷에는 제 영혼을 집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옷에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요소를 넣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저의 색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주위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한다면, 언젠가는 스스로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놓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경구 기자 budpon@



“내 인생 바꾼 해롯 어워드 수상... 일상 속에서 영감”

Q. 현재 직업을 선택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A. ‘현재 직업을 선택 후 기억에 남는 일과 힘든 일’이라는 질문에서 ‘현재’의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패션계에 들어온 이후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디자인쪽으로 발을 돌린 세인트마틴 석사과정부터라고 해야 하나? 터닝포인트가 꽤나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현재가 언제든 기억에 남는 것과 힘든 일은 있었으니까요.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석사과정 중, 모든 걸 포기할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었지요. 그것도 패션쇼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요. 그때 교수가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열흘 동안 런던의 낯선 병원에서 입원하고 퇴원했을 땐, 무서운 루이스월슨의 따뜻한 위로로 학교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머리에서 잊혀 지지 않을 Central Saint Martins Graduation show의 해롯 어워드 수상이 제 인생을 크게 바꾼 터닝포인트중 하나이지요.

석사과정 후 홀로서기를 한 후, 4번의 컬렉션을 했을 즈음 다시 한번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바이어가 결제를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납품하면 결제를 못 받고, 오더가 취소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위협에 다다르게 됩니다.

공정, 원단업체, 쇼에 섰던 모델에이전시들로부터 결제 독촉장을 받다가, 결국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나서는 비즈니스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SS14컬렉션으로 지원한 LVMH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에 최종 30인으로 선정되면서, 제겐 아이들과 같은 거대 디자이너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샤넬, 발렌시아가, 마크제이콥스, 겐조, 쉐린 등을 책임지고 있는 엄청난 디자이너들.

꿈의 디자이너를 만나고, 최종 30인으로 선정이 되면서 점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난 가을겨울, 9월에 끝낸 봄여름 컬렉션이 런던 현지 언론에 메인으로 커버가 장식되면서 역대 최대의 기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Q. 작품이나 디자인에 대한 영감은 어떻게 얻으며, 스토리는 어떻게 만드나

A. 매 시즌을 준비하면서 초기 영감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든 단계입니다. 영감을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매번 시즌의 승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 영감을 받는 순간은 예상과 달리 잘나에, 순간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에서, 일상에서, 도서관에서, 그림에서,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자연에서, 다양한곳에서 오게 됩니다. 주로 저의 상황에 맞는 스토리들이 컬렉션의 메인 스토리가 되고는 하지요.

예를 들어, 지난 가을겨울 컬렉션은 ‘휴식여행’이라는 주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리서치를 할 시간도 없고, 생산에 치여서 일상이 매우 바빠 돌아갔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비가 오는 어느날, 지친 정신과 몸을 달래러 우산을 쓰고 커피를 한잔 사러 가는 도중, 진흙바닥에 찍혀있는 자동차 바퀴 모습을 보고 ‘차라고 비오는 날 아무도 없는 녹색이 가득한 깊은 숲으로 여행을 하려면 갈수 있다면’이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곤 상상을 하기 시작했지요. 비는 멈춰있고, 물기가 남아있

는 들판에 텐트를 치고 의자에 편히 기대어 하늘을 보니 저렇게 맑고, 짙은 녹색의 나무들이 보입니다. 텐트의 파이핑, 텐트의 구조를 표현하는 오버사이즈 코트, 담요를 연상시키는 니트에 하늘과 짙은 녹색을 담은 칼라팔레, 진흙에 남아있는 자동차 바퀴모양의 원단개발과 니트들, 이런식으로 컬렉션이 구성이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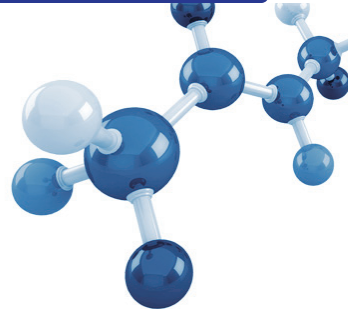
매시즌의 스토리는 다릅니다. 최근 봄여름 컬렉션은 바누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런던의 아티스트 신미경 작가님의 작품과 책속에 끼어있는 말린 꽃에서 영감을 받아 진행이 된 컬렉션입니다.

Q. 가장 보람 있었던 활동은

A. 전 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한국에 들어갔을 때, 모교 교수님께서 특강을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애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수줍음만 가득한 어설픈 강의를 했었지요. 작년에 다시 방문해서 특강을 했을땐,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다 얘기해주자. 그들이 궁금한 건 다 대답해주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었습니다.

후배들의 눈빛을 보고나니 마음이 설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받았을 땐 “아 내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대 출신의 의류학과, 못난이 몸매와 영어도 못했던 의류학과 학생 중의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저였기에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자신감이랄까 부여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서 바이오 산업으로 ‘제2 도약’



에이스하이텍

주식만큼 소문과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도 없다. 주식은 말 그대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다. 주식을 알면 그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상장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에이스하이텍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가 1월 20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에이스하이텍으로 2012년 말 517원에서 지난해 연말 2110원으로 308.1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토바이오파마’ 인수로 기틀 마련

에이스하이텍은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반도체 및 LCD 장비부품 제조, OLED 커버글래스 식각 등의 전자부품 생산업체다. 2010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으로 반도체 세라믹 및 IT 단말기기(GPS 단말기 등) 제조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업 트렌드 변화와 함께 최근 바이오산업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이스하이텍은 지난 1월말 일본 바이오업체 교토바이오파마(KBP)를 인수했다. 지분 100%와 경영권을 인수했다. KBP는 일본 바이오벤처기업으로 2000년대 초 설립된 일본 아리젠제약이 전신이다.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장비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던 업체가 단순히 바이오 사업 기반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에이스하이텍은 경영권 인수 계약으로 교토바이오파마가 보유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WAP-8294A2, WAP-1, aRP/LG710, aRP/LG52)의 소유권과 라이선스도 함께 획득하게 됐다.

10여년의 개발기간을 거친 슈퍼항생제(WAP-8294A2)를 포함해 황반변성치료제(LG525), 생리불순치료제(LG710) 등의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특히 슈퍼항생제는 슈퍼박테리아 메타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을 비롯한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을 치료할 수 있는 슈퍼항생제로서, 현존하는 최고의 항생제로 일컬어지는 반코마이신보다 약 10~30배의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존 항생제와 화학적 구조가 달라 교차 내성이 없다. 이 슈퍼항생제는 이미 국내 유수 제약사와 라이선싱 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생리불순치료제는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진통제 중 생리불순에 대한 치료를 하는 유일한 약물이다. 이미 일본에서 환자를 통해 임상실험에서 뛰어난 효능을 검증 받았고 국내 유수제약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황색포도상구균 치료제 ‘로티립신’

에이스하이텍의 투자는 지난 17일 교토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로티립신(KBP-1404)의 연구 결과를 감염증치료제학회(ICAAC)에

서 발표하는 계기를 거뒀다. KBP의 발표 제목은 ‘메티실린에 저항성을 지닌 황색포도구균을 대상으로 한 로티립신의 약력학·약동학적 효과’였다. KBP는 이번 발표를 통해 로티립신 생체 외 실험에서 kg당 0.04~0.3mg의 작은 용량에서도 강력한 항균 효과가 관찰됐고, 이를 통해 인체 임상 예측 가능한 약력학·약동학적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논문은 다국적 제약사에 효과적인 신약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약물 동태학·약물역학(PK-PD) 전문 연구기관인 ICPD와 함께 진행된다.

교토바이오파마 대표인 겐스케 도코로는 “우리는 로티립신의 약력학·약동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 물질이 매우 안전함을 확인했고, 이로써 후속 연구 동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로티립신은 새로운 황색포도상구균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로티립신은 70년의 항생제 개발역사에서 반코마이신 이래 3번째로 임상에 오른 천연 항생제 신약 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의 한국 시장 권리는 2011년 기술이전을 통해 녹십자가 가지고 있다.

에이스하이텍은 교토바이오파마 지분 인수이후 2015년 하반기 글로벌 판매 라이선스를 획득, 2016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5조 시장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높은 슈퍼박테리아 2010년 일본에서 연해 감염으로 9명이 숨졌고 2011년 유럽에서 체소 등을 먹은 수십여명이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매년 2만여명 이상이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5조원 이상의 시장규모가 예상되고 있지만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개발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최근 국내 연구진의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개발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이즈 치료제 분야에 세계적인 권위자인 한인 과학자 최우백 박사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설립한 폼신테시스는 올해 초 세계 처음으로 슈퍼박테리아 치료제를 상용화했다. 최박사가 개발에 성공한 슈퍼박테리아 치료제는 기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그림음성 세균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폐렴과 요로감염, 피부감염 등에 효능이 있다.

최박사는 1998년 에이즈치료제 ‘트루바다’ 개발 주역으로 글로벌 제약사 머크에서 일하다가 2000년 이수화학의 투자를 받아 미국 애틀랜타에 폼신테시스를 설립했다. 이수화학은 현재 폼신테시스 지분 19.03%를 보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법정 슈퍼박테리아를 현재 1개에서 오는 12월 6개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이외에 일본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아시네토박터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등 5개 세균을 오는 12월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미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균, 즉 슈퍼박테리아 감염의 진단, 치료 등으로 소요되는 의료 비용과 사회적 손실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따른 사망환자는 연간 에이즈 사망하는 보다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 감염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만2천928건에서 2012년 4만4천174건, 2013년 8만955건, 2014년 6월말 현재 4만1천883건으로, 최근 4년간 감염건수가 3.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가 남용되면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이 최고 수준이어서 슈퍼박테리아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병원들의 항생제 처방량은 2008년 26.9DDD(성인 인구 1000명당 의약품 일일 소비량)에서 2012년 28.4DDD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 OECD 최고

처방량 증가와 동시에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이 늘었다. 5종의 항생제 내성균 중 2010년 일본 병원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켜 9명을 숨지게 한 ‘이미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내성률이 모든 병원에서 증가했다. 병원별로 보면 종합병원은 37.9%에서 69.5%, 병원은 26.5%에서 59.3%, 개인의원은 6.6%에서 48.1%, 요양병원은 39.3%에서 68.4%로 증가했다.

노인환자가 장기간 머무는 요양병원은 4종류의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이 모두 다른 병원에 비해 높았다.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은 종합병원보다 20% 이상 높았으며,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은 13.4%, 세콕시틴 내성 폐렴막대균은 12.1%, 이미페넴 내성 녹농균은 13% 높았다.

강력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인 다제내성균 의료감염병 신고도 2011년 2만2915건에서 2013년 8만944건으로 3.5배 늘었다.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감염증은 9.3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감염증은 47.6배,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은 1.3배,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은 1.7배, 카바페넴내성장세균속균종(CRE)감염증은 3배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들에서도 병원 내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에이스하이텍 장석수 대표는 “현 제조업체 한계를 실험하고 새로운 신사업에 도전하기 위하여 비정공분 아인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스하이텍(주)는 전통적인 제조업체이므로 제3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엉뚱해 보일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량이 있는 바이오전문 인력들을 섭외하였으며, 이미 상당부분 연구성과를 내고있는 기업(KBP)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임상(1상)이 끝난다면 충분히 바이오기업으로써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6개월 이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그시점이 되면 바이오기업으로의 전환을 알리고, 국내에 몇 안되는 신약개발업체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budpon@

“매일 기다려지는 편지 한통의 감동... 더 좋은 세상 만들죠”

‘따뜻한 하루’ 김광일 대표

매일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아본다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가던 꽃무늬 손 편지의 추억이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있게 마련이지만, 정보화시대를 맞아 그 맛은 추억 속으로 기억될 뿐이다.

카카오톡과 휴대폰의 문자 등 단문으로 서로의 안부를 실시간 주고받는 요즘 기다림의 미학이 갈급한 시대에 매일 감동있는 편지를 보내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다. 10여년 전부터 이메일로 매일 아침 편지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많은 누리꾼들에게 인상 깊게 각인된 온라인 풍습이다. 감동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행동까지 변화시킨다.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 아픈 사연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연까지 덧붙여진다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이 조금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김광일(41세)씨가 운영하는 ‘따뜻한 하루’가 바로 감동을 넘어 개인의 힐링과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미디어로 주목받는 이유다.

따뜻한 하루(www.onday.or.kr; 070-4960-0498) 김광일 대표는 지난 3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

고, 4월에 런칭한 이메일 감동프로젝트다. 김광일씨는 10년 동안 NGO 단체에서 나눔을 실천한 경력을 살려 콘텐츠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씨는 “우리 법인 잔고에 없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며 따뜻한 하루의 목표를 제시했다. 즉, 조직성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초심은 사라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기에 지원받은 돈은 목적사업에 최대한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따뜻한 하루는 그동안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돕는데 집중했다.

최근 명진이라는 아이는 장애정도가 심해 후각만 남았는데, 수술관계로 후각마저 잃을 수 있다는 사연을 접하고 따뜻한 하루에서 사연을 접한 뒤 기금을 모아 전달했다. 이 사연은 SNS를 통해 전파됐다. “작은 기적이 큰 기적을 이룬다는 말이 있죠. 명진이도 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죠. 명진이가 일어난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명진이 글 잘 보았습니다.”

같은 뇌손상 장애아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님 마음 이해하고 하루 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낼 줄 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소용없이 들리지 않고 좋은 것이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고생하며 명진이 옆을 지켜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다” “병든 자식이라 저도 시설 보내라는 말 집안

“NGO단체 경력 살려 서비스 시작 나눔에 충실... 법인 잔고 0’ 목표 복지·교육에 활용 사명감 느끼죠

식구들에게도 저의 큰맘도 하던데 아이 옆에 부모님이 계신 것으로 명진이도 마음으로나마 느끼고 기운내리라 생각합니다.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등 명진이를 위한 응원 댓글이 100개 이상 이어졌다.

따뜻한 하루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노인복지 시설에서도 유효하다. 매일 매일의 사연을 시설 이용자들에게 구연동화처럼 읽어준다는 사연도 전해진다. 김씨는 “따뜻한 하루는 이미 교육용, 사회복지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명감과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직원을 거느리기도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순수하다”고 운영전략을 소개했다.

한편 따뜻한 하루는 여행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평생 자식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노인세대를 위한 효도관광이 그것이다. 지난 9월에는 중국에서 3박 4일 동안 20여분의 어르신들을 모시



고 만리장성과 베이징 시내 유적지 등을 다녀왔다. “효도여행은 어르신들의 ‘자신’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식을 위한 삶에서 자신을 위한 충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일수록 더 넓은 세상을 보셔야 노년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요?”라며 김씨는 반문한다.

또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귀여운 것을 보면 호기심이 높아져 아이들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일본 히로시마 대학 히로시 니토노(통합 문리대학원)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귀여운 동물이나 아이들의 모습도 전하고 있다.

“얼마 전 나간 따뜻한하루 편지 중에 붕어빵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께서 배고픈 할머니에게 붕어빵을 200원에 드리기 위해 ‘3개에 1000원, 1개에 200원’이라며 나눔사연을 지속적으로 전하셨습니다. 또 효심을 잃지 않도록 부모님을 생각하는 스토리를 전하셨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리굽쇠의 진동이 전해지듯, 나눔의 감동도 바이러스가 되어 전염된다. 익명화가 대체인 시대, 인간성 상실과 소외의 시대에 따뜻한 하루가 새로운 대중문화의 전파매체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영복 기자 ybhong@

텍스트란 필러는 성형 혁명을 가져왔다

조강선 웰빙클리닉 원장

순수 텍스트란 필러와 텍스트란+PMMA필러의 등장으로 인해 앞으로 성형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텍스트란이란 누구나가 병원에서 쉽게 접하는 포도당 주사 안에 들어 있는 포도당의 단순 중합체로 혈액을 대신하는 혈장제로 사용되기 오래 됐다.

새로 등장한 텍스트란 필러는 텍스트란을 원료물질로 사용한 텍스트란 중합체가 주요성분이다. 그런 만큼 모든 필러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 여건인 생체적합성 및 안전성 부분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란 물질도 기존필러인 히알루론산과 마찬가지로 친수성이며,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는 '물풍선' 모습이어서, 필러로서 매우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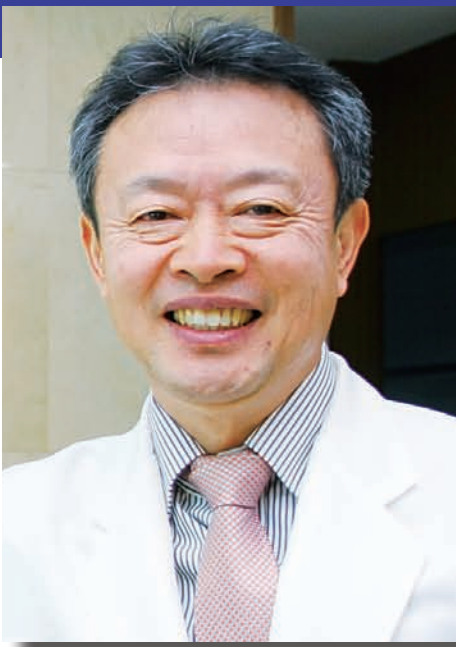
텍스트란 필러의 등장이 성형혁명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근거는 시술의 간편함 및 용이성과 그 효과의 탁월함에 있다. 즉, 기존의 필러와는 다르게 목표로 하는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쉽고 그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 할 수가 있는 효과의 탁월함 때문이다.

현재 출시돼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순수 텍스트란 필러와 텍스트란+PMMA필러 두 종류다. 순수 텍스트란 필러가 생체내로 주입되면 조직반응에 의해 주입물질의 외곽에 콜라겐캡슐이 만들어지고 캡슐 안에서는 아무런 조직반응이 없는 채로 텍스트란 물질이 물풍선 형태로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 부피효과가 지속된다. 마치 시술의 결과가 액상보형물을 이식했을 때와 비슷하다.

텍스트란+PMMA 필러가 생체내로 주입되면 조직반응에 의해 주입물질의 외곽에 콜라겐캡슐이 만들어지면서 캡슐 내부에서는 텍스트란은 분해되면서 콜라겐이 형성되어 내부가 콜라겐 조직으로 채워지게 된다. 즉 콜라겐 조직 보형물 형태로 되면서 그 부피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시술 결과가 고형보형물을 이식했을 때와 비슷하다.

액상보형물은 촉감이 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볼과 같이 부드러운 부위에서 주로 사용하고, 고형보형물은 촉감이 보다 더 단단한 부위 때문에 이마나 코와 같이 뼈가 만져지는 부위에서 주로 사용된다.

텍스트란 필러는 간편한 시술이면서도 기존 필러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안면윤곽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술분야에서 수술의 효과를 대신하기에 충분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어느 면에서는 수술만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결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절개를 필요로 하는 보형물



이식 수술의 결과에서처럼 효능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텍스트란 필러는 안면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성형외과들 사이에서는 산부인과 영역인 여성들의 질내성형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비노기와 영역에서도 이미 그 효과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남성 음경의 몸체에 해당하는 남성확대용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으며, 벌써 수만 명이 시술을 받은 상태다.

특히 귀두확대용으로도 임상시험을 거쳐서 식약처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귀두는 표면엔 진피조직이 없는 이유로 필러 등의 이물질이 주입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안전에 취약한 곳이다. 그런 만큼 식약처의 귀두 확대용 사용승인은 새로 등장한 텍스트란 필러의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또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귀두 확대의 성공적인 시술 및 수술방법이 없었다는 표현이 적합한 상황에서, 텍스트란 필러를 사용한 귀두 확대의 성공사례가 이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텍스트란 필러는 각종 질병 등에 치료용으로도 쓰인다. 소아에서 선천적으로 방광의 소변이 콩팥 쪽으로 역류하는 기능 이상으로 인해 신부전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 본 필러물질로 주입해 치료를 하는 방법이 최근 임상시험으로 성공하기도 했다. 또한 요실금의 치료에서도 효과적인 사용이 기대되고 있다.

한의학계 트렌드 ‘다이어트·성형·탈모치료’

최재영 세화한의원 원장



올해로 한의사로서 임상을 한지 10년이 됐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이 한의원의 모습들도 많이 변했다.

현대인들이 미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의사들도 과거처럼 치료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 관련된 것들에 집중하게 됐다. 요즘 한의학의 트렌드는 한방다이어트, 한방성형, 한방탈모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방다이어트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되어서 특화한의원 뿐만 아니라 동네 한의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진료하는 과목이 됐다.

한방다이어트는 한의학적 이론인 오장육부의 불균형 상태와 환자 개개인의 체질을 판단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초창기 한방다이어트는 마황 같이 입맛을 떨어뜨리는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여 음식 섭취를 줄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다. 하지만 이런 치료 방법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요요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은 배출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치료방법이 많이 바뀌어 가는 추세다.

더 나아가서 식단 관리, 운동 관리도 함께 병행해 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3개월 만에 20kg정도 감량을 했는데 배출해 주는 한약치료와 함께 식단조절, 운동요법도 함께 병행해서 성공 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생활을 바꾸면서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요요현상 없이 유지를 잘 하고 있다.

한방 성형은 5~6년 전부터 활성화 되기 시작한 트렌드다. 양방 성형의 부자연스러움과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을 내세워 치료해 왔다. 한방 성형은 크게 정안점과 특수침(매선침)을 활용하여 얼굴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하여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임상에서 정안점을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노화로 인해 떨어진 얼굴의 탄력이 개선됨으로써 안색이 맑아지고 처진 피부가 올라가며 질은 주름이 없어지든지 없어짐으로서 얼굴이 젊게 보여 진다.

정안점의 아쉬운 점은 양방 성형처럼 바로 변화가 오기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좋아지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꾸준히 시술을 받아야 좋아진다.

우리 한의원에서 올해로 만 81세 되신 할머니 환자분이 2년 6개월 전부터 정안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맞으셨는데 처음에는 안색도 안 좋았고 이마에 굵은 주름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안색도 맑아지고 거의 모든 주름이 없어지든지 없어져서 60대같이 보인다. 당연히 얼굴 표정은 자연스럽다.

임상에서 정안점과 함께 얼굴의 리프팅을 위해서 특수침을 많이 활용한다 특수침은 특수 고안한 인체에 무해한 약실을 혈자리에 삽입하는 치료법이다. 약실이 몸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혈자극을 주기 때문에 신진대사와 면역력증진, 주변조직의 강화, 피부 탄력 증진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특수침을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치환에 많이 응용했다. 지금은 처진 피부를 올리든지, 팔자 주름을 치료하는 것으로 응용 범위를 넓혔다.

피부치료를 다년간 해본 결과 특수침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얼굴에 탄력이 좋아야 한다. 탄력이 떨어지는 분은 정안점 치료를 먼저 받은 후 탄력이 개선된 이후에 특수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한방 탈모는 한의원보다는 화장품업계에서 먼저 많이 활성화됐다. 한약재를 함께 활용하여 샴푸나 두발에센스 같은 형태로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한의원에서도탈모를 진료영역에 넣는 곳이 늘고 있다. 한방 탈모 치료의 장점은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오장육부의 불균형과 몸에 분포되어 있는 열상태의 발란스를 개선 시켜서 탈모를 좋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치료 후에는 탈모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건강해진다.

한방 탈모영역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치료 할 수 있는 탈모 유형과 증상들이 더욱 많이 개척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미술은 상품이 되고, 상품은 미술이 되고

손태선 컬처칼럼리스트



컨버전스, 콜라보레이션, 퓨전... 현대의 미술은 미술로서의 상품인가 아니면 상품으로서의 미술인가. 사실 예술은 실용적이면 더이상 예술이 아니다. 실용성 없는것 하지만, 그것을 성찰하며 치유되고 삶의 부분이 되는 것. 그러나 요즘 미술 세계의 트렌드는 이를 뛰어 넘어 실용적이기까지 하다.

일본에 사이타마현 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 논밭과 마을을 지나면 '무라카미 타카시'의 회화 스튜디오가 나온다. 회화를 제작하는 스태프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무라카미의 이름을 걸고, 창의력을 발휘할 여지는 전혀 없는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한다. 물론 회화의 아이디어는 무라카미로부터 나왔고, 무라카미의 지휘 아래다. 이러한 스튜디오는 도쿄를 비롯해 뉴욕에도 있다.

그를 가장 널리 알리게 된 일, 또는 그로 인해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게 된 일이다. 그것은 바로 루이비통과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다. '모노그램 캔버스' (네 잎의 꽃모양과 다이아몬드 모양 그리고 이니셜LV 모양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루이비통의 상징적 패턴) 라는 제품 위에 무라카미 다카시가 디자인한 패턴이 들어간다. 3종의 디자인인데 추가된 무늬는, 흰색 또는 검정 바탕에 알록달록한 색채를 사용한 '멀티 컬러' 라인 인데 인기를 끌며 루이비통의 정식 라인이 되기도 했다.

무라카미는 반대로 이 패턴을 이용해 자신의 회화 작품에 삽입하여, 작품이 상품이 되고 상품이 작품이 되는 모호함(?)을 지닌 새로운 것을 탄생시켰다. 루이비통 가방 위에 무라카미의 작업이 들어 가면서 단순한 명품이 아닌 예술성을 겸비한 명품이 탄생한 것인지, 아니면 무라카미의 작품 위에 루이비통을 차용하면서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닌 명품 예술품이 된 것인지.

이같은 행보는 우리 나라 작가 또한 예외가 아니다. '육십원' 같은 작가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물론 거대 기업과 함께한 콜라보레이션은 아니지만, 원래 작가이고 자신의 작품을 상품 속에 무늬로 넣으면서 가방, 다이어리 등의 팬시 용품을 만들고 독립된 스토어를 오픈 함으로서 아트 상품이라는 입지를 굳히며 많은 작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현대의 미술에서 장르의 경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 동양화와 서양화를 구분하는 대신에 '회화'라는 명칭으로 정해지고, 사진 위에 페인팅 작업을 하거나, 페인팅한 것을 다시

사진을 찍어 작품화 하는 작품도 생겨 나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적 융합이라는 거대 흐름을 타며 도달한 현상이다.

다른 학과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 본다면, 컴퓨터의 힘을 깨달은 일부 인문 학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의 장점을 생각해냈다. 인문 과학에서의 컴퓨터 연구(넘버 크런칭 number crunching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계산하는 것)는 인문학과 컴퓨터 공학과의 융합을 꾀했다.

또한 미술은 정치적인 폭발력을 지닌다. 현재 열리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 에서 전시 예정 이었던 '홍성담' 작가의 작품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 한다는 이유로 작품이 일부 수정 되었으나 결국 전시되지는 못했다. 미술은 사회적 문제에 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도록 하기도 하면서 정치와의 컨버전스를 꾀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이 과학을 보충한다. 정치를 논한다. 상품이 된다. 미술은 형식적인 기본 단위가 모두 해석이 가능한 기호는 아니다. 형식에 의해 작동되는 것은, 더욱 근본적인 의미 작용의 차원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잘 보지 않는다.

어쨌든 현대 미술은 미술적 수단으로서 다른 제3의 어떤 것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 가능성은 너무나 무한하다. 그래서 어설피프린. 그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

각각의 것이 지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생기듯이 미술세계 에서도 그렇기를 기대한다. 미술이 상품이 되고 상품이 미술이 되는 합리적인 현상처럼.

법률서비스, 전문화와 함께 마케팅도 필요

박병규 변호사 (법무법인 단천)



1995년까지 사법시험을 통하여 한해 300명 정도의 법조인을 선발하다가, 1996년에 500명으로 그 수를 늘린 후 매해 100명씩 합격자 수를 늘려 2001년에는 약 1,000명의 법조인이 선발됐다.

2009년부터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로스쿨 1기가 2011년부터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약 1,500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법조시장에 등장하여,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합격자를 통한 법조인과 공존하게 됨으로서 법조계, 특히 변호사업계는 최근 20년간, 특히 10년간 변호사 수의 급증이라는 엄청난 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법조인 선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는 변호사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었고, 변호사 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존의 수동적,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엄청난 대도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데, 특히 전문화와 공격적 마케팅이 각급의 변호사 업계의 대표적인 트렌드다.

먼저 전문화와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변호사업계는 의료업계와 달리 극히 얼마전까지 전문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었다. 즉 의사들의 경우 안과외과는 눈만, 이비인후과 외과는 귀와 코와 인후관, 피부과외과는 피부만을 전문으로 하여 진료를 하는 것과 달리, 거의 모든 변호사들은 일부 대형로펌의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소송과 관련된 제반의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그 법률서비스의 질이 보통의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고, 나아가 의뢰인들이 치러야 하는 가격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성실하고 열정이 있는 변호사들은 소위 '전문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2014년 현재에는 이혼전문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 회생및파산전문 변호사 등등의 명칭 아래 자신의 전문분야 위주로 소송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각급의 변호사 시장의 대표적 트렌드라 할 것임니다.

법무법인 단천의 경우도 지적재산권 전문과 부동산 전문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 전문화의 길을 가게 선택해 변호사 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과 관련해 법무법인 단천은 2008년경부터 Microsoft Corporation을 대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의 길을 가기 시작하여, (주)한글과 컴퓨터, AVEVA Solutions Limited, Agilent Technologies Inc., ANSYS, Inc., Siemens PLM software Inc, National Instruments Corporation, MathWorks 등을 대리하여 지적재산

권 특히 저작권 관련 전문변호사로서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 전문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단천의 전신인 현틀 합동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던 2008년경부터 부동산관련 소송에 심혈을 기울였고, 2011년에는 공인중개사 양성 및 중개 및 경매컨설팅 전문법인인 (주)정상의 공인중개사들과 손을 잡고 특히 경매와 관련된 법적 쟁송 등에 주력하였으며, 2012년에는 (주)지지옥션과 함께 지지탑경매컨설팅을 만들어 경매에 관련한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또 단천은 부동산 전문으로서, 특히 최근에는 경매 그 중에서도 명도부분, 즉 경락인인 경락부동산을 온전히 명도받음으로서 경매과정이 사실상 종결되는 명도부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력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최근 20년, 특히 최근 10년 동안 변호사 수의 급증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대응책으로 전문화와 함께 능동적, 적극적 마케팅이라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되었다. 현재 변호사업계는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사건수입의 어려움, 수입료의 할인경쟁 등으로 무리한 사건수입 및 소송의 질의 저하 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의 트렌드에 맞추어 자신만의 전문변호사의 길을 찾고 나아가 적극적, 능동적 마케팅까지 경주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일반인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저가히 합리적인 변호사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건강한 생활·식습관·몸매 만드는 맛있는 캔디

산콤코리아 ‘스위스 다이어트 키트’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은 말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살찌기 쉬운 계절이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체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소모가 많아 배고픔도 빨리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몸은 체지방을 축적하려고 하는데 이 때 유난히 식욕이 증가하기 쉽다. 이 시기에는 왕성한 식욕을 누르며 다이어트에 임하기가 쉽지 않다.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무조건 자제하기보다는 칼로리가 적고 지방 함량이 낮은 음식을 먹으며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다.

비만은 병이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과도하게 켜 상태만을 일컫는 게 아니다. 비만은 염연한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비만을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했다.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연구팀에서는 고도비만일수록 다양한 질환 발병률이 높아져 수명이 최대 14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비만을 병으로 인식하고 적극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만을 방지할 경우 뇌종양,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과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될 때까지 비만을 관리하지 않으면 특히 더 위험하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비만 유병률은 1998년 25.0%에서 2012년 34.2%로 4년 새 9.2%포인트나 증가한 상황. 비만 관리는 신체활동과 영양섭취에서 출발하지만, 노년기에는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비만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지키기 쉽지 않다.

식이조절·운동은 필수

먼저 조깅 등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병행해 기초대사량 끌어올려야 한다. 선선해진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운동 중 하나는 바로 조깅이다. 조깅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시속 8km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며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할 경우, 체지방 감소는 물론 기초 체력 단련에 도움을 준다.

초반 5~10분은 가볍게 걷듯이 출발하도록 하고 초보자라면 달리기와 걷기를 번갈아 실시해 강도를 조절. 이후 목표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다. 좀 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자신에게 맞는 강도의 근력 운동도 병행해보자. 근육이 강화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소모되는 칼로리가 많아져 요요현상이 줄고 장기적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무작정 굶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식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평소 먹는 양의 3/4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이인석 산콤코리아 대표



스위스 다이어트 키트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함유된 스위스에서 만든 건강식 다이어트 캔디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웰빙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짜거나 단 것, 기름진 음식은 식욕 자극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식단 조절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주로 칼로리가 낮은 야채나 과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 등을 챙겨먹도록 한다.

갑자기 줄어든 식사량으로 공복감이 생긴다면 씹는 재미와 함께 몸에 건강한 다양한 견과류를 섭취해 허기를 달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스위스 건강 다이어트 캔디 산콤

꾸준한 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식이조절을 병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을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층 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노려보는 건 어떨까.

특히 다이어트로 인해 생기는 변비현상을 개선해주면서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거나, 체지방 축적을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 건강과 다이어트에 두루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양한 다이어트키트 등을 규칙적으로 이용하면 일시적이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에는 스위스 다이어트 키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스위스 다이어트 키트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함유된 스위스에서 만든 건강식 다이어트 캔디로 3가지 맛의 산콤 식이섬유 캔디, 산콤 카라멜, 산콤 프로그램 가이드로 구성돼 있다.

이 산품을 선보인 산콤스위스는 스위스 JURA주 Delemont시에 위치한 식품 및 음료와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의사와 식품 영양전문가가 모여 2003년도에 설립됐다. 사장인 Mazourik 의학박사는 20여년간 의사로 미국과 스위스에서 활동했다. 현재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 산콤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체중조절과 다이어트분야에 많은 특허와 저서를 남기고 있다.

현재 산콤스위스는 국제무대에서 체중감량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2010년 국제기능제품전시회에서 다이어트 최우수상품으로 금상수상, 중국의 건강박람회에서도 최인기상과 함께 미국 할리우드 스타 오스카에서 우수상품 지정 등 세계적으로 제품을 인정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에 체중감량 및 체형보정을 위한 Body Shaper(의료용)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12년 8월에는 중국 심전에 여성 및 남성용 체중감량 및 체형보정속옷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식이섬유·천연과일·비타민으로 만들어

스위스 다이어트 키트의 주 제품은 산콤 식이섬유 캔디다. 수용성 식이섬유로 잘 알려진 프락토스 올리고와 이눌린이 함유된 제품으로 스위스에서 만든 유일한 저칼로리식으로 인체내부에 실제로 필요한 건강식영양관적 슬리밍 제품이다.

산콤은 강한 배고픔을 빠르게 완화해 주며 과체중의 원인이 되는 과식, 감정적인 과식, 고칼로리의 음식과 스낵의 접근을 감소시킨다. 또 체내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며 혈액에 있는 포도당 레벨을 조절하고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콜레스테롤을 낮추게 해 장내 유익한 균의 성장을 도와주며 더 나은 소화력과 음식의 영양 흡수를 제공한다.

산콤 식이섬유 캔디와 함께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과다한 식사와 고칼로리 스낵에 지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산콤 캔디는 스트레스-즐거움-지루함 등을 이유로 음식에 자주 손이 가는 경우, 과자-캔디-군것질 등 고칼로리 식품에 손이 가는 경우, 피 속에 포도당 수준이 급격히 저하 돼 식사사이에 심한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점심과 저녁식사 30~45분전에 먹으면 좋다.

산콤 식이섬유 캔디는 열량이 15칼로리 밖에 되지 않는다. 섭취 후 물 한잔(250ml)을 마시면 20분 후 섭취된 식이섬유가 위벽에서 물을 흡수하고 팽창돼 위벽에 있는 비만 수용체를 누르게 된다.

비만수용체는 뇌에 포만감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배고픔과 음식의 강렬한 욕구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킨다. 섭취된 식이섬유는 부작용 없이 1.5~2시간 후에 장을 떠나게 된다.

산콤 식이섬유 캔디는 천연물로 만들어져 화학물이나 인공식품 조제제 등을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식이섬유, 천연과일, 비타민으로 구성돼 1일 2회 최대 4개면 충분하다.

배고픔 진정·식습관 개선 등에 좋아

산콤 식이섬유 캔디는 자연산으로 100% 스위스에서 만들었다. 남녀노소 모두 먹을 수 있으며 유아의 경우 3세 이상이면 먹을 수 있다. 특히 야채나 과일 섭취가 적은 어린이의 경우 특히 좋다.

보통 과일의 경우 식이섬유 함량이 100g 당 사과는 2.1g, 바나나는 1.3g 복숭아는 1.4g이 들었다. 하지만 산콤 식이섬유 캔디는 사과와 약 8배인 16g과 비타민이 들어있다. 식이섬유를 위해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다.

평상시에 또는 운동시 산콤 식이섬유 캔디를 먹으면 배고픔을 진정시키는 효과와 함께 칼로리 섭취량을 줄여 준다. 자연스럽게 체중을 감량하면서도 요요현상이 없다. 또 소식을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장에서 해독작용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게 해 변비를 예방한다. 산콤 식이섬유 캔디 안에는 식이섬유 외에도 부가적으로 영양 및 비타민 A, C, E와 마그네슘 등이 포함돼 있다.

임상으로 입증된 체중감량 효과

산콤 식이섬유 캔디의 효과는 이탈리아 로마대학 의학부의 임상 시험보고서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11월 14일 로마대학 의학부에서 작성된 임상시험보고서를 보면 과체중 및 비만환자 51명(남자23명 /여자28명, 연령대18~60세)를 대상으로 4주간 시행한 결과 평균 3.1Kg 체중감량 결과를 가져왔다.

산콤 식이섬유 캔디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물론 영양불균형을 바로잡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은 물론 소아비만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복용하면 좋다.

이인석 산콤코리아 대표는 “현재 산콤 관련 제품들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다이어트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건강한 몸매를 가꾸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콤 스위스 다이어트 키트 등의 제품은 홈페이지(www.sankomkorea.com)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홍영복 기자 ybhong@

실전 스피치로 상대방을 감동시켜라

유연정 강사의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모(40)씨는 지난달부터 10살 아들을 스피치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평소 발음이 부정확한데다가 수업시간에 발표 등을 잘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 친구들에게 놀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요즘 스피치 학원은 유아, 초등생, 일반인 등 다양하게 반이 나뉘져 있고 언어 교정, 발성과 악센트 교정, 자신감 강화, 예절 교육 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발음 교정에도 효과가 좋고,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나 반장·학생회장 선거 때도 유용할 것 같아 앞으로 스피치 학원에 계속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력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페르난드 드러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표현력이며, 현대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말하기·듣기다.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스피치 능력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이다.

스피치에 강한 리더는 성공할 수 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없다면 절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설득할 정보전달 능력이 없다면 그 계획을 결국 사장되고 말 것이다. 결국 스피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인 것이다.

스피치의 힘 ‘설득력과 감동’

스피치란 무엇일까. 스피치란 말, 말하기, 말하기 능력을 통칭한

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기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스피치 명인들의 스피치는 내용과 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알아 듣기 쉬우면서도 핵심을 파악하고 정곡을 찌르며 교묘하게 구사한다. 그러한 과위가 있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득력 있는 스피치에는 뭔가 남들과는 다른 1%가 감추어져 있다. 숨어 있다. 이것이 바로 스피치 힘이자 영향력이다.

스피치학원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상사·동료와의 의사소통은 물론 직장 내에서 회의를 할 때도 스피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업무능력도 좋기 때문이다. 말하기 능력으로 대변되는 의사소통능력은 현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재산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각종 평생교육원과 스피치전문학원이다.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동료들과의 소통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교육비를 지불하고 학원의 문을 두드린다.

국내 최초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자격증 과정을 개발한 유연정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 강사는 면접을 준비중인 취업 준비생, 브리핑·프레젠테이션 업무가 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스피치능력을 전파하고 있다.

유 강사가 개발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자격증 과정은 브리핑, 프레젠테이션 기획 구성, 디자인뿐만 아니라 스피치 표현능력을 향상시켜 전문가의 PT능력을 갖추어 가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스피치의 기초부터 프로들의 프레젠테이션 현장 노하우까지 프레젠테이션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유 강사는 현재 기업 모바일 방송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출신 스피치 컨설턴트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자격증 과정은 프레젠테이션의 시각적, 음성적, 콘텐츠 구성 기법 뿐만 아니라 만인의 근심인 발표 올림증 극복 요령, 위기 상황 대처법, 프로들의 디테일한 기법 등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기초부터 고급 스

킬까지 온라인 수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수강생 스스로 발전된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이론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방송 경험과 프레젠테이션의 실전 경험에 스피치 이론을 뒷받침 했기에 교육 내용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과정을 마친 후에도 꾸준한 연습으로 프레젠테이션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0년 역사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

유 강사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증·학점은행제 평생학습 교육기관인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을 찾으면 된다.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www.didimedu.net 070-4077-3980)은 2004년 설립 됐다. 이후 학점은행제도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학위취득을 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목표로 하는 학사편입, 대학원진학, 자격증취득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취업 경쟁력,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자격증 과정을 제공, 취업지원을 연계해 회원 경쟁력 강화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결과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은 10여년 넘게 공공기관, 종교계, 기업계, 교육계, 언론계 각각의 분야로부터 콘텐츠의 우수성과 기업 비전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은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발 맞춰 다양한 강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학습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과정 수강 및 자세한 내용은 디딤에듀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정국 기자 bupdori@



머무는 것만으로도 힐링, 곳곳 살펴보면 오감만족

켄싱턴 제주 호텔

이랜드 그룹에서 운영하는 켄싱턴 제주 호텔은 제주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주목받고 있다. 켄싱턴 제주 호텔은 지난 4월 17일 그랜드 오픈한 이후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크루즈 생활을 지상에서

켄싱턴 제주 호텔은 '럭셔리 크루즈 라이프'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크루즈 생활을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던 제주와 마린 풍의 감각이 돋보이는 디럭스 객실부터, 가족 고객을 위한 포인포 키즈 테마룸과 야외정원을 바라보는 풀밭코니 스위트까지 총 221개 럭셔리 테마 객실을 갖추고 있다.

객실은 디럭스룸 172개, 포인포 키즈 테마룸 24개, 주니어 스위트 12개, 마린 스위트 6개, 마린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5개, 코리안 제주 스위트 1개, 프레지덴셜 풀프 스위트 1개 등 총 221개다. 전체 객실의 70%가 제주의 푸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션뷰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디럭스 객실은 제주의 푸른 바다를 향해하는 크루즈에 승선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스위트 프레지덴셜 풀프스위트는 골프 관련 인테리어 소품과 수백여권의 희귀장서를 구비한 서재공간을 만들어 색다른 품격을 제공했다.

이운규 총지배인은 "마린풍의 디럭스 객실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고객을 위한 키즈 테마룸, 사계절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풀밭코니 스위트 등 객실마다 개성을 부각시켜 전 객실의 콘셉트를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켄싱턴 제주 호텔은 중문관광단지에서 가장 많은 식음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영입한 최정상급 셰프들이 8개의 레스토랑에서 미식의 향연을 선보인다.

미각을 자극하는 일류 요리사의 고메 다이닝부터 제주의 특별한 별미가 가미된 월드 퀸까지 다채로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다올레 뷔페'와 호텔 옥상을 뜻하는 '루프탑'에서 중문 바다를 감상하며 맛을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인 그릴 & 바 '하늘오름'이 대표적이다.

신선한 제주의 식자재를 이용해 제주 현지 로컬 푸드를 선보일 한식당 '돌미루', 데관야키 전문 일식당 '해락' 등 다채로운 레스토랑이 고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준다. 돌미루에서는 제주 한식의 냄새가 풍겼다. 돔배고기, 은갈치 조림, 자리 구이, 전복구이, 오븐 자기 뚝배기 등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가 특선 요리로 제공된다.

문화 공연과 파티,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랜드 볼룸, 마린홀, 한라홀 등 다양한 규모의 연회장, 옥상 수영장인 '루프탑 인피니티풀', 사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야외 정원 '모을', 프랑스 최고급 스파 브랜드 'Thalgo'와 함께하는 '스파 에스테틱', 어린이를 위한 키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제주 오름을 형상화한 모을가든은 팜트리 200여 그루로 둘러 쌓인 럭셔리 가제보와 스파존을 갖췄으며, 바비큐&파티가든, 클럽룸 등의 체합이 가능한 산개된 가든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매 시즌마다 테마를 달리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여 호텔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관광과 힐링을 경험하게 할 예정이다.

중국 관광객에도 인기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갤러리도 눈길을 끈다. 산, 섬, 바람, 하늘, 구름, 바다, 소 등 한국의 강산을 주제로 한 로비 갤러리에는 중국 유명 도예가 주라경의 작품을 비롯해 동양화가 이월중, 배병우 작가의 미디어 아트, 각 층별 홀에 중국 유명 작가 자호이, 티에양의 그림이 전시돼 호텔을 넘어서 아트 갤러리 호텔 컨셉을 만끽할 수 있다.

주라경의 작품은 호텔 로비에 가로 24m, 세로 11m 크기로 웅장한 초대형 도예작품으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만개한 생명'이라는 작품으로 1600개의 도관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특별 공헌 예술가'라는 칭호를 수여 받은 세계적인 도예가 주라경 작가의 작품이다. 특히, 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픈 전부터 중국 관광객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1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2 모을 정원 3 포인포 키즈룸 4 갤러리 투어

해외 명품 쇼핑을 호텔에서

켄싱턴 제주 호텔에는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를 실속있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해외 명품 쇼핑 갤러리인 '럭셔리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켄싱턴 제주 호텔을 찾는 고객은 물론 제주도민도 이용 가능한 '럭셔리 갤러리'에서는 이랜드그룹의 해외 바이어들이 미국, 유럽 등의 해외시장을 다니며 직접 소싱한 글로벌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으며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수입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해외나 면세점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수입 브랜드를 호텔 내 럭셔리 갤러리에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찌, 말버러, 페레고모, 토리버치, 에트로, 프라다, 펜디 등 선호도 높은 수입 브랜드를 실속있는 가격에 판매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켄싱턴 제주 호텔은 뷔페가 아닌 정통 다이닝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데이&나이트 엔터테인먼트 등 호텔 내에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되는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호텔 오픈 초기부터 선보이고

있다. 올 11월부터는 새로운 버전의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가 '화이트' '레드' '네이비' 등 3가지 새롭게 선보인다.

켄싱턴 제주 호텔의 '켄싱턴'은 영국, 런던의 한 지역명이다. 17세기 초 건설되어 영국 왕실에서 사용한 영국 런던에 있는 켄싱턴궁을 뜻하기도 한다. 이처럼 영국의 지역명, 궁전명인 켄싱턴을 상징하는 영국을 모티브로 영국의 유니언기 컬러인 화이트, 레드, 네이비로 구분하여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의 가격과 제공 혜택에 따라 구성했다.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는 객실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함께 보통 하루 종일 뷔페를 제공하는 해외 리조트의 일련적인 올인클루시브 패키지와 달리 국내 최초로 뷔페는 물론 한식, 이탈리아 등 코스 메뉴를 제공한다.

또 더 뷰의 모히토 컬렉션, 더 라운지의 라떼 트리오, 오름 걷기 등 데이 엔터테인먼트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나이트 엔터테인먼트로는 풍성한 바비큐와 하이네켄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더 테라스의 '바비큐 타임', 라이브 밴드 공연, 마술쇼, 바텐더 플레이 쇼를 즐기며 각테일, 와인과 스낵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루프탑 홀리데이 파티, 셰프가 직접 만든 홈메이드 가마보코와 따뜻한 사케를 즐길 수 있는 더 테라스의 '릴렉스 타임' 등이 준비돼 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렌터카는 무료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큐레이터가 소개해 주는 갤러리 투어 프

로그램, 사계절 온수풀로 운영되는 실내의 수영장, 제주의 아름다운 오름을 형상화한 모을 정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풍성한 혜택으로 준비돼 있다.

로맨틱 기념일 패키지

켄싱턴 제주 호텔은 올 연말까지 연인을 위해 사랑과 고백을 테마로 '로맨틱 기념일 패키지'를 운영한다.

패키지는 디럭스 룸 1박, 조식 2인, 메모리 루프탑 이벤트 등이 제공되는 '로맨틱 메모리 인 제주'와 마린 스위트 1박, 조식 2인, 메모리 루프탑 이벤트, TOP 셰프의 디너 2인 등이 제공되는 럭셔리 '로맨틱 스위트 데이' 총 2종류로 준비된다.

'로맨틱 메모리 인 제주'는 모던 제주 & 마린 컨셉의 디럭스 룸에서 즐기는 편안한 휴식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의 야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루프탑의 프라포즈 이벤트로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진심이 담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 루프탑 프라포즈 이벤트는 샴동 와인 1병, 셰프 스페셜 카나페, 프라포즈 케이크, 꽃다발 등이 준비되며, 이 외에도 월드 퀸 뷔페 레스토랑 '다올레' 2인 조식, 국내 최초 럭셔리 루프탑 인피니티 풀 '스카이피리티' 이용 등이 제공되어 다채로운 혜택을 만끽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로맨틱 스위트 데이'는 마린 스위트에서 즐기는 호화로운 휴식과 루프탑에서 제공되는 샴동 와인 1병, 셰프 스페셜 카나페, 프라포즈 케이크, 꽃다발 등으로 둘만의 사랑을 고백하는 럭셔리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이 외에도 월드 퀸 뷔페 레스토랑 '다올레' 2인 조식, '스카이피리티' 이용, TOP 셰프의 정통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디너 2인 등이 제공되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던 로맨틱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오마이 키즈 패키지

오는 31일까지 운영되는 '오마이 키즈 패키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품이다.

'오마이 키즈 패키지'는 KBS에서 방영되었던 '동화나라 포인포' 캐릭터로 꾸며져 있는 포인포 객실에서 동화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고개들은 따뜻한 온수풀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마린 키즈 수영장, 세상에 하나 뿐인 우산, 티셔츠, 레고 팔찌 등을 만들어보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와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시간 동안 엄마, 아빠는 루프탑에서 하우스 DJ가 선사하는 디제잉 뮤직과 스크램블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버블 파티에 참여할 수 있어 아이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인포 곰 인형과 뉴발란스 키즈의 상품권이 선물로 제공되며 호텔 내 200여개의 작품을 전문 큐레이터가 소개해주는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아이에게 문화 체험까지 선사한다. 이외에도 제주 오름을 형상화한 모을 정원, 루프탑 '스카이피리티' 풀과 사계절 온수풀로 운영되는 커넥팅 가든풀 등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루프탑 홀리데이 파티

켄싱턴 제주 호텔 이탈리아 퀸 & 바, 하늘오름에서는 매일 밤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지는 '루프탑 홀리데이 파티'가 열린다.

루프탑 홀리데이 파티는 제주의 중문 바다와 한라산 전망이 환상적인 루프탑에 위치한 이탈리아 퀸&바에서 펼쳐지며 라이브 밴드의 공연, 바텐더 플레이 쇼와 함께 시원한 생맥주, 시그니처 각테일, 10여종의 와인과 스낵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파티다.

특히, 라이브 공연은 최근 새롭게 영입한 이탈리아 출신의 아이 듀오가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에서 오케스트라 협연과 단독 공연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탈리아 출신 듀오 파이노&테너 스테파노와 소프라노 지오르지아가 클래식 뿐만 아니라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즉석 야외 바비큐 스테이션

80여 가지 세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다올레'는 문어 세비치, 전복 카르파치오, 제주 흑돼지 하복, 리코타 치즈 등을 즐길 수 있는 '지중해식 에피타이저 스테이션', 연어 퐁크, 왕새우 구이 등으로 구성된 '다올레 시그니처 핫다쉬 스테이션', 제주 특산 별미를 즐길 수 있는 '제주 한식 특선 스테이션' 등 다양한 스테이션이 준비되어 있다.

이정구 기자 bupdori@

메이플레이스 서울동대문



녹색건축물 인증제 '최우수'... 쾌적한 실내환경 '만점'

메이플드 호텔의 세컨드 브랜드 '메이플레이스 서울동대문'이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한 '녹색건축물 인증제'에서 최우수 등급인 그린 1등급을 인증 받았다.

올 7월에 오픈한 '메이플레이스 서울동대문'은 '스페이스 앤 네추럴'을 지향하는 메이플드 호텔의 자연 친화적인 콘셉트를 고스란히 담은 곳으로 이번 인증제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호텔 내 모든 자재는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했고, 객실에는 친환경 한국식 바닥 온수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열전도율을 높이고 향균 및 항알러지 효과가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빛물 재활용-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철저하게 친환경적으로 시공했다.

한국감정원의 현장 실사를 통해 진행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이 반영돼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항목 중에서도 유효자원 제

활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자연환기성능 확보여부·투숙객을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김중식 총지배인은 "메이플레이스 서울 동대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환경을 생각하여 세심하게 건축한 호텔이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내·외국인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내 집처럼 편하게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4일 오픈한 메이플레이스는 13층 건물에 슈페리어, 스위트, 디럭스 룸 등 6개 타입의 107개 객실을 갖추었다.

객실 내부는 모던하고 컨템포러리한 콘셉트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창밖 풍경에 따라 창경궁, 창덕궁, 종묘의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팔레스 뷰'와, 서울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시티 뷰'로 나뉜다.

전 객실에는 친환경 한국식 바닥 온수난방 시스템을 도입하여

열전도율을 높였다. 호텔 내 모든 구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으며, 로비에는 간단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코너를 마련했다. 소규모 모임, 워크숍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컨퍼런스룸도 준비돼 있다.

비즈니스호텔에서 보기 드문 루프탑 가든(Rooftop garden)에서는 근처의 고궁 앞마당은 물론 도심의 살아 숨 쉬는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시즌별 이벤트도 진행돼 방문 고객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창경궁, 창덕궁 등 서울 5대 궁궐을 비롯해 동대문 쇼핑타운, 인사동, 명동,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대학로 등 주요 문화 및 관광 명소와 인접해 있어 외국인 고객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편리한 입지 요건을 자랑한다.

이정구 기자 bupdori@



Ddum

비타민하우스



약국전용

1588-8529

하루하루 건강하고 활력있는 내 삶!

백년 백세효모

1. 천연원료 100% 비타민B1과 맥주효모를 부원료로 담았습니다.
2. 활력을 원하는 중장년층, 현대인에게 영양보충을 해줍니다.
3.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4. 노약자나 성장기 어린이까지 드실 수 있는 효모입니다.

나이들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할 때
백세효모와 함께 하세요.



전국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코너에서 만나보세요.

자사주 매입 히든카드... '뱅크' 위험도 크다

경영진 “경영권 방어·주가부양” 위해 매수... 실적 뒷받침 안되면 오히려 ‘독’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주가 반응은 신통치 않다. 자사주 취득이 책임경영 의지 표명과 주가 부양 측면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진행되는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 목적과 주가 하락시 주가부양 측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취득 결정에 따른 주가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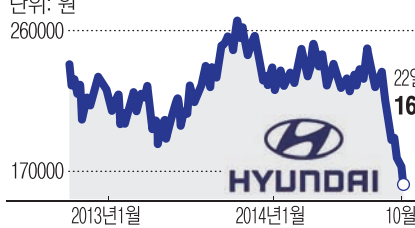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주가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실적과 모멘텀이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들어 17일까지 담도광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보통주 1384주, 우선주 120주 등을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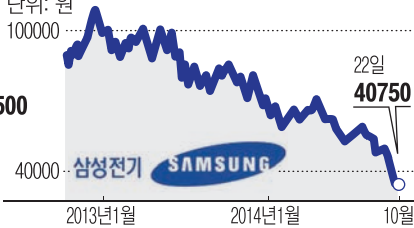
현대차 주가는 한전부지 매입과 과잉여파로 15만원선까지 밀려 내려오는 등 연이어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다. 지난해 26만6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경영진들이 주가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게

현대차 주가 추이



삼성전기 주가 추이



작용하며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현대차 주가는 3.29% 하락한 16만15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기도 주가부양을 위해 경영진들이 꾸준히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권영노 전무를 포함한 임원들이 보통주 715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기의 3분기 영업손실이 537억원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가도 낙폭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10만원을 넘보던 주가는 이달 들어 4만원선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날 삼성전기는 1.88% 오른 4만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업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이 단순히 주가에 득(得)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취득 배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한국콜마, 대우조선해양과 두산

도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증권업 관계자는 “과거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반등 모멘텀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많았다”며 “최근 코스피지수가 1900선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경우는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 주가 하락 방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20일 윤종환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 17일부터 자사주 3만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한국콜마의 자사주 취득 결정에 이날 주가는 11.27% 뛰었지만 상승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성장 문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며 주가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자금조달을 통한 한국콜마홀딩스 사업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한국콜마는 소외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하정희 기자 jcha@

신한금융 ARS 판매잔금

업계 첫 1조5000억 돌파

신한금융투자는 원금보장형 상품인 ARS 판매 잔고가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의 ARS는 2012년 출시 후 저금리 시대의 대안 상품으로 꾸준히 인기를 누려왔다. 최근 증시부진, 금리인하 기조에서 원금보장에 시종금리+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올해 9000억원 이상의 순증을 달성하기도 했다.

ARS의 인기몰이 비결은 원금보장과 우수한 수익률이다. 가입 1년이 지난 2000억원의 ARS 상품 평균 수익률이 17.2%라는 놀랄 만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투자금이 몰려 판매를 잠정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사에도 4차례나 있었다.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도 대부분 재투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만기 이전 롤오버한 계약의 경우 총 수익의 20.3%를 달성했다. 현재 원금의 95% 보장 형태로 추가자금을 불입해 재투자됐다.

또 내년 초 2년 만기가 돌아오는 다수의 법인계좌들도 롤오버 또는 추가 자금 납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ARS는 일명 롱쇼트ELB(원금보장형 ELS)로, 8~12% 수익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의 상품이다. 고객의 투자 원금 대부분을 CD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신한금융투자 고유자금을 롱쇼트 전략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ARS 가입금액은 최소 1억원이며,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 및 PWM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하나대투證, 해외 자문형랩 첫 선

하나대투증권이 해외 현지 운용사의 자문을 받아 전 세계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랩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0일 미국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인 블랙크레인캐피탈(Blackcrane Capital, LLC)의 자문을 받아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하나글로벌발알파랩(자문형)’을 출시했다.

‘하나글로벌발알파랩(자문형)’은 롱온리(Long only)전략을 구사하나 적절한 마켓 타이밍, 국가간 자산 배분 및 종목 선정 등을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전략을 사용한다. 이 랩의 가입 금액은 5000만원으로 증권과 은행 등 고객 자산가들이 밀집한 청담동 PB지점 등

강남 자산관리전문 지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블랙크레인캐피탈의 자문을 받아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운용전략을 추구한다”며 “자성장·저금리 국면 등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성과가 입증된 현지 운용사의 자문을 받아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자는 취지로 상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랩의 자문을 맡은 블랙크레인캐피탈의 대표펀드인 ‘블랙크레인알파펀드’는 2013년 1월 설립 이후 현재(2014년 9월 말 기준) 누적수익률이 40%에 이른다. 통상 헤지펀드는 ‘블랙박스(운용전략을 공개하지 않는 것) 전략을 추구하는

미국 현지 운용사와 연계

헤지펀드 전략 수익 추구

데 블랙크레인캐피탈은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 운용과 포트폴리오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블랙크레인캐피탈은 지난 2013년엔 고객 서비스와 시장조사를 위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상훈 블랙크레인 한국 사무소 대표는 “지금까지 소개된 해외상품은 재간접이나 위탁 형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펀드매니저와 교감하기 힘들고 성과가 안 좋아도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며 “이번 하나대투증권과의 협약은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성과가 우수한 해외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인터뷰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 센터장

“후강통,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 中 내수 소비재·헬스케어 주목”

“후강통 시행으로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만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처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중국 유안타증권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후강통 투자를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후강통은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후강통이 실시되면 해외투자자들은 홍콩거래소를 거쳐 간편하게 상하이거래소의 A주를 살 수 있게 된다.

후강통 투자를 장기전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후강통 시행 후 중국 증시가 급등한 뒤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나 이는 단기적인 수급 논리”라며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자산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계속 성장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저점 대비 주가상승률이 30%도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후강통 투자로 상하이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로는 헬스케어와 소비재가 꼽혔다. 중국이 민간소비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이 업종의 성장성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30%에서 60~7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센터장은 “중국이 고정자산에만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소비를 일으켜 성장하겠다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의 내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공모형태의 채권형 펀드를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박 센터장은 “현지에서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보고서와 투자종목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증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시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대우證, 인도네시아서 IB 라이선스 취득

KDB대우증권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언더라이팅 라이선스는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매출하거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M&A 등의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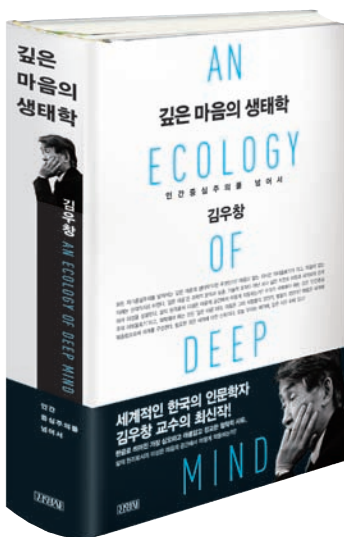
KDB대우증권은 이번 언더라이팅 라이선스 취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IB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KDB대우증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 현지은행의 양도성에 금증서(CD) 발행에 단독 중간사로 선정됐다. KDB대우증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안두상 사장은 “이번 언더라이팅 라이선스 취득으로 본격적인 IB업무를 시작하게 됐다”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자체 신용을 이용한 현지 자금조달과 신규 진출 희망기업들의 M&A와 PF 등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정희 기자 jcha@

“마음은 그대 사람들의 것인가, 별들의 것인가?”

이성은 마음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인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석학 김우창의 강철 같은 사유가 펼쳐내는 깊은 마음의 구조에 대한 놀라운 탐구! 문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수학, 생물학 등을 총망라한 압도적 지식, 눈부신 통찰을 통해 동서양 최초로 ‘이성과 마음’의 문제를 생생하게 파헤치다. 한글로 써어진 가장 심오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철학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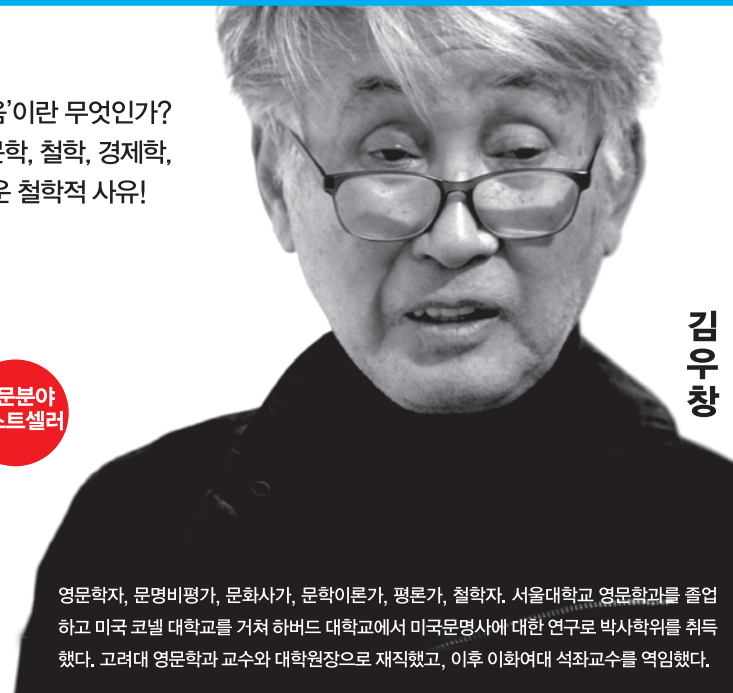


김우창
양장 | 516쪽 | 27,000원

깊은 마음의 생태학

|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 AN ECOLOGY OF DEEP MIND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김우창

영문학자, 문명비평가, 문화사학자, 문학이론가, 평론가, 철학자.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문학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와 대학원장으로 재직했고, 이후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세계적인 한국의 인문학자 김우창 교수의 최신작!

인간의 이성과 마음, 자연과 세계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찰한 역작! 김우창 교수의 사유 세계는 고대와 근대와 현대가 서로 비추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대화의 장이며, 우리의 궁색한 생각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잡이가 되어준 통찰의 등대이다. **도정일**(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 선생의 주옥같은 글들은 한글로 쓰여지는 글로서 이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글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글에 담긴 지식과 지혜의 깊이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조차 최고의 수준이다. **최창집**(고려대 명예교수) | 이 땅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청년들과 독자들이라면, 김우창이라는 산을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문광호**(충북대 독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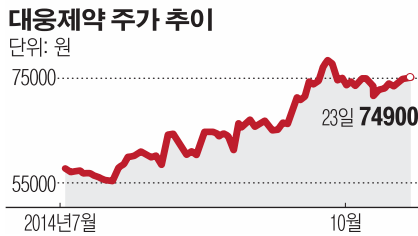
회사채 수요예측 대박... 포효하는 대웅제약

1000억 모집에 6400억 몰려... 올 최대 경쟁률 현대重 넘어서

대웅제약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6배가 넘는 물량을 끌어들이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 경쟁률만 비교하면 역대급 규모다.

23일 투자은행(IB)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발행하는 1000억원 규모의 3년물 무기명사채 이권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에 6400억원이 몰렸다. 기관투자자의 경쟁률만 6.4 대 1에 달한다. 올해 회사채 수요예측 최대 경쟁률은 현대중공업 5대 1이었으나 이를 넘어선 것이다.

대웅제약은 회사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것도 고려 중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cGMP(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생산시설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충북 오송에 신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 투자금액은 2100억원 규모로, 회사채 발행을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리는 대웅제약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5%p~+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정했지만 상단에서 결정될지는 확정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행했던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은 2.812%였던 만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의 신용등급은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가 각각 A+, AA-로 평가했다.

지난 3개월 간 국고금리, A+ 등급민평 및 당사의 개별민평 금리를 보면 감소 추세를 보이며, 대웅제약의 개별민평 금리 스프레드 역시 축소세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투자자의 채권 선호, 공사채 발행물량 감소에 따른 크레딧 발행시장의 강세, 기준금리 인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황윤주 기자 hy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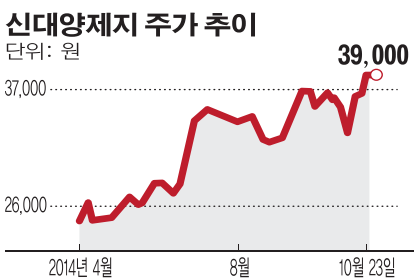
한가람투자자문, 신대양제지 '러브콜'

택배물량 골판지 수요↑
18만4410株 장내매수

한가람투자자문이 신대양제지 주식을 적극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가람투자자문은 신대양 주식 18만4410주(지분 5.05%)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한가람투자자문이 신대양제지의 주식을 사들인 것은 지난 15일로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을 확보했다.

한가람투자자문 측은 "이번 주식 매수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며 "신대양제지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 결정에 나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신대양제지는 골판지를 주로 만드는 제지업체로 최근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이 늘어나면서 골판지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태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온라

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 성장으로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의 직구가 늘면서 국민 1인당 연간 이용하는 택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원자재로 쓰이는 폐지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박선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야 하는 박스업체와 달리 원지 업체는 계열사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이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원지보다 고지 가격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고지가격이 하락하면 고지와 원지 가격차 확대에 따른 원지 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디피씨 자회사, 중동서 세번째 투자유치

디피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중속회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만수르가 최고위원으로 있는 아부다비 투자청까지 투자처를 넓히는데 성공했다.

스티크인베스트먼트는 이로써 중동에서만 세 번째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디피씨 관계자는 "자회사 스틱인

베스트먼트 사모펀드에 아부다비투자청(ADIA)으로부터 1억달러 투자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6년 아부다비(1억달러)와 2009년 사우디 국부펀드(1억달러)에 이어 아부다비 투자청으로까지 투자처를 넓힌 것"이라고 자평했다.

지난 21일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인터넷

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저명인사 이자 부의 아이콘인 만수르의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사모펀드 투자 소식이 전해졌다.

포털사이트에 팬카페만 20여 개에 달할 만큼 유명한 만수르 투자 소식에 투자자들은 관련주 찾기에 나섰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디피씨를 찾아냈고 이내 주가는 상한가로 치솟았다.

설경진 기자 skj78@

공시 돋보기

게임·소프트웨어 '큰 형님' 김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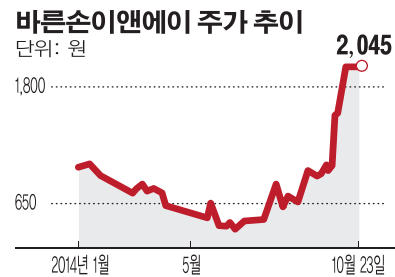
〈前 그라비티 회장〉

바른손이앤에이 주요주주로 컴백

게임·소프트웨어 업계의 '큰 형님'으로 불리던 김정률 전 그라비티 회장이 바른손이앤에이의 주요주주로 등장했다. 2005년 게임업체 '그라비티'를 일본 소프트뱅크에 4000억원에 매각해 초대 박을 터뜨렸던 김 회장이 게임업계에 복귀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손이앤에이는 2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김정률 회장이 5.56%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은 특별관계자인 권순자씨는 지난 10월 15일 합산 보유주식수가 전체 발행주식 수의 5%를 초과해 보고 의무 발생했다. 이 후에도 꾸준히 지분을 늘려 16일부터 3거래일에 걸쳐 7만 4253주를 장내 매입했다. 22일 현재 김 회장이 보유한 바른손이앤에이 주식은 180만1253주(3.33%) 권순자씨는 120만 6000주(2.23%)에 이른다.

김 회장은 그라비티를 통해 '다그나로크'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던 인물로 유명하다. 2000년 게임업체 그라비티를 설립해 온라인게임 '다그나로크'를 상용화한지 2년 만에 세계 21개국에 수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05년 국내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나스닥에 적상장시켰고 그라비티의 나스닥 지분 52.4%(364만 주)를 소프트뱅크 계열 투자회사인 EZER와 테크노 그루브사(社)에 4000억원을 받고 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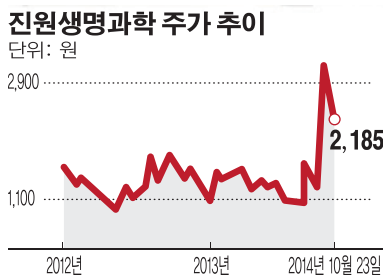
이후 김 회장은 송도 유원지 부지를 매입, 부동산개발업에 뛰어들어 동시에 싸이칸을 인수해 독자적으로 온라인게임 사업을 전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13년 말 게임 사업에서 철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분 매입으로 그가 게임업계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바른손이앤에이는 바른손이앤에이는 바른손 계열의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업체로 Full 3D MMORPG 게임인 '라그나로크'와 '라스트카오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바른 손이앤에이의 최대 주주는 17.44%를 보유한 문양권 전 대표이사이며 바른손이 1.42% 가지고 있다. 현재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문양권 전 대표이사과 김정률 회장이며 만기보고서 기준으로 소액주주 보유비율은 64.33%에 이른다.

바른손이앤에이 관계자는 "지분 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진원생명 과학사 이노비오
美 국방부에서 128억 지원

진원생명과학은 관계사인 이노비오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1220만 달러(약 128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노비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글로벌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연구개발전문 자회사인 '메디클'과 함께 인플루엔자와 항생제내성균을 치료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 기반 단클론항체치료제의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해당 연구에 1220만 달러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했다.

이노비오는 실험동물물을 이용한 예비 연구를 통해 플라스미드 기반 단클론항체치료제의 강력한 중화항체 생성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내용은 국제과학잡지인 'Human Vaccines & Immunotherapy'를 통해 발표됐다.

해당 연구에 필요한 임상시료는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인 플라스미드 전문 위탁생산기업인 VGXI가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진원생명과학은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 및 치료용 DNA백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HERNO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에르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02 3449 5965 · 02 3467 8377

★혁신을 심습니다 창조경제가 자랍니다



작고 작고 작은 혁신에
누군가의 상상력을 더하고,
누군가의 지식을 보태고,
누군가의 기술로 실현하면
우리 모두의 놀라운 미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아닐까요?

작은 혁신들을 모아 큰 미래를 일구는 일
SK이노베이션의 혁신으로 시작합니다

혁신을 > 혁신하다 > **SK** 이노베이션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석유,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을 융합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별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세종 창조마을 시범사업

태양광 에너지 등 첨단기술이
농촌과 만나는 '세종 창조마을 시범사업'.
삶의 질이 높아지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갑니다.